佛事 전념 20年
불교미술전시관
사찰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에 드립니다.
☎ 02)733-4800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2-1522/구독신청:737-0090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2월 2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51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끝〉

무분별한 승려의제

선종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중의 하나는 5조 홍인이 삼경 깊은 밤 은밀히 혜능을 불러 의발을 전하는 모습이다. 승복은 전법(傳法)의 상징이다. 하필이면 의발인가. 먹고 입었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면서도 너무 익숙한 것에 가장 큰 뜻을 담았던 것은 아닐까. 주요 사찰에서 가사 불사를 봉행하는 것도 법을 잇는 스님들에 대한 공경의 뜻이다.

그러나 요새 스님들의 옷을 보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가사는 짙은 밤색 또는 빨간색이지만, 장삼의 색깔은 여러 가지이다. 대부분 회색이지만, 어떤 스님들은 검은색, 또는 짙은 군청색 장삼을 입고 있다. 어떤 종단의 스님들은 평상시 행사에도 예사로 금란가사를 휘감는다. 최근에는 남방불교의 영향 때문인지 하늘색 장삼을 입은 스님들의 모습도 보인다. 불자들은 불교와 유사한 종교의 수행자가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여러색 신도들 혼란
의제개혁 흐지부지

조계종 의제법은 가사 장삼 평복 등으로 의제를 구분하고 색깔도 있다. 모자에 대해서도 종령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30여년 전인 62년 제정된 것이고 18조에 불과해 자세한 규정을 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96년 의제개혁을 추진키로 하고 의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몇 차례 열어 개혁안까지 마련했다. 무질서한 승가의 의복을 정비,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밝다운 의제를 실현키 위해서였다. 그러나 위원회 내부의 의견이 달라 결론을 얻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몇 차례의 조계종 사태로 승복이 부끄러움의 상징이 됐다고 스님들 스스로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의제의 정비를 통해 흐려진 승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人天)의 스승으로서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본분사에 충실할 때 승복은 불법(佛法)의 상징으로 더욱 빛날 것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외환은행 : 189-13-03929-3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8223
예금주 : 불교방송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삐걱'

조계종 포교원 "조직확대 선행"-준비위 "정체성 확립 우선"

"여성불교운동 활성화 답보 우려" 여론

새천년 여성불교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가칭 불교여성개발원이 준비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

이같은 상황은 포교원과 불교여성개발원 준비위측이 발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확대가 우선이냐, 정체성확립이 우선이냐는 방법론상의 견해차에 직면함으로서 발생했다.

15일 포교원에서 열린 불교여성개발원 회의에서 포교부장 현진스님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종단을 대표하는 여성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적 규모의 인원동원을 통한 조직구성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불교여성개발원 준비위측은 "지금은 출발단계이므로 여성불자들의 자발적 동기유발을 이끌어낼 내용확보가 시급하다"면서 "창립준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론토대와 사업계획을 확보한 후 전국조직망 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듭되는 토론에도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현진스님이 회의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잠시후 다시 들어와 "이런 상황에서 여성불교 더 이상 못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태가 확산됐다.

포교원측의 관계자는 포교원 정식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기다려달라는 말을 전했으나, 포교원의 전체실무를 관장하는 부장스님이 더 이상 여성불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상 그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위측은 "인원만 확보해 놓고, 제대로된 사업방향을 찾지 못해 와해돼왔던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적 역량과 사업계획을 갖춘 후에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 동안의 회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문제는 불교여성개발원 설립 초기부터 우려해온 포교원과의 관계설정 문제가 표면으로 불거져 나온 것으로, 독자성을 가지면서 종단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6월 여성불자의 새흐름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계기로 창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당초 12월내에 불교여성개발원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불자의 교육과 인재양성의 장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포교원측과 준비위측이 다시한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하자

뒷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다. 텅 비워서 더 넉넉해 보이는 겨울 들녘 같은 사람들. 더 잃을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정신대 할머니'라고 부른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20세기는 악몽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만의 악몽이었을까? 이제 또 한 세기가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영욕으로 얼룩진 우리의 20세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제 강점기, 6·25, 4·19, 5·16, 유신 그리고 IMF.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하자. 정신대 할머니들의 저 밝은 웃음을 닮자. 과거와 현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미래란 없다. 차분히 지난 날을 성찰하며 미래를 설계하자.

태고종 10대종회 개원

의장에 남파스님
내년예산 19억 통과

태고종 제10대 중앙종회가 16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개원식을 갖는 한편 77회 정기종회를 열었다. 이번 종회에서는 종회의장에 유남파스님, 부의장에 김법장스님과 김대운스님을 선출했다. 또 운영분과위원장에 인공, 교육분과위원장에 지허, 재정분과위원장에 법선, 법제분과위원장에 운경, 교육분과위원장에 운곡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태고종 종회는 또 △태고사 및 선암사 성역화 △종단자료 및 각종 법령집 발간 △종무행정 전산화 △북한불교 지원 및 교류 △국가안녕과 발전을 위한 기원법회 봉행 △선암사 장경각 경관 정대불사 등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19억6천여만원(직할 선암사예산 6억3천5백만원 포함)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경숙 기자

신규가입종단 심사위 구성

종단협, 겨레손잡기도 적극 참여키로

종단협의회는 21일 서울필동 한국의집에서 6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규가입종단 심의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종단협 가입을 희망하는 종단의 승려 및 신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실사한다. 심의원원회는 조계 태고 천태 진각 관음종 등 9개 종단의 대표들로 구성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새 회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의 방북(11. 24~30) 결과를 보고받았다.

종단협의회는 내년 3월 1일 실시되는 '화해와 평화를 향한 온겨레 손잡기 운동'에 범종단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자기를 바로 봅시다"

'새천년 불국토 건설'의 심볼로 사용
본사 새해 1년동안, 재미화가 문범강씨 작품



관(卍)과 만(卍)자를 형상화한 것으로, 현대불교는 2000년 한해 이 심볼을 '새천년 불국토 건설'의 의미로 사용한다

'불국토 건설'을 새 천년의 화두로 삼은 현대불교는, 그 해답을 '자기를 바로 보는 일'에서 찾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약한 '팔정도'나 보살의 길을 제시한 '육바라밀'의 실천도 '자기를 바로 보는 일'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은둔적 이미지나 종권 다툼 또는 사회적 무관심을 질타하는 불자들은 많습니다. 사실 그런 식의 비판은 불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향의 도리로 그러한 상황을 성찰하는 불자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현대불교는 조금은 선언적으로 말합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몸소 그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사실상 새 천년의 대안은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이미 마련이 된 것입니다. 현대불교의 제안은 바로 그 길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이에 현대불교는 2000년의 지면 제작 방향을 '자기를 바로 봅시다'로 삼고 그 구체적 방법을 지면에 담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문범강

* 위 심볼을 만든 문범강 씨는 미국 화단에서 왕성히 활동하면서 조지타운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작품 사용을 흔쾌히 허락하고 현대불교 독자들의 신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세계종교의회 달라이라마등 7천명 참석

21세기 '삶의 가치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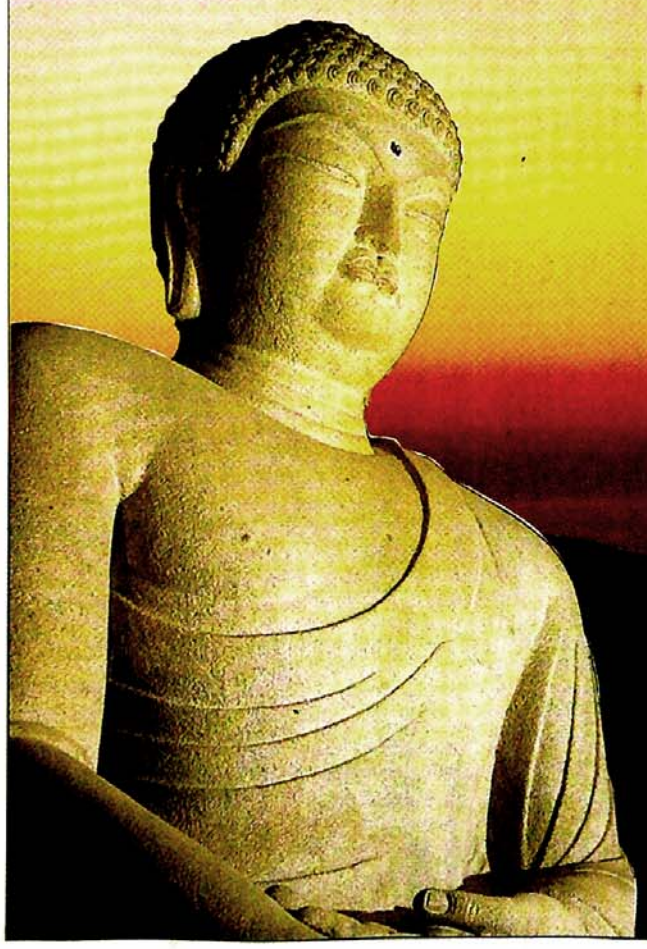
'99 세계종교의회가 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정신적 열망과 성스러운 가능성'을 주제로 달라이 라마를 비롯 세계 각국에서 7천여명의 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세계를 선도하는 단체들의 소명(A Call to Our Guiding Institutions)"을 발표, 함께 가꾸어 나아가는 미래 공동체를 제시해 주목된다.

에이즈 사망자 추모 행사로 시작된 종교의회는 각 종교의 전통적 명상과 기도회, 800여개의 각종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종교의회는 각 계층과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에게 세계적 상황 윤리와 당위를 일깨우고 사회적 책임과 권고를 담은 70쪽에 달하는 윤리헌장 '세계를 선도하는 단체들의 소명'을 공표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로 얼룩진 세기를 보내며, 수많은 종교인들이 여기에 침묵하는 것을 보아왔다"며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 세기에 보다 많은 피를 흘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선언과 함께 채택된 이 윤리헌장은 '인간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지구 공동체 일원으로서' 등의 각 장을 통해 평화·형제애·동질감·비폭력·경제정의 등의 21세기 삶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감사원장 정산스님, 교육부장 도원스님과 종교연합 한국지부장 진월스님, 원불교 박청수교무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지난 9월 과견한 6대 종교 자원봉사자 6명이 행사 진행을 도왔다.

오종욱 기자



새해맞이 토함산 기원대축제 (대동한마당)

일 시 : 1999년 12월 31일 밤 10시 ~ 2000년 1월 1일 오전 8시 장 소 : 토함산 석굴암 통일대종광장

천년 불심이 살아 숨쉬는 경주 토함산!
민족의 불심을 지켜주셨던 석굴암 부처님!

토함산 불국사는 경주시와 공동으로 새 천년의 희망을 함께 기원하는 대동의 마당을 마련하였습니다.
동해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분열과 반목의 어제를 뒤로하고 화합과 희망의 새 천년을 기원하는 대동의 마당에 사무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새해맞이 길놀이
• 새해맞이 시민잔치

타 종 식
• 혜암 종정 예하 법어
• 정대 총무원장 큰스님 신년 메시지

새 천년맞이 대동한마당
• 조명 및 멀티폭죽쇼
• 축하공연

새 천년의 설레임
• 희망의 탑 메시지
• 새 천년의 소리

새 천년의 환희
• 젊음의 열기
• 대동한굿
• 새해맞이 공연
• 새해맞이 대동한마당

■ 주최 및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본사 불국사, 경주시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동국대학교, 법보신문사,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방송국, 불교TV
■ 협찬 : 경북관광개발공사 ■ 진행 : 불국사 신도회 ■ 연출 : 서인주 외 ■ 기획 살판 21
■ 증명 : 종정 혜암 대종사, 원로회의 의장 탄성 대종사, 총무원장 정대 대화상
■ 고문 : 조계종 종회의장 법등, 조계종 교육원장 일면,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 불국사 신도회장 변영우, 경북도지사 이의근, 국회의원 김일윤, 임진출, 도의회의장, 장성호, 경북관광개발공사사장 이용택, 대구고등법원장 지홍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송인준, 도교육감 도성회, 도경찰청장 김종우, 동국대부총장 최규철, 법보신문 편집고문 정휴, 박물관장 강우방
■ 추진위원장 : 불국사 주지 이성타, 경주시장 이원식 ■ 추진위원 : 시의회의장 이장수, 경주지원장 이대경, 경주지청장 이상형, 경주경찰서장 김영복, 세무서장 박지용, 소방서장 이수길
■ 집행위원장 : 석굴암 주지 김종상 ■ 집행위원 : 총무 징주, 기획 증문, 홍보 종천, 재정 정문, 섭외 정견, 경주사·암, 경실련, 청심거사림회, 불국다보회, 합창단, 진여회 불국동 영산회, 구정동 영산회, 교정 불자회, 어린이 합창단, 자모회, 서광회, 구품연지, 보현회, 금강회, 운불련, 교사불자회, 군불자회, 군불교 후원회, 카루나, 어린이법회 자모회

사 설

갈 길 바쁜 한국불교

99년 한해, 아니 20세기라는 한세기가 지금 막 마감하려 하고 있다. '마감'이라는 단어에서 앞으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무엇'의 시작을 예감한다. 그러나 한국불교계로서의 그 시작은 지난날의 철저한 반성과 참회를 바탕한 자기변신 없이는 전혀 새로움을 이루어 낼 수 없다.

지금 한국불교계 자화상을 그리자면 그야말로 만신창이다. 교단을 튼튼히 지탱하고 있어야 할 승가는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끝없는 분쟁과 폭력으로 사회의 지탄과 조소를 감수하고 있으며 새로운 총무원장 체제가 출범했음에도 아직 분쟁 당사자간 근본적인 화해의 기약은 없어 보인다.

교단의 기동이 이럴진데 종단운영의 제일 과제인 수행과 포교를 위한 백년대계를 어떻게 세울 것이며 또한 이를 어떻게 일심으로 실천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분쟁의 씨앗은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얽히고 설킨 악연들과 이를 은근히 이용하고 부추겨온 여러 불교 외적인 요인들에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 10월 서울지법의 총무원장직부존재 판결과 총무원장 직무대행 선임은 한마디로 세속의 권위가 불교종단을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예증이 된다. 이는 그동안 권력에 은근한 눈길을 보내며 걸핏하면 세간법에 의탁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승가의 업보가 아닐 수 없다. 이점 승가의 반성과 참회의 모습을 보고싶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조계종의 새 총무원장 체제로 새해를 맞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해가 바뀌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 한국불교가 갈길도 바쁘다.

우선 상처받은 불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사부대중의 원력을 하나로 묶는 일이 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출가승들의 출가정신 회복을 제 1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승가의 존엄성 회복과 시대를 이끄는 불교교단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다.

무엇보다 새천년은 서력(西曆)의 역사극복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 세계가 서력기원 개념속에 하나로 묶여 맹목적으로 달려온 상극의 사상, 인간의 이기심만 끝없이 부추겨온 그 문명폐해의 치유에 불교가 적극 나서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천년의 서양사상을 반성하는 목소리 가운데 새천년, 마음의 시대를 열 새로운 열쇠가 불교안에 있음을 예견하는 소리 또한 높다. 그 가운데 유일한 대안으로서의 한국禪을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래선지 지금 많은 서구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목말라하고 있다. 요즘 서점가의 톱 베스트 셀러가 되고 있는 조계종의 미국인 승려 현각스님이 쓴 책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가 이를 증거한다.

한국불교는 이제 국내만이 아닌 세계를 무대로 삼아 서구인들의 목마름에 화답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몇몇 눈밝은 스님들이 일찍부터 서구사회로 진출, 개인적으로 눈부신 포교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제 이같은 개인적 진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종단차원의 계획과 지원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천년을 앞두고 세계는 종교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긴 했으나 종교갈등은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 불교권에 대한 타종교의 공격적 확장 추세가 그중 하나다. 이에 대한 불교권의 방어가 부실하다면 새천년 세계는 또다시 상극의 사상으로 괴로워해야 한다. 한국불교가 하루빨리 자신을 추스르고 시야를 세계로 돌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불구 전통사찰 농지취득 또 불허

실상사등 신청에 농림부 자의적 법해석 "취득불가"

농림부가 또다시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불허함에 따라 조계종과 정부의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농지과는 10일 실상사 위봉사 동학사 청계사 등 4개 사찰의 농지취득 신청(2만8천여평)에 대해 기존 농지로도 귀농학교 실습 가능 또는 휴경 등의 이유로 불허 조치했다. 그러나 위봉사가 신청한 일부(2천1백여평)만 취득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총무원은 "종단과 농림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전통사찰에 한해 농지취득을 가능토록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농지과장이 시행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농지취득을 불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정부와의 관계정립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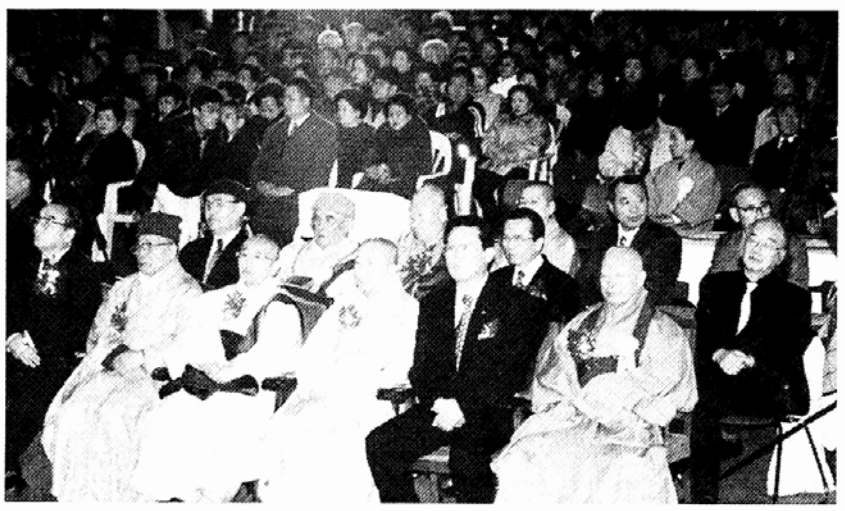
농림부는 지난 5월 농지법 시행규칙을 고쳐 시험·연구·실습지 등의 용도로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전통사찰을 포함시켰다.

농림부가 또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불허하자 조계종 재무부 재정국장 성효스님 등은 13일 농림부를 항의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농림부 농지과장은 "실상사의 경우 현재 농지로도 귀농학교 실습지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취득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효스님은 "필요농지는 사찰에서 결정할 사안인데도 농지과에서 규정에도 없는 상한선을 적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항의했다. 조택동 재정과장은 "실상사에서 취득하려는 농지는 주지 도법스님 명의로 돼있는 등기를 실상사 명의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며, 취득신청 농지는 이미 귀농학교 실습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상사 이외의 사찰에서 취득신청한 농지도 모두 주지 또는 연고자 명의로 등기된 것을 사찰 소유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전통사찰의 농지취득 당위성과 농지과의 불허에 대한 반박문을 김성훈 농림부장관에게 보내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한 모임에서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만나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성효스님이 전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한불총 '불자화합 대축제'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회장 문홍주)는 1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각 종단 대표와 산하 65개 재가단체 회원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자화합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식전 행사로 길닦기 공연과 사물놀이, 1부 행사로 신임회장인 문홍주 前문교부장관의 취임식과 법요식에 이어 2부 행사에서 불자 연예인들이 출연한 가운데 가요와 국악 공연이 펼쳐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정대-월하스님 통도사 만남

정변전서 30여분 대화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과 정화개혁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월하스님이 14일 새벽 통도사에서 만났다. 정대스님은 이날 신허스님의 안내로 통도사 정변전에서 월하스님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정대스님을 수행했던 사서차장 지장스님은 "정대스님이 스승인 월하스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통도사를 방문했다"며 "두 분이 30분가량 얘기를 나눴는데 간간히 큰 웃음소리가 방장실 밖까지 들렸으며, 정대스님이 방장실을 나올 때 월하스님도 문밖까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정대스님의 말씀이 없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불교TV 사장에 주양자씨



불교TV 이사회는 1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31차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 사장에 주양자 前보건복지부장관〈사진〉을 선임했다.

불교TV는 이에 앞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혜성(도선사 회주)스님과 주양자씨를 신임 이사로 선출한데 이어 설정(前 조계종 종회의장) 현호(법련사 회주) 철웅(前 마곡사 주지) 혜정(일승종총무원장) 무진(원효종총무원장) 남현(前 불교TV 전무)스님과 허문도 前사장 등 7명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이로써 등기이사는 총 27명(감사포함)이 됐다. 이자리에서는 불교TV 경영정상화를 위한 주주들의 경영참여에 대해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출석이사 5명과 위임 9명 등 총 13명의 이사가 참석하고 조계종 문화부장 일철스님이 자리한 이사회에서는 2시간 여 마라톤 회의로 진행돼 주양자 前장관의 이사영입을 결의하고, 안건으로 채택됐던 자본감소의 건은 다음회기로 미뤘다.

주양자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경북여고와 서울대 의대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국회의원(자유민주연합)을 지냈다. 또 한국여의사회장과 국립의료원장 등을 역임했다.

위영란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설득하기 힘들어…

승가대 김포학사 합동조사 '무산'

학인-조사단 몸싸움 특위, 21일 재조사키로

조계종 중앙종회 중앙승가대 김포학사특위 합동조사소위(위원장 영담)의 제1차 현장조사가 중앙승가대 학인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됐다.

14일 오전 10시 김포학사에 도착한 종회의원 영담, 지홍스님과 교육원 교육국장 견진, 중앙승가대 법인처장 종석, 기획실장 섬산, 총학생회장 대혜스님 등 합동조사단은 중앙승가대 학인 30여명에 의해 본관 감독관실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몸싸움을 벌이다 30여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무주스님등 5명의 호법부 스님에 의해 해산됐다.

이날 학인들은 10분간만 면담시간을 달라며 영담스님에게 요구했으며, 영담스님이 이를 거부하자 학인들은 영담스님의 몸을 잡은 채 몸싸움을 벌였다.

한편 중앙승가대 학인 대표들은 16일 오전 종회 사무처에서 영담스님과의 면담을 가졌다. 학인들은 이날 김포학사로의 조속한 이전과 14일 벌어진 몸싸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영담스님은 학인들에 대한 조사는 호법부가 관단할 문제이며, 학교 대자보를 통한 성명서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은 공인으로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호법부는 중앙승가대 학인들의 잇단 성명서 발표와 합동조사 저지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위의 합동조사는 21일 오전 10시에 김포학사에서 속개된다.

김재경 기자

'총무원장 부존재' 소송 정영스님, 서울지법에

정화개혁회의측 총무원장 정영스님이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상대로 총무원장자격 부존재확인 소송을 14일 서울지법에 청구했다.

정영스님은 소장에서 △정대스님은 98년 11월 14일 당시 월하종정에 의해 해산된 종회에서 개정한 종헌 총무원법 총무원장 선거법에 근거하여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종헌을 개정한 144회 임시중앙종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성운 기자

"사미의제 미착용학인 구족계 자격 1년유급"

조계종 교육원 공문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16일 사미의제를 착용하지 않은 해인사 승가대학(강원) 학인 전원(43명)에 대해 징계를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원은 "사미의제를 착용하지 않은 예비승 전원은 구족계 수지 자격을 1년 유급한다"면서 "다만 21일까지 예비승 의제를 착용, 승가대운영위원장(주지)과 학장의 확인을 득한 보고서를 보내 올 경우 징계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승가대학교 200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기본교육기관」입니다.

〈정시모집 "라"군〉 신입학생 모집요강

모집학과 및 정원

계 열	학 과	일반전형 (60%)	특별전형		비 고
			정원내 40% (대교과출신)	정원외 (재외국민등)	
인 문	불교학과	18	12	1	
	역경학과	18	12		
사 회	포교사회학과	18	12	1	
	사회복지학과	18	12		
합 계		72명	48명	2명	122명

※특차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복수전공이 가능하여 타학과를 같이 전공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특별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0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강원 대교과(4년)졸업(예정)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40%내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인성)고사로만 선발함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0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60%내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고교내신성적	필기(교리)고사	면접(인성)고사	합 계
40% (400점)	40% (400점)	20% (200점)	100% (1,000점)

원서 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 99. 12. 13. ~ 12. 31.
■ 접수기간 : 99. 12. 28. ~ 12. 31.

■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출석 및 증요과목 성적 기록 및 작성교직원 서명 또는 날인후 테이프 부착
(2)고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1부
(3)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1부 : 2000년 졸업예정자는 제외
(4)승적증명서 1부
- 타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5)강원 대교과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특별전형 지원자는 조계종 교육원에서 강원졸업증명 확인서 첨부
(6)주민등록 등본 1부
(7)사진 (오조가사 수한 반명함판 3×4Cm) 5매제출 (3매 원서부착 2매별도)

■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원서대 및 입시요강 : 3,000원
(2)전형료 : 60,000원

■ 전형일정
· 예비소집(특별 일반전형) : 2000. 1. 25. (화) 09:00 ~ 09:40
· 필기(교리)고사 (일반전형) : 2000. 1. 25. (화) 10:00 ~ 11:10
· 면접 및 인성검사 : 2000. 1. 25. 12:30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시험,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편 입 생 모 집 요 강

■ 모집학과 및 인원

계열구분	학 년	전산코드	학 과	모집인원
인문·사회 계열	3학년 (일반편입)	13	불교학과	3명
		23	역경학과	19명
		33	포교사회학과	13명
		43	사회복지학과	1명
	3학년 (학사편입)	14	불교학과	6명
		24	역경학과	
		34	포교사회학과	
		44	사회복지학과	

※2학년 편입을 1999학년도 2학기부터 모집하지 않습니다.

■ 지원자격
◇ 일반편입 : 대한불교 조계종 승납 만2년 이상 승려로서 대학 2년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 :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조계종 승납 만2년 이상인자
※타종단 승려도 위와 동등한 자격 및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입 지원가능
■ 전형방법 및 일정
- 신입학 전형일정과 같으며 편입생은 특별전형이 없슴
■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입시 담당자)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中央僧伽大學校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6
☎ (02)925-5507 (내선 202~5)

▮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실효성 의문

불교재산 법적보호 기대
농지과장 전결로 무너져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가능토록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음에도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를 외면한 농림부 농지과장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있다는 것이 조계종의 시각이다.

13일 농림부를 항의방문한 조계종 재정국장 등에게 박영기 농지과장은 "4개 사찰이 있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참고해 불허했다"고 말했으나, 남원시 충남도 경기도는 실상사 동학사 청계사의 농지취득 인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농지취득 여부는 농지과장 전결 사항이다.

조계종 기획실 박종학계장은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취득 절차와 구비서류를 문의했으나, 이에 대해 '일단 신청하면 검토하겠다'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계종은 96년부터 농지법 개정을 종단의 주요 종책으로 추진했다. 조계종은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의해 강제수용될 경우 수용된 만큼의 다른 토지를 구입하도록 하는 '대토의 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사찰이 아닌 개인 명의로 등기해야 했다.

토지수용법에 의해 매각된 조계종 사찰의 농지는 2백64개 사찰 24만2천평에 이르며,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형편이다. 주지가 바뀌거나 연고자 사망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사찰재산의 망실이 우려되어온 것이 현실이었다. 농림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이 조계종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받아들인 것도 조계종의 사정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농림부 농지과에서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여러 이유로 불허함에 따라 법적인 보호 장치의 효용성을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계종이 곧바로 정부와의 관계 재정립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도 재산 망실의 보호 장치가 농지과장에 의해 쓸모없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에서 연유한 것이다.

특히 조계종 전 총무원장과 당시 농림부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협의사항을 전결사항이라는 이유로 농지과장이 허가하지 않은 상황도 조계종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조계종은 정부에 기만당했다는 불쾌감을 애써 감추고 있지만, 계속 불허할 경우 정부와의 관계 재검토는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정성운 기자

목어 세월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늘의 연속이건만 인간은 세월에 시작과 끝이라는 매듭을 지어가며 삶을 정돈하고 새 날을 설계한다. 이제 곧 2000년 1월 1일, 지구촌은 세번째 천년대와 21세기 맞이로 들떠있다.

현대인들은 기다림을 지루해 한다. 논스톱 사회에서 바삐 살기 때문일까. 매사를 서두르고 재촉한다.

새 천년과 21세기 맞이도 그렇다. 새 천년 시작을 놓고 2000년이냐 2001년이냐 논하더니 결국 1년을 앞당겼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노래를 하루라도 빨리 부르고 싶었나 보다.

우리나라도 세계 여러 나라와 발맞춰 새 천년을 맞는다. 2000년 1월 1일 한민족 해맞이 축전 행사장인 경북 포항시 호미곶 광장에 청동조형물 '상생(相生)의 손(영남대 김승국 교수 作)'을 설치했다. 서울 인구 3분의 1이 동해안 등 바닷가로 해맞이를 떠난다고 한다. 새 천년 새 해를 맞기에 앞서 꼭 챙겼으면 싶은 일이 있다. 20세기와 묵은 천년을 삼키는 1999년의 낙조에 지난 세월을 회광반조(廻光返照)하는 일이다. 그 비춰봄이 없는 해맞이는 자칫 욕망만을 부풀리게 된다.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지난 천년의 서양역사를 '나 밀레니엄(The Me Millennium)'이라고 규정했다. '나 중심의 삶'이란 말이다. '나 중심의 삶'이란 지극히 이기적인 삶이다. 아상(我相)덩어리다.

묵은 삶을 거울삼아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이타적 삶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서로 상생의 손을 잡을 수 있다. 거기서 불국토도 실현된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이타적 삶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보자. 지금 여기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작은 못처럼, 조약돌처럼, 소금처럼. 그러면 〈기신론〉에서 설한 체상용(體相用)의 작용처럼 착한 인(因)을 닦고 착한 과(果)를 얻게 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쓰여지는 사람은 세월이라는 배에 실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손으로 세월이라는 배를 운전할 수 있다. 자기가 탄 세월의 배가 어디쯤 항해하고 있는지 2000년 새 아침이 밝기 전에 점검해 보자.

최정희 (본지 편집고문)

조계종은 올 1월 고산스님 체제를 맞으며 안정기반을 다지고 종교간의 화합에 앞장서는 등 98년 사태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보여줬으나,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분규를 겪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교육원과 포교원은 승려교육 제도 개선, 포교사단 전국위원회 구성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태고종은 〈태고종사〉 발간 작업에 들어가는 등 종단의 정체성 확립의 기반을 다졌다. '선교육 후득도' 제도의 도입도 주목된다. 천태종은 200여개 사찰을 낙성 또는 기공하며 교세를 넓혔으며, 국제교류도 활발했다. 진각종은 성초 통리원장이 교계 원장급으로는 최초로 방북, 남북합동토론회 개최 등을 합의해 남북불교교류를 크게 진전시켰다. 복지사업의 활발한 전개도 눈에 띄었다. 〈편집자주〉

주요종단 99년 결산

조계종 '분규 가슴앓이'…신도 교육·조직화 기틀 마련

조계종 지난 해 분규를 마무리하며 치러진 총무원장선거를 통해 고산스님 체제를 갖추며 안정을 되찾았다. 7월 발표한 종단 중·장기 발전계획과 이에 따른 60개 사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분규의 이미지를 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천주교 서울교구를 방문해 종교간 화합의 기반을 다진 것도 성과로 기록된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재판의 결과로 조계종은 또한번 혼란에 빠졌다. 정화회의가 제기한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소송과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고산스님이 중도하차했으며, 우정극로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로 불자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11월 15일 치러진 30대 총무원장선거에서 정대스님이 당선되면서 사태는 일단 수습됐지만, 사면이라는 관문을 남겨놓고 있다. 사면을 놓고 일부에서 신중론을 제기하고, 사면 대상자 중에서는 사면을 집단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자칫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정화회의에서 또다시 정대스님을 상대로 총무원장자격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중앙종회 5월 '중앙종회 운영편람' 제작, 서면종책질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어느 종회 때보다 효율적인 종회운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종도들의 기대를 모았다. 10월 종단사태 때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 종도들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11월 총무원장선거 이후에는 내년도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심의 등 중대한 안건을 논의해야 함에도 종회를 열지 못해 내년도 신규사업의 집행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종회에서 의사진행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책연구모임이 과행적인 운영을 보임으로써 또 '종회 무용론'이 나왔다. 종책연구모임의 새로운 성격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원 9월 17일 은해사 승가대학원이 10명의 강사를 처음으로 배출한 것은 지난 95년 별원화 이후 승가전문교육의 제도화로 나타난 가장 큰 결실이었다. 해인·송광·영산·금강율원 등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정식인가를 받은 것은 날이 갈수록 해이해지는 계율정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미(니) 의제 시행령을 공포하고도 시행에 실패한 것을 뒤늦게나마 사미(니) 의제 미착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 강력히 시행한 것은 승가 위계 확립과 승풍진작, 면학풍토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통선원에 대한 조계종 차원의 현황 파악과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도 뜻깊은 일이었다.

그러나 교육원은 김포학사의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재원 마련 등 예산상의 난제를 남겨두었다. 지방승가대학의 학인정원 하한선을 30명에서 10명으로 하향조정한 것 역시 교육개혁안의 골격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포교원 올해 동일직종 연합체 조직과 직장직능 대표자협의회 구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직장직능 단체 활성화에 앞장서 직장직능단체가 예년에 비해 3배로 늘어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일구어 냈다. 또 불교여성개발원 설립을 가시화하는 등 여성불자의 조직화를 시도했으며, 불교상담교육협의회와 불교상담교육원 설립의 기초를 다지기도 했다.

특히 9월15일 신도법을 개정해 신도교육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기복불교의 폐단을 방지하고 바른 신행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재적사찰 갖기 신도등록 사업은 등록자가 20만명에도 못 미치는 성과를 나타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월20일 포교사단 전국운영위원(팀장)회의를 개최해 83개의 전문 포교팀을 구성토록 한 것은 '활동하는 포교사'를 양성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처음 시도된 스님 대상의 포교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스님들의 포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성운·김재경 기자 (swjung@buddhapia.com)

태고종 침체 벗고 '태고종사' 발간 정체성 찾기 노력

2월 9일 덕암스님의 제16세 종정 취임을 시작으로 '99년을 연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그동안의 침체를 벗고 전통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한 한 해였다. 종단의 숙원사업인 〈태고종사〉 발간의 첫 삽을 떴고 사이버포교시대에 발맞추어 총무원내 통합정보시스템망을 구축, 종단 스님들과 사찰, 단체들의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눈길을 끈 사업이었다.

각 교구별로 힘을 모아 일년내내 실시한 자비의 쌀모으기 등의 자비행은 실직자와 독거노인 등 IMF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힘이 됐으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대만돕기, 비료보내기 등 북한동포돕기에도 앞장서 대승교화종단으로서의 면목을 보여주었다.

특히 인천종무원(원장 대은)이 주축이 되어 백령도의 불교행사방해사건을 해결한 것은 불교계가 단합해 종교편향을 바로잡은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올해 제23기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한 행자 수는 지난해의 두배가 넘었으며 그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종단의 앞날을 밝게 했다. 제23기 수계자들부터 종단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드시 이수해야만 승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은 승려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선교육 후득도' 제도 확립에 대한 종단의 의지를 엿보게 했다.

그러나 분담금 납부가 저조, 종단의 재정적 어려움은 여전해 분담금에 대한 공정한 책정과 납부에 관한 입법과 이에대한 종도들의 인식전환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태고총림 선암사의 잇따른 불화도난은 비록 성보박물관 건립으로 사후조치는 되었지만 성보도난의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웠다.

천태종 사찰 낙성·불상봉안 잇달아…복지기반 구축

2천3백여평에 달하는 울산 정광사, 통영 서광사 진주 월경사등 경남지역에 대규모 사찰들이 들어서 지자체시대와 맞물리는 지역포교에 기반을 다지고, 김천 금강사, 벌교 흥교사, 논산 삼화사, 예천 법흥사, 울릉도 성인사, 흥천 강룡사 등 전국 각지에 말사들이 속속 완공되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찰 낙성과 불상봉안 법회가 잇따라 열린 한 해였다.

또한 평택 법장사, 도계 영락사, 강동 구강사 등이 기공하거나 상량식을 갖고 부산 삼광사와 서울 관문사는 각각 30주년과 1주년을 맞아 부산과 서울에서의 포교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새삼 다짐하기도 했다.

특히 관문사는 범종단적인 다양한 문화행사와 학술행사를 유치, 불교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0월에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이 정부인가를 받아 복지불사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구축에 나섰으며 향후 2만여명의 후원회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복지타운 건설계획도 밝혀 복지불사에 대한 종단의 원력을 엿보게 했다. 또한 종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종단전산화에도 주력했다.

법화경 사경불사 법화산림대법회가 8월에 열려 2만여명의 신도가 동참해 국가경제회복을 기원했으며 일본과 중국과의 교류를 다각도로 추진함은 물론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 간부들이 12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99 세계종교회의에 참석해 한국 천태종을 세계종교인들에게 알리는 계기도 만들었다.

진각종 남북불교 교류·국제구호·문화사업 등 활발

불교종단 원장급으로는 최초로 성초통리원장이 북한을 방문, 남북불자들의 통일토론회 개최 등을 합의하는 등 남북불교교류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LA에 이어 미국 워싱턴에 심인당을 신설, 해외포교를 본격화하고 네팔과 스링랑카에 복지재단 지부를 설립, 종단 포교와 국제구호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을 천명하는 등 대외적인 사업을 강화했다. 특히 2월의 문화인물 혜초스님을 기리는 창작국악교성곡 '혜초'공연을 적극 지원한 것은 진각종이 향후 범종단적인 문화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문화를 통한 포교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설립 1주년을 맞는 진각복지재단은 사회봉사단을 꾸려 분야별 봉사에 나섰고,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제천청소년수련관,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선재의 집 2호 그룹홈 등을 수탁, 복지불사를 활발히 펼쳤다. 11월에 개최한 밀교교리대법회는 진각종이 그동안 닫힌 종단으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대중과 친숙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지자체와 연계해 계획하고 있는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 작업이 본격화 되었고 통리원과 교육원 각 부서에 근거리통신망을 설치하는 등 종단 전산화와 홈페이지를 완성했다. 특히 최근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종단 이미지 통일화(CIP) 작업은 이러한 열린 종단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종보를 격주간 '밀교신문'으로 제호를 변경 발행해 포교기능을 강화했다.

밀교를 일반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서적발간, 대중에 친숙한 형태의 다양한 법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경숙 기자

새천년의 신비한 향 스님께서 직접 만든 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새천년의 신비한 향 스님께서 직접 만든 향

연말연시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慧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 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레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보윈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맵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신비한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꽂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제조원: 만복당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內 사업부 혜인선원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4-5828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한빛은행 550-046374-02-003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청정국토 지키려면 화장해야"

의령용국사 납골당 기공 학운스님



"청정 국토를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장과 납골 장묘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눈앞에 둔 가운데 법당식 납골당 건립을 발원하고 10일 의령 용국사 경내에 '영혼의 쉼터' 기공식을 가진 학운스님(용국사 주지)은 장묘문화 개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님은 "대지 1만 3천여평에 건평 2백평 규모의 법당 20동을 건립해 4만 2천여구의 유골을 안치, 관리하며 모든 재(齋) 의식을 정성껏 모시게 게 된다"고 법당식 납골당을 설명했다. 내년 3월 준공예정인 납골당은 330좌 노천 관음불, 사천왕, 비룡전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휴식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다.

"법당식 납골당은 전국토를 묘지화하고 있는 현재의 장묘문화를 불교식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학운스님은 "장묘문화 개선을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불교식 장묘문화에 동참해 국토의 훼손을 막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한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장기·시신 아낌없이 주고 가요"

박명종씨 임종직전 생명나눔회에 기증



한 불자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감동을 주고 있다.

13일 오전 세상을 떠난 故 박명종씨(61·사진). 위암으로 투병중이던 지난 4월 생명나눔실천회를 찾아와 사후 시신기증과 사후 각막기증을 서약한 박씨는 임종직전 병실을 방문한 생명나눔실천회 직원에게 "보잘것 없는 육신이지만 이 육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며 "필요한 장기는 모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박씨의 유언에 따라 각막은 앞을 보지 못하는 75세 남자와 34세 여자에게 각각 이식됐고, 시신은 동국대 의과대학에 기증됐다. 특히 박씨는 입원중에도 수행과 불교공부를 쉬지 않았으며, 임종 직전까지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귀감이 되고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교차로

동명불원 금강계단서 수계



고산 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쌍계사 조실)은 29일 오전 10시 부산 동명불원에서 거행되는 제4차 금강계단 수계법회에 전계화상으로 참석해 수계한다. (051)624-7667

동지기도 서원 대법회



원혜 봉은사 주지는 22일 오전 10시부터 봉은사 대웅전 및 법왕루에서 '새천년 맞이 동지기도 및 서원대법회'를 봉행한다. (02)511-6070

구산스님 16주기 추모재



현지 송광사 주지는 20일 송광사 대웅보전에서 '구산대선사 16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새천년 소원성취 연등제



지원 서울 삼보사 주지는 31일 정오 경기도 도리산 육지장사에서 '새천년 소망 성취 연등대축제'를 거행한다. (02)352-6406

미얀마서 진신사리 이운식

화계 경북 영양 무량사 주지는 18일 미얀마 종교성에서 마하보디 사원 스님 300여명과 무량사 신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가모니불 진신사리 3과, 목련존자 사리 30과 및 폐엽경 30질을 기증받는 사리 기증 및 이운식을 봉행했다. 22일 무량사에서 친견법회를 연다. (0574)683-2879

불교TV서 감사패 받아



효강 前 불교TV 사장(총지종 법장원장)은 14일 열린 불교TV 임시주주총회에서 불교기금마련 '도자기 공예와 사찰음식의 만남'이라는 전시회를 열어 불교TV발전기금을 모아 전달한 보광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청산에…' 출판기념회

홍석화 토종연구가는 자신의 네번째 책인 소설 〈청산에 살어리랏다〉의 출판기념회를 17일 출판기념회관 4층 강당에서 가졌다.

9사단 신병 위문법회

이일심명 '보현가족' 회장은 26일 제9보병사단 신병교육대 늘푸른 법당에서 한연수법사의 집전으로 장병 위문법회를 봉행한다. (0344)964-9006

'99년을 빛낸 불자들

봉사…투지…저술…예술혼…
아름다운 사회 가꿨다



지관스님



성운스님



증림스님



용봉스님



현각스님



혜성스님



김회경씨



김부봉씨



이승엽씨



김미현씨

김미현·이승엽 돋보인 활약
김부봉씨 점자불서 법보시
성운·용봉스님 복지 '밑거름'

다사다난했던 한해, 조계종 분규가 또다시 재연되어 불교 이미지에 먹칠을 했지만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과 빛나는 업적, 아름다운 봉사정신으로 사회를 맑게 하고 불교를 선양한 불자들이 적지 않았다. 99년을 빛낸 불자들, 그들은 포교의 첨병이자 불교 사회화의 기수이기도 하다.

99년은 스포츠계의 불자 스타들의 활동이 단연 돋보인 한 해였다. 이들은 바쁜 일정상 불교계 내에서는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염주 등을 착용하고 사찰을 참배하는 모습 등이 매스컴을 타 간접 포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염주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타격 천재 이승엽은 올 시즌 일본 프로야구 왕정치의 아시아 홈런기록(55개)에 1개 못미치는 대기록을 세우며 한국 프로야구의 인기를 상승시킨 빅스타로 성장했다. 미 LPGA투어에서 시즌 2승을 챙기며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한 슈퍼 땅콩 김미현은 어려운 역경을 특유의 하심과 인내로 이겨내며, 이승엽과 함께 소년소녀 가장돕기 자비행을 펼쳐 불자의 귀감이 되었다.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10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친 성운스님(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은 6월 2일 불교계 최초의 노인종합복지관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고 12월 8일 치매노인 전문요양원 호암마을을 개원했다. 기독교 신자인 전정님씨에게 신장을 기증한 용봉스님은 전정님씨의 남편 지주현씨가 자신의 신장을 김덕자씨에게 다시 기증, 종교간의 벽을 넘은 릴레이 신장기증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시각장애인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부봉 혜광맹인불자회장은 89년부터 10년간 〈불교성전〉〈금강경〉 등 20여종의 불교서적 4만5천여권을 점자서적으로 만들어 보급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포장을 받았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국제비정부기구(NGO) 봉사단원인 혜성스님(동국대대학원 불교사학과)은 8월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인 케이프타운에서 2000년 1월까지 방역, 봉사연구조사, 아동·노인 돌보기, 컴퓨터 및 한국어 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열악한 불교 출판계의 현실에서도 〈가산불교대사림〉을 발간한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과 〈만행〉을 출간한 눈푸른 납자 현각스님은 불교 출판의 저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관스님은 1월 기존 불교사전 보다 한국불교 항목을 30% 새롭게 추가한 세계 최대의 불교사전(15만여 표제어, 전 15권)을 처음으로 발간(ㄱ항목 1, 2권)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대표적인 외국인 납자인 현각스님은 수행 역정을 진솔하게 담은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열림원 刊, 전2권)를 출간, 1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전자출판 분야에서는 1월 대만에서 열린 세계전자불전회의(EBTI)에서 새회장에 선출된 종림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장)이 불교경전 및 문헌 정보화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단체로부터 인정받아 2001년 서울에서 열리는 EBTI 회의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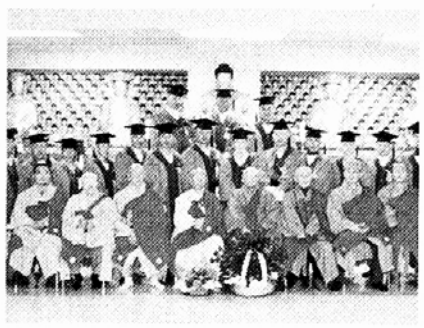
김회경씨(국악 실내악단 오느름 대표)는 2월의 문화인물 혜초스님의 구도역정을 그린 국악교성곡 '혜초'를 작곡해 불음 포교에 앞장선 공로로 제8회 행원문화상 예술상을 수상하는 등 창작활동을 통한 불교음악 발전에 기여했다.

'남산사랑시민모임'(회장 김구석·남산연구소 실장)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향토사학자 등과 함께 경주 남산의 국사골 대골 대마골 등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절터를 추가로 발견하고 5월부터 남산연구소의 홈페이지(www.kjnamsan.com)를 개설, 2000년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남산의 세계 홍보에 큰 기여를 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한국 스포츠 법학회 창립

동국대 법과대학(학장 연기영)은 17일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에서 한국비교법문화연구원 스포츠법연구센터 개원기념으로 '스포츠의 법적 환경과 제문제'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에서는 연기영교수 등 9명의 법대 교수들이 스포츠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한편 학술회의후에는 한국스포츠법학회 창립총회가 열려 고문에 송석구 동국대 총장등 5명, 회장에 연기영 동국대 법대 학장, 명예회장에 이연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선출되었다.



범음대학 4기 21명 졸업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범음대학이 17일 신촌 봉원사에서 제4회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성봉스님등 21명이 졸업증서를, 법안스님등 68명이 각각 상주권공재 각배재 영산재 수료의 수료증을 받았다. 이날 범음대 학장 송암스님은 인사말에서 "소중한 전통불교의식을 이어간다는 사명감으로 졸업과 수료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해 항상 초발심의 마음으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꺼져가는 생명 살려주세요

백승찬군 백혈병 투병

충남 서산초등학교 4년 백승찬군(10)이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은 지난 10월 중순. 서울 원자력병원에 입원, 중환자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오면서 위험한 상태를 가까스로 넘겼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2년 6개월여 이상 치료를 해야 하나 하루 30만원이나 되는 병원비를 마련할 길이 없다는 것. 도움주실 분은 조영훈씨(02-734-8050)에게 문의하면 된다. 은행계좌번호는 한빛은행 801-052800-02-001(예금주 백성현)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0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6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신종사상·불교미술 밀교사상·포교방법론·근본불교 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혜원스님(동국대교수)·최종석(동국대교수)·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종석스님(승가대교수)·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최봉수(동국대교수)·주명철(동국대교수) ·정병조(동국대교수)·오국근(동국대교수)·박 종(불성개발연구원장)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 유식사상·정토사상·반야사상 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암도스님(교육원장)·남수영(동국대교수)·제환스님(동국대교수)·김상현(동국대교수) ·표주스님(동국대교수)·장휘옥(동국대교수)·박 종(동산불교대교수)·김성철(승가대교수) ·권탄준(동국대교수)·보각스님(승가대교수)·권기종(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주간반(5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99년 12월 15일~ 2000년 2월 8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2000년 2월 12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불자가 꼭 읽어야 할 기본 경전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해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경전



어떻게 사는 것이 불자로서의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삶을 지혜롭고 윤택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경전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남성불자가 읽어야 할 기본 경전
여성불자가 읽어야 할 기본 경전

석법성 역주
신국판양장/328쪽/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3층 전화 3672-7181~5

불자회 16곳 창립…직장불심 '기지개'

결산 '99 직장직능 단체 결산

단체간 합동법회 · 성지순례 눈길
병원 · 공무원연합회 결성 해넘겨



◇직장직능불자회는 6월19~20일 열린 직장직능 신행단체 대표자대회에서 만남의 장을 가졌다.

올 한해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의 활동은 국가 경제가 IMF 터널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부분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해였다.

중반기에 들어 직장직능불자회들이 예년 수준을 찾아 활기를 띄면서 전국에 걸쳐 16개 직장 · 직능단체에 새롭게 불자회가 설립됐고, 산발적으로나마 직능 · 지역별로 연합회 결성 움직임을 보여 교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같은 직장직능불자회의 움직임은 불자회가 없었던 직장과 직능 분야 종사자들에게 자극을 줘 한빛은 행불자회 도시철도법우회, 운불련 부산지회, 대전약사불자산악회 등 8개 직장과 8개 직능 분야에 불자회가 탄생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 각 직장직능불자회간 합동 법회 및 성지순례가 두드러지게 많았던 올 해는 지난 6월19~20일 조계종 포교원이 개최한 직장직능 대표자대회를 계기로 산발적으로나마 직능별, 지역별 연합회 결성 움직임을 보여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년에 법회 활동 한번 없이 회장 자리를 놓고 불자의원들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며 말만 많았던 국회 정각회의 사례처럼 이름만 있을 뿐 활동이 없었던 불자회도 있어 '99 직장직능불자회 활동분야 옥의 티가 되고 있다. 또한 정기법회, 상 · 하반기 성지순례 등 매년 똑같은 신행 프로그램과 소극적인 회원들의 자세,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채 불자회 활동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실제로 조계종 포교원이 직장직능 대표자대회를 기해 발표한 직장직능불자회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원의 참여부족(53%)과 재정부족(33%)이 모임 운영과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관심을 모았던 연내(年內) 병원불자연합회 및 전국 공무원불자연합회 결성은 구체적인 성과없이 해를 넘기게 돼 지속적인 종단적 관심이 요구된다. 새 천년이 눈 앞에 다가왔다. 불자회 회원 개개인의 의식전환과 다양한 신행활동 프로그램 및 대사회적 포교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직장직능불자회 활성화를 위한 종단 차원의 포교 대책과 단위사찰 연계 지원책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무선통신 '제3의 포교'

불교 '햄' 3백만 무선사 대상 전법


◇대원불교교양대학 무선국 원혁재 부국장이 '햄'을 시험 운영하고 있다.

대원불교교양대학이 오는 25일 아마추어 단체무선국(HAM) 개국을 앞두고 시험운영에 들어가면서 불자 햄 동호인들간의 교신이 활기를 띄고 있어 무선통신을 통한 대중포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외 3백만 명의 무선사들을 대상으로 한 무선통신 포교가 불교계 최대 포교 매체인 불교방송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각종 포교에 이어 새로운 포교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불교 햄동호회는 대원불교교양대학을 비롯해 '마하네트', 천태종 화성사, 동국대학교, 청담고등학교, 운불련등이 체신청으로부터 단체 무선허가를 받아 활동 중이다.

15명의 대원불교교양대학생으로 구성된 대원불교교양대학 무선국 햄동호회(국장 권순)는 25일 개국 전까지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고 통신을 통해 시의적절한 불교기초교리 및 경전을 강좌 형식으로 진행하고 한글 예불의식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개국기념행사로 26일 오전10시30분 대원회 3층 대법당에서 불우이웃을 위한 바지회 및 일일찻집과 찬불가발표회를 연다.

우리 모임에선

대구 구도회 송년법회

대구구도회(회장 하재웅)는 29일 오후7시30분 구도회 법당에서 김룡사 주지 자광스님을 초청해 송년 법회를 갖는다. 이날 자광스님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불교인의 자세'를 주제로 법문한다. 또 대구구도회는 31일 밤 9시부터 다음날(2000년 1월1일) 새벽4시까지 3천배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한다. 053)256-8589

백련장학회 장병위문

백련장학회(회장 송춘희)는 19일 양평 20사단을 방문해 군장병 위문법회를 연다. 또 25일 10여명의 불자 연예인들과 함께 수원 자제정사 양로원을 방문해 노인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예정이다. 02)322-3526

약사보리회 무료투약

불자약사보리회는 12일 탑골공원에서 서울불교청년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실직자 및 불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투약 및 검진 서비스를 실시했다. 불자약사보리회는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탑골공원을 찾은 5백 여명의 불우이웃 및 노인들에게 무료 검진과 투약은 물론 법률상담 활동을 벌였다.

경찰청 불자회 경전강좌

경찰청불자회는 23일 정오 남관 법당에서 〈묘법연화경〉 경전강좌를 연다. 02)313-0815

탐방 동아대교수 불자회

불교사상과 과학 '접목'


◇동아대교수불자회가 지난해 3월 경주 남산 성지순례 중에 감실 부처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93년 창립…회원 60여명
참선 사찰순례 특강활동

동아대학교 교수불자회(회장 손병규)는 93년 5월 60여명의 불자 고수가 모여 창립됐다. 과학적 연구와 체계적 교육으로 사회의 첨단을 이끌고 있는 전문인들의 모임인 만큼 회원 개인의 마음 정화와 불국토 구현이라는 장대한 뜻을 아우르는 소중한 시작이었다.

창립이후 6년 동안 아는 것을 내려놓고 불성의 큰 흐름에 하나되기 위해 사찰순례, 수련대회, 남산순례, 특강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전국 사찰을 돌며 108배 참회와 참선 등으로 마음을 순화하고 사찰 주지스님의 법문을 통해 알음알이를 뛰어넘는 법의 향내를 맡곤 했다. 지식을 내려놓고 얻게 된 진리의 맛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우주적 안목으로 더 큰 사회적 회향을 불러왔다. 17일 송년 법회를 갖고 한해를 정리한 동아대 교수불자회는 창립부터 모임의 수장을 맡아 온 손병규 회장(정년퇴임)대신 채비를 하고있다. 신임회장을 맞아, 보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새 천년을 맞을 채비를 하고있다.

타종교에 비해 소극적인 불자들의 특성 때문인지 창립 때나 다름없는 회원수로 제자리를 지켜온 동아대 교수불자회는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마음만 불자인 적지 않은 교수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신행 활동의 모델을 제공하고 기초적인 불교 교리 교육으로 참된 불자 교수 양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름과 정서만 불자가 아니라 생활과 학문의 근간으로 불교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아대 교수불자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동아대 교수불자회가 자랑하는 회원인 곽만연, 강동균, 장상목 교수 등의 불교 저술과 실천은 그 길잡이로 교수불자회 신행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5년째 총무직을 맡아 온 김시범 교수는 "불자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대 사회적인 봉사활동과 불교 사상의 과학적 이해를 돕는 연구 등을 선도하는 불자회가 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동국학원 서울지역 합동수계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스님) 서울지역 합동 수계대법회가 15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명성여중 · 고, 동대부중 · 고 등에서 1천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계를 받았다. 전계화상 녹원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거룩한 수계의 인연속에서 모두가 부처 이룰 종자로서, 참된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라"고 법문했다.



'한국불교복지총람' 출판기념회

〈한국불교사회복지총람〉 출판기념회가 종단협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 주최로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됐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인곡(태고종 총무원장) 성초(진각종 통리원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스님과 성낙승(불교방송 사장) 엄용진(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씨등 복지관계자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불기협 10년사' 출판 및 기자상 시상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13일 동국대학교 상록원 3층에서 〈불기협 10년사〉 출판기념회 및 제3회 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 포교국장 법경, 기획국장 혜안, 종단협 사무국장 법현,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을 비롯 공종원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김병규 문화일보 전 편집국장과 불기협 회원 등 1백50여 명이 동참했다.



동대총동창회 '99 동국인의 밤 개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회장 권노갑)는 16일 소피텔 앰베서더 호텔에서 '99 동국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상훈 부산동문회장에게 동국문화대상을, 송석구 총장과 이두철 지역개발대학원 동문회장에게 감사패를,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 17명에게 축하패를, 구영범씨를 비롯 33명의 동문에게 공로패를 각각 수여했다.



■달마심기특별비전도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입상 달마도 작품)

달마심기비전 도법으로 새태양의 氣를 천안통으로 태일법사가 직접모신 달마조사를 모시면 어느곳이든 흉한 터, 묘터, 집터, 사암사찰, 사무실, 공공시설, 인파가 운집하는 사업장, 공부방 등 초상, 상문, 이사, 개축, 개업, 사업, 학업 일체 마장소멸 등 흉가라도 길흉화복으로 모든 재앙을 차단하는 신출괴몰한 후천달마 비전도법은 태양의 氣를 담은 달마도를 소장하시어 건강, 장수, 부귀영화하시고 소원성취하소서.

제 56회 새천년의 새태양 새운기도 법인 무위진인의 새인류 진인도통 출현으로 사명자 주인되소서

선천법도1999년과 후천법도2000년이 교체되는 새하늘의 법도인 15진주 근본인 지계수복자가 도깨비를 깨워 사순과 사역을 통섭구천을 통섭하여 새인류 문화를 이끌어가는 후천미륵달마법도 잣대인 고집진도 15진주 심력通天 천안통 경기를 얻어 유,불, 선을 초월 종교를 통섭하는 권능의 잣대인 사명자 및 무위진인의 대도통, 용맹정진, 법회일이 2000년 1월 2일 밤 10시부터 3일밤 10시까지 양일간 도통군자, 도인지망생 및 사부대중을 모시고 새천년에 떠오르는 새태양과 새하늘의 뜻을 받들어 전인류 세계와 새천년을 이끌어갈 천권의 능력을 받으시고 2000년대의 새운맞이 첫번째 대법회인고로 새운기 비법과 천륜의 근본으로 천문과 천복이 교체되는 子시와 牛에 하늘의 비법인 연성법 도인들의 비전으로 이어오는 대은하계의 해인도법으로 33천의 광도를 넘어 광파천의 천안통, 천리통, 타심통, 신족통, 숙명통, 루진통법은 하늘땅만의 감춰진 비밀장을 찾는 기도가 바로 경신용맹전진 기도에 동참하시어 도통군자 되소서.

이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며 인연이 있다해도 선덕의 인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본인이 직접 창조주와 천당의 성령, 강림과, 정도령출현과 대예언가들의 예언함과 유교의 신선법등은 근본심지로 응답도통하는 날인고로, 도인은 곳되더라도 한가지 소원은 이루는 날인고로 혼미해진 정신과 육신과 심신이 잡신에 끄달리어 모든일이 마장에 잡혀 전신만신에 병명도 없이 온갖 고생으로 헤매는 육신과 귀신도 이기도날은 혼비백산하여 상통천문하달지리의 감추워진 대비밀장의 열쇠를 얻어 전생, 금생, 내생의 윤회전생사, 해탈법으로 새천년을 이끌어갈 비전의 비법을 얻은 자리에 귀하도 만사형통하는 주인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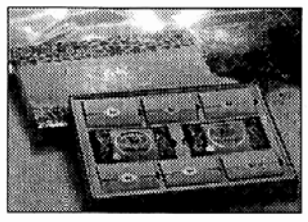
특히 2000년 법회는 氣로서 남을 관리하거나 관리할 분들은 다시 없는 기회임 남을 관리해도 氣가 빠지지 않는 특별법 지도를 지구상에 가장 위대하고 수십억만 불트의 氣법을 얻는 달마 비전도법으로 직강하오니 상담 수명 재산 건강 등 관리하는 법 최득하는 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입 재 : 이천년 1월 2일 亥시부터 3일 亥시까지 양일간
●회 비 : 1박2일, 침식제공, 일금 5만원, 간편한옷차림
●온라인 : 농협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전 화 : 02)821-6622/야 923-3110/ 016)239-3110
(2호선 신림역, 1호선 노량진역 하차 일반버스 25,85,95,25 모자원고개 하차)

太日宮.육경신도통회본원 원장 天龍眞人
대한불교 약사선원 泰日法師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체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갈등과 분규 '멍에'…한글대장경 '성과'

20세기 한국불교 10大 사건

지난 100년 동안 불교는 무엇을 했나. 현대 한국불교사의 큰 흐름을 이룬 사건을 돌아보며 미래를 가늠하는 시점에 서 있다. 지난 일을 현재의 사람들은 역사라는 이름에 가두지만, 역사는 오늘이며 또한 내일이다. 역사는 인과의 법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본지는 영욕의 세월 속에서 20세기 불교사를 장식한 숱한 사건 가운데 오늘의 한국불교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규정한 10장면을 추려냈다. 20세기 전반기는 일제의 한국불교 말살 정책에 대응하는 불교의 모습으로 특징지어진다. 중반기를 넘어서부터는 갈등과 분규, 법난이라는 말이 불교사를 짓눌렀다. 제몸 추스리기에 숨가빴던 세월이었다. 지난 100년을 돌아보며 20세기 불교는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해는 이 물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편집자주〉



◇1954년 12월13일 전국비구승대회를 마친 5백여명의 비구측 스님들은 '전국비구승대회 만세'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조계사에서 중앙청(현 중앙박물관)까지 행진을 벌였다.



◇범승가종단개혁추진위원회는 주지 인사비리, 정치권력과의 결탁 등 부정부패의 상징이었던 서의현총무원장을 몰아내고 1994년 4월13일 개혁회의를 출범시켰다.



◇1990년 불교방송의 개국으로 전파포교시대를 열었다. 80~90년대 교계신문의 잇다른 창간으로 불교언론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사찰령 시행

한국불교는 1911년 6월 3일 일제가 '사찰령'을 반포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식민통치의 예속을 받게 됐다. 사찰령은 전국 1천3백여개 사찰을 31개 권역으로 나눠 본말사 구조를 갖추게 하고 조선총독부가 주지임명권과 사찰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악법. 특히 본사에서 행하는 법식에 일본 경축일과 역대 천황 재일(祭日)을 강제로 규정해 시행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조선불교를 이용해 일본정신을 주입시키고 일본천황을 존경케 하여 조선인을 황민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다.

사찰령은 1920년대 이후 불교계의 혁신운동과 만해스님으로 대표되는 개혁스님들이 주축을 이룬 조선불교 유신회등의 사찰령 폐지운동으로 마침내 해방이후 폐지됐다. 그러나 조계·태고 분쟁을 야기시키고 종교가 국가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는 불행한 선례를 남겼다.

■조선불교 선학원 창설

일제가 사찰령을 반포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말살하자 한국불교의 선을 중흥시키고 민족의 혼을 되살린다는 취지에서 경허·만공·용성스님 등 11명의 선승들이 뜻을 모아 1921년 '조선불교 선학원'을 창설했다.

그러자 이듬해인 1922년 친일승려들로 구성된 31본산 주지들이 서울 각황사에 모여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을 설립해 선학원 견제에 나섰고, 이에 선학원도 계속되는 일제의 탄압속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재단법인 조선불교 선리참구원'이라는 이름으로 1934년에야 겨우 법인인가를 받았다.

선학원은 총독부가 조선불교를 타락시키기 위한 음모 속에서 청정비구 중심의 한국불교 전통을 고수하고 선수행을 굳건히 실천함으로써 민족혼을 지키는 데 구심점 역할을 했다.

■비구-대처 갈등

1954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5월 발표한 "대처승은 사찰에서 물러가라"는 요지의 유시는 그동안 잠재해있던 비구-대처승간의 갈등과 반목이 표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구-대처승 양측은 첫 유시가 발표되자 정화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끝내 대처승들이 소유하고있던 태고사를 비롯, 각 절들을 뺏고 빼앗기는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그후 양측은 법정투쟁을 시작했고 마침내는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에게 '불교재산관리법'을 제정토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비구측이 정부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으면서, 대처측이 70년 '한국불교태고종'이라는 이름으로 창종. 양측은 법적인 싸움을 끝냈지만 아직도 선암사 봉원사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정화유시'를 발표했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불교계는 두고두고 자율정화가 아닌 관권에 의한 정화운동이라는 멍에를 쓰게 됐으며 이때 비구측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자 불량배를 동원 급조된 승려를 양산하는 병폐를 초래, 이후 조계종은 최근까지 이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21년 선학원 창설 선불교 지킴이 역할
75년 부처님 오신날 법정공휴일 제정
90년 불교방송 첫전파…불교언론 발전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1945년 미군정에 의해 크리스마스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불교계는 끊임없이 부처님 오신날을 공휴일로 제정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정부는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제정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다, 마침내 1975년 1월14일 국무회의에서 법정 공휴일 제정이 통과됐다. 부처님 오신날의 공휴일 제정은 불교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일로, 매년 4월 초파일이 전국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날로 자리잡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봉축행사가 개최되는 토대가 됐다.

■10.27 법난 발생

1980년 10월 27일 새벽4시 총검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사회정화와 용공분자 범법행위자 색출을 명분으로 조계종총무원과 전국 주요사찰에 난입. 당시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스님과 재가불자 1백53명을 연행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 30일에도 3천여 사찰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낙산사 주지 원철스님이 사망했다.

불교계는 이후 이 사건을 법난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89년 12월 30일 강영훈 국무총리를 통해 정부의 사과를 받아냈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

1985년 5월 4일 경찰의 저지를 피해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고 초대의장에 여익구씨를 선임하는 한편 창립선언문을 발표했다. 민불련은 창립선언문에서 "관제불교·산속불교·귀족불교를 배격하고 불교의 민중화를 이룩할 것이다. 부처님을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거리로, 낮은 곳으로 모시는 운동이며, 민중의 삶에 동참하는 운동이다"고 천명하고 불국정토 건설, 자주적 평화통일 달성, 민중불교 확립을 강령으로 채택했다.

민불련은 불교계의 민중운동 사회운동을 이끌었으며, 관제불교 산중불교의 탈피 등 불교내부의 개혁에도 기여했다. 서동석 당시 의장 등 집행부의 구속으로 91년 활동을 마감했다.

■불재법 폐지, 전사법 제정

정부는 1987년 10월 23일 불교재산관리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 전통사찰보존법을 제정, 공포했다. 62년 제정된 불교재산관리법은 사찰주지 임명시 문공부 등록, 사찰 재산 처분의 허가 및 신고 등을 의무화해 불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악법이었다. 86년 9월 7일 해인사에서 열린 조계종 전국승려대회에서는 불교재산관리법의 폐지를 결의하기도 했다.

새로 제정된 전사법에도 주지 취임시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토록 한 규정이 있어 불교계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97년 신고조항 등을 삭제했다.

■불교언론 활성화

1990년 5월 1일 불교방송이 첫 전파를 발사한 데 이어 부산 광주 대구 청주에 지방국을 설립하면서 방송포교에 크게 기여했다. 95년 3월 1일에는 케이블TV인 불교텔레비전이 개국, 영상포교시대를 열었다.

이에 앞서 60년 '대한불교'(불교신문 전신), 80년대 '주간불교' '법보신문' '대중불교', 90년대 들어 '대한불교' '현대불교'가 잇따라 창간하면서 불교언론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들 신문과 잡지는 포교매체로서의 기능은 물론 불교의 외호,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고려대장경 번역, 전산화

1964년 7월 동국대학교에 역경원이 설립되면서 고려대장경의 한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전에는 용성 운허 탄허스님 등이 개별적으로 주요 경전을 한글로 옮겨 펴냈다. 역경원은 65년 6월 〈장아함경〉을 처음으로 펴낸 이래 현재까지 2백89권 전권을 출판했다.

이로써 경전의 한국화라는 염원을 30여년만에 이뤄냈다. 그러나 초기 번역은 요즘의 언어에 맞게 다시 번역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역경원은 한글대장경을 CD롬에 담는 작업을,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고려대장경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올렸다.

■조계종 개혁종단 출범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3선 반대와 주지 인사비리 척결, 정치권력과의 결탁 등 해묵은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불교도의 염원이 마침내 승리했다. 범승가종단개혁추진위원회는 서 원장을 몰아내고 1994년 4월 13일 개혁종단을 출범시켰다.

개혁종단은 출범이후 종헌·종법을 개정, 포교원과 교육원을 별원화해 포교와 교육에 박차를 가했다. 불교의 사회화에도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98년 11월 총무원장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폭력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99년 10월 법원이 정화개혁회의의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소송에 손을 들어주면서 또다시 내분을 겪었다.

11월 15일 정대스님을 30대 총무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사태는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



팔공산 거조암 오백나한상 – 오백아라한이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과를 증득한 10대제자, 16성, 오백성의 526분 상수비구를 말합니다.

오백나한 기도도량 – 거조암

새천년 맞이 영산재 및 철야기도 법회

삼보님께 일심 귀의하오며,

오백나한 기도도량 거조암에서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주변 정비공사 회향과 더불어 편안한 삶을 위한 영산재 및 조상천도와 철야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연말과 정초를 맞이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깨끗하게 정돈된 성지 거조암에서 봉행하는 기도 및 천도, 해맞이와 방생법회에 가족 모두 동참하시어 고통과 혼란을 벗어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영산재 및 철야기도 법회일시 : 1999년 12월 31일 21시 ~ 2000년 1월 1일 오전 8시

● 일 정 안 내 :
12월 31일 밤 9시 30분 – 점등식
9시 40분 – 거조암 주변 정비공사 회향 보고
10시 – 영산재
11시 – 영가천도재
1월 1일 0시 – 33 타종 및 만발공양
1시 – 법문 및 발원
2시 30분 – 526배 기도
4시 – 예불 및 정근
6시 – 도량돌기 및 해맞이
8시 – 방생 및 회향

● 장 소 : 거조암 영산전 및 마당
● 주 관 : 영천시 사암연합회
○ 동참금 : 가족당 3만원
○ 온라인번호 : 우체국 702068–0015098 거조암
○ 교통편 안내
서울경기지역 : 진여회 ☎ (02) 821–3242 (011) 216–3241
기 타 지 역 : 거조암 종무소 ☎ (0563) 335–1369

오백성중님 만발공양물은 준비되어 있으며,
526분의 동참가족을 선착순 접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0 교 구 팔공산 거조암 주지 慧海 합장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번지
전화 (0563) 335–1369 팩스 335–2609

"새천년을 불국토로"… '바랑' 속에 담을 숙제

20세기 한국불교 미제(未濟) 20

20세기를 보내면서 지난 100년 동안에 마무리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며, 불교계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돌아 보아야 한다.

서양적 물질문명의 폐해를 극복하고 21세기는 문명의 전환기가 되어야 하며, 문명의 지향은 불교의 중도와 무소유 해탈에 있다는 기대감이 자못 크다. 불교 내부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갈등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불교만큼 수승한 가르침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새로운 삶의 지침으로 삼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불교에 대한 불신감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결국 어떤 모습의 불교냐가 관건이다. 본지는 만 중생에 희망을 주는 불교의 모습으로 가꾸기 위해 짊어지고 가야 할 20가지의 과제를 제시한다. 〈편집자 주〉

■조계종 분규 척결

20세기 조계종 역사를 서술하는 주요 단어는 '분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계종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또 분규를 겪었다. 62년 통합 종단 출범 이후 오늘까지 30대에 이르는 총무원장의 평균 임기는 2년을 넘지 못할 정도였다.

분규 발생의 주요 원인이 50~60년대 불교정화(혹은 비구-대처분규) 당시 체계적으로 승려교육을 받지 못한채 양산된 승려들에 있으며, 또 사찰 재정이 풍부해지면서 이권(利權)을 쥐려고 벌이는 승려들의 다툼이 덧붙여지며 고질화 폭력화됐다는 지적이다. 분규 단절을 위한 대책은 수없이 나왔다. 그러나 분규 당사자들의 출가정신 회복과 화합하려는 의지가 없는 한 어떤 대책도 답이 되지 않는다.

■통일시대 대비

21세기는 통일시대이다. 그럼에도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교계의 활동은 식량 의류 등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북한불교연구, 전통사찰 복원, 통일기금마련, 통일인력 양성등 통일을 대비하는 내적인 기반 구축은 구호에만 그쳤을 뿐 실천은 요원한 상태다. 남북불교교류와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통일과정과 통일 후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계의 노력은 남달라야 한다.

각 종단별 방북 추진과 물량 지원의 경쟁은 오히려 남북불교교류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종단간 협의기구 또는 종단협의회의 조정 역할이 요구된다.

■불교사회복지 체계화

불교사회복지사업은 비공식적으로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창립된 95년 이후 본격화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적자원·제도·연구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제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따라서 21세기 문화복지시대를 대비하고 불교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화·체계화·사회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중앙집중식에서 지역사찰을 중심으로 한 복지활동 시행과 지원체제를 갖춘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인적자원 개발과 연수를 위한 전문교육과 조직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이 사회복지의 출발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

■한글대장경 디지털화

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려대장경 한글화 작업이 30여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분량으로도 3백여권에 가까운 방대한 사업이었다. 이제는 디지털 대장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글 번역이 끝났으니 가능한 일이다.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나 '정보 과벌주의'가 한글대장경의 디지털화를 막고 있다.

정보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계에서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디지털 고려대장경'의 경우 〈한글대장경〉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동국대와의 의견 절충이 어려워 자료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정보'는 '공유(누출)'될수록 커다란 힘을 갖는다. 따라서 교계는 이같은 공감대를 반드시 형성해야 한다.

■불교시민사회운동 활성화

불교시민운동단체의 활성화는 불교의 미래를 가름하는 당면과제이다. 교리에 바탕한 풍부한 이념과 1천만 불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시민단체의 활동은 여전히 미약하다. 불교시민단체의 활동 약화는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불교시민사회운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불교입문 창구로서도 역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불교시민단체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금 마련이 시급하다.

또 종단 및 주요 사찰에서도 불교시민단체의 지부조직을 구성하고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운동을 펼치는 방법도 불교시민운동을 활성화하는 대안이다.

■훼불사건

교계는 일제강점기는 차치하고라도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타종교 세력으로부터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종교편향적 차별과 훼불을 경험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일어났던 사찰방화와 불상파괴 등 훼불만행은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불교방송 및 불교TV 피습사건, 잇따른 사찰 방화 등은 부지기수이고, 제주도 원명선원에서 불상 750좌의 목이 잘린 참혹한 사건은 대표적인 광신도의 훼불행위였다.

또한 국보나 보물등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원인모를 화재로 전소되거나 불상이나 탱화등에 십자가가 그어져도 수사당국에서는 모른체 해온것이 사실이다.

수사당국은 언제나 '정신병자의 소행'이라며 소극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법률 제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도 해킹 등을 통한 훼불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종교간의 대화를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이 훼불사건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국선불교의 세계화

20세기 문명은 물질의 풍요와 속도의 빠름을 추구했다. 사람들은 소유의 욕망과 빠름에 뒤쳐지지 않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 살고 있다. 해탈과 무소유 근원부정의 사상을 담고 있는 선은 분명 21세기의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선은 수행전통이 단절된 중국불교, 건강과 정신집중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되는 일본의 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선불교에는 수행을 통한 직관의 힘과 깨달음을 향한 투철한 기상이 역력히 살아있다.

한국선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선어록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복원하는 일, 생활과 밀접한 선문화의 창조 등의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그러할 때 'ZEN'이 아닌 'SEON'이 세계인의 언어로 등재될 것이며, 한국선불교가 인류에 기여하는 기초를 놓는 일이 될 것이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확대

80년대 이후 일기 시작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도심포교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상당수의 사찰에 어린이법회와 청소년법회가 개설돼 매주 법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포교방법론적 측면에서는 2000년을 앞둔 현재까지도 80년대식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과 통신을 통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상태이다.

그나마 뜻있는 어린이 청소년 지도자들이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대모임을 꾸준히 열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더 이상 푸른빛이 될 수 없다. 개인과 단체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다양한 포교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여성불교운동

불교인구의 70%가 넘는 여성불자를 위한 변변한 전국조직조차 없는게 20세기 여성불교운동의 현주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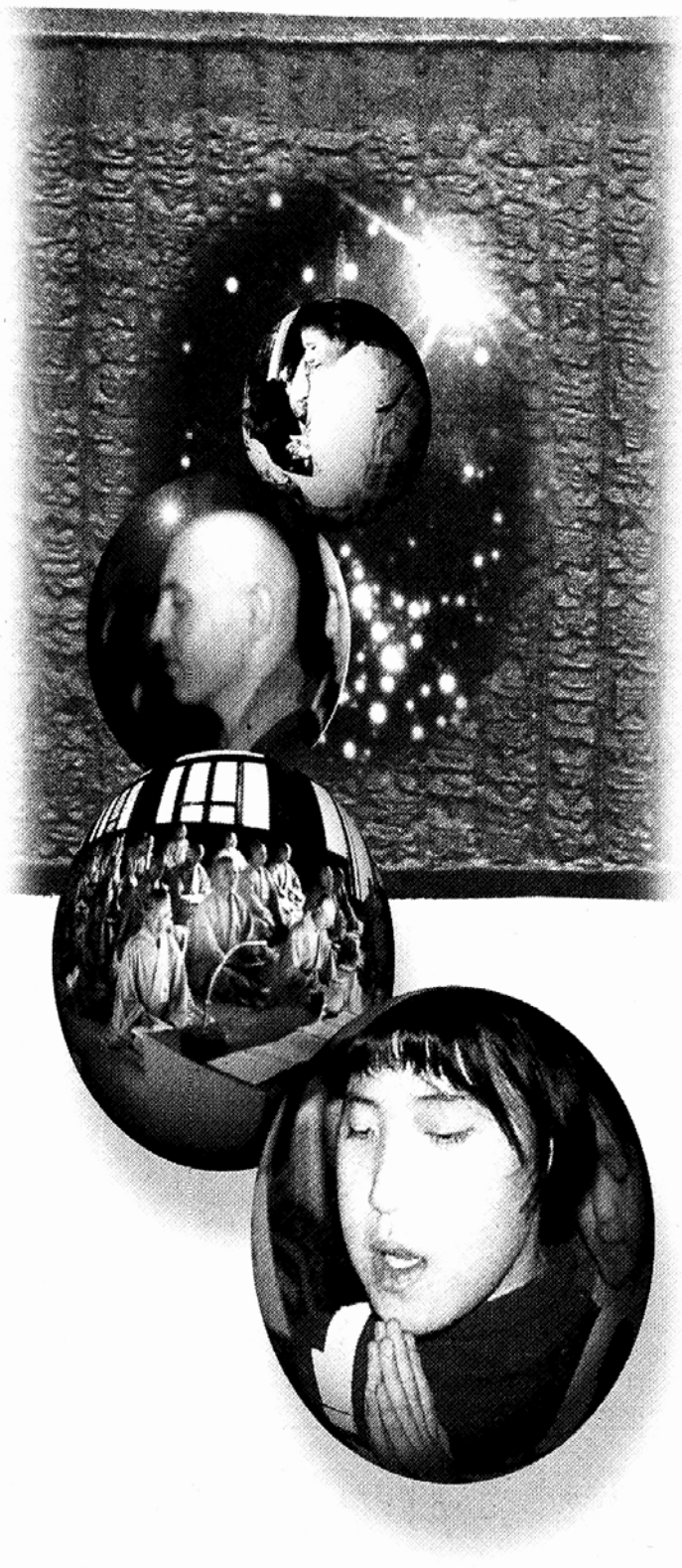
지난 6월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열린 '새 흐름을 모색하는 여성불자 워크숍'을 시작으로, 불교여성개발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그러나 지난 10월의 종단 사태 이후 잠시 주춤거리다 최근에는 불교여성개발원과 포교원과의 갈등으로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설립을 통해 이론개발과 교육, 실천사업을 통해 여성불교운동의 전형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1세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성성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여성상을 원하고 있다.

■사찰 재정의 투명화

12월 9일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에서 조계종단의 발전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건의한 다섯 가지 제안 가운데 첫 번째가 사찰재정의 공개였다. 재정 운영의 문제로 교단의 안정과 청정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간곡한 바람을 전달한 것이다. 올해 본지가 1년 동안 펼친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캠페인에서도 가장 많은 불자들이 한국불교의 개혁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할 중요 사안으로 꼽았다.

사찰재정 공개는 천태종 등의 종단과 조계종의 일부 사찰에서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하고 있다. 불교의 재정관리의 이념은 '공유재산'이다. 투명한 재정관리가 불교개혁의 시금석이다. 스님들이 불전함을 열고 돈을 헤아리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줘서는 안된다.



그래픽=최정근

■조계-태고종 분규해결

1954년 이승만대통령 유시로 비롯된 조계-태고종의 사찰 빼앗기·사수 싸움은 반세기의 세월 동안 계속돼 왔다. 1962년 통합종단을 이뤄냈지만 분규는 계속돼 70년 태고종이 따로 창종되고도 법정다툼은 그치지 않았다. 조계 태고종간의 사찰분규는 불교재산의 망실과 도피현상을 빚어 불교재산관리법 제정의 빌미를 제공했다.

조계-태고 양측은 89년 분규사찰인 선암사를 재단법인으로 하고 7:6으로 이사구성, 봉원사는 5:5로 재산 분할 관리키로 실무대표단에서 합의했으나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다.

고산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99년 4월 양 종단은 분규해결 특별추진위를 꾸렸으나 더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선암사 봉원사 안정사 용궁사 백련사 불국사 성주암 등 7개 분규사찰의 해결은 양 종단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만 해결을 볼 전망이다.

■종단 정체성 확립

1987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통사찰보존법으로 대체 입법된 이후부터 종단들의 분종과 창종이 우후죽순처럼 잇따랐다. 99년 올해만 해도 새로 창종된 종단이 8개이다. 현재 불교종단은 8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단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종단들이 종지, 종풍, 소의경전, 수행체계 등에 큰 차이가 없고 스님들의 파벌이나 이해득실에 따라 분종 창종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총무원의 소재조차 파악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며 간혹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승려들과 연계가 되는 일도 있다. 종단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체계적인 교육이나 수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도 있으며 내분으로 장기간 재판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스님은 수행과 행동이 여법할때 삼보로 존경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종단협 차원의 제재장치나 연수 등을 정례화해 이들 종단들이 내실을 갖추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범종단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승가교육·수행 체계화

조계종의 경우 승가교육이 기초, 기본, 전문교육기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이제 시행된지 채 5년이 못되어 '수행적 측면의 간과'라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지방승가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한 상태이다. 태고·천태·진각·총지종 등을 제외한 군소종단의 승가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원 안거자 이력관리, 강원 졸업고사 및 비구(니) 고시제 등 각급 승가교육기관의 종합적인 학사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선과 교학, 전통과 현대학문이 조화된 교육과정의 개발이 절실하고 신도들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 배양도 필요하다. 올바른 수행승, 교학승, 행정승 등을 치우침 없이 양성하는 것이 승가위상 확립과 불교중흥의 초석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불교TV 경영정상화

199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영상 매체 포교의 새장을 연 케이블 불교TV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다. 개국 초기의 가입자 저조, 전송망 설치 부진, 케이블 컨버터 공급물량 부족 등 전체 케이블TV 업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상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지탱해왔던 불교TV의 경영난은 97년 IMF위기를 맞으면서 급속히 악화됐다. 이에 맞물려 대표이사가 종단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파행운영의 국면에 돌입하더니 99년 한 해에만 대표이사가 4명이나 교체됐다.

첨단 영상매체의 시대인 현대사회에서 텔레비전은 바로 그 상징이랄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불교TV 경영정상화는 시급한 숙제이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급의 기술을 축적해 전문방송으로서의 영역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도 그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은처·축재승 축출

97년 한 해 동안 조계종의 승풍관련 사건은 134건에 이르렀다. 도박·은처·개인재산 축적 등은 인천의 사표로 추앙받아야 할 스님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행위이다. 도박과 은처는 교단의 질서를 문란시킴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조계종의 총무원장 선거가 있거나 분규가 생기면 꼭 괴문서가 나돌고, 괴문서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스님들을 거론하며 도박·은처·축재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 일색이다. 물론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지만, 승풍이 흐트러졌음을 반증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95년 당시 종정 월하스님도 승풍의 진작을 총무원장에게 당부했으며, 이에 따라 호법부에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처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철저한 조사와 종헌·종법에 의거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왜색불교 청산

한국불교는 아직도 일본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 교구본사제도만 해도 조선총독부가 1911년 조선불교를 장악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비구승과 대처승간의 문제도 일제 식민지통치하에서 생긴 '대처승'이라는 산물에서 비롯됐다. 참선수행 풍토가 급격히 약화된 것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부터다.

일본 불교학계의 철지난 연구성과를 그대로 소개만 해도 논문으로 인정되던 것이 불과 얼마전 우리 불교학계의 실정이었다. 상당수의 불교미술 용어가 일본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불상과 향 등 일본의 불교용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고, 우리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월등도 왜색불교의 잔재이다. 전통적인 우리 불교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의지 여하에 따라 새 천년의 한국불교는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될 수도 있다.

■기복신행 혁신

사이버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기복적 신행형태는 여전하다. 기(氣)를 방사해 소원을 이루고 병을 고친다는 달마도의 유행, 점술과 역술, 치병능력 등을 포교방편으로 삼아 신도들을 모으는 스님들의 확산 등 기복 신행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통불교의 장례법인 화장이 확산되지 않는 것도 잘못된 풍수지리학에 의한 발복(發福)신앙을 고수하고 있다는 증거다.

절에 가서 길일 택일이나 부적을 요구하거나 건강과 시험 합격, 경제적인 부 등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신앙의 대상에게 기도하는 신행행태는 불교의 신행관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깨달아 중생을 교화하는 자각각타(自覺覺他)의 길을 걷는 것이 불자의 바른 태도이다. 기도와 발원의 바른 의미 등 불교교리에 대한 철저한 기초교육, 기복신앙에 치우치는 신도의 교화, 지속적인 경전 공부 등이 필요하다.

■신도회 역할 확립

지난 50년대 청정승단을 기원했던 재가불자들의 염원이 모아져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결성되었지만, 기초단위인 사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94년 중앙신도회가 창립되었지만 총무원의 주도하에 만들어져 신도조직운동의 역량부족을 드러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신도회는 종단을 외호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종단 내에서 종단 사업에 대한 신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도대중의 여론을 수렴해 종단정책에 반영시키는 중간자적 소임을 맡아야 한다. 종단의 제반사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포교와 사회참여 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과 종단의 지도와 조화되는 자율성 확보, 민주적 운영의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통한 신도들의 의식과 신행 혁신을 통한 조직 활성화가 시급하다.

■불교종합회관 건립

불교종합회관 건립은 20세기 최고의 대작불사로 여겨져 왔을만큼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새천년을 불과 10여일 앞둔 지금 불교종합회관 건립은 요원한 실정이다. 몇 해 전부터 '대형 사찰 건립 붐이 불면서 각 사찰이 불교회관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2천만 불자들의 구심체 역할을 할 불교종합회관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계종의 경우 96, 99년 2백억원 규모로 불교회관 건립을 계획했으나, 종단 사태 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불교종합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스님과 재가 신도들의 인식 및 의식 전환이 선결과제다. 새 천년에는 종책적으로 매년 불교종합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을 책정하는 것은 물론 1천만 불자 모두가 벽돌 한장 한장을 정성들여 쌓는 마음으로 우리 불교의 백년대계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성보 공개주의

성보문화재 보호를 위해 교계 문화재 전문가들은 '성보 공개주의'에 우선 순위를 매기고 있다. 성보의 특징, 소유주를 분명히 알릴 수 있는 공개만이 도난과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각 성보마다 사진 자료와 학술 자료 그리고 전산화의 단계를 거치면 된다. 조계종총무원이 '성보실태조사'와 '교구 본사 성보 전산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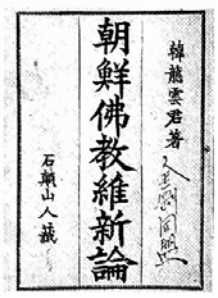
도난 사례가 빈번한 비지정 성보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또 제도적 장치에서 벗어난 성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단 지정문화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송광사 국사전 영정을 비롯한 도난 성보의 회수도 과제로 남아 있다.

책으로 만난 부처님 세상 '환희심 절로'

불서로 돌아본 한국불교 100년

인간의 사상과 정서를 가장 잘 전달하는 매체 중 하나가 책이다. 따라서 책은 한 시대의 사상과 문화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불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 시대의 불교 사상과 문화가 책이라는 형식으로 결집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20세기를 정리하고 새 천년을 준비하는 지금, 지난 100년간 불교 사상과 문화의 뿌리를 이룬 대표적 불교서적 10권을 살펴본다.

조선불교유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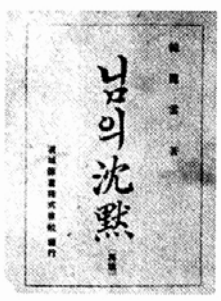


만해스님 지음
회동서관 펴냄
1913년 초판

지난 100여 년 동안 출간된 불교서적 가운데 가장 독창적인 저술은 만해 한용운스님(1879~1944)의 〈조선불교유신론〉이다. 조선불교 전반에 걸친 개혁의지를 담고 있는 이 책은, 한 세기를 마감하는 지금까지도 민중불교의 대표적 저술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만해스님이 제시한 개혁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거시적 통찰력 때문이다. 그 예로 승려의 교육과 단결, 참선 강조, 사원주지 선거, 염불당 폐지 등을 들 수 있는데, 오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것도 있지만 시대를 뛰어넘는 탁견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불교부흥을 위한 만해스님의 유신론이 아직도 힘을 잃지 않은 까닭은, 단순히 승단의 병폐를 지적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만해스님의 개혁론은 아직도 유효하다.

님의 침묵



만해스님 지음
회동서관 펴냄
1926년 초판

만해스님의 〈님의 침묵〉은 신문학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불교문학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성과 중 하나이다. 학술논문을 포함, 300여 편이 넘는 연구자료가 이를 증명한다. 〈님의 침묵〉이 없었다면, 우리는 반쪽의 문학사만을 지니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극찬할 정도로 문학사에 미친 영향력은 지대하다.

〈님의 침묵〉에는 표제작인 '님의 침묵'을 비롯 '알 수 없어요' '나룻배와 행인' 등 88편이 연작시 형태로 실려 있다. 이 시들은 모두 뛰어난 비유와 역설로 독창적인 시형식 개척, 한국 현대시의 한 지평을 연다. 근대 불교사에서 드물게 민족 문제에 민감했던 만해스님은, 암울한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는 방편의 하나로 시작(詩作)에 몰두 했는데, 그 결과로서의 〈님의 침묵〉은 민족의 울분과 광복의 의지가 종교적 신념으로 승화한 절창으로 볼 수 있다.

불교학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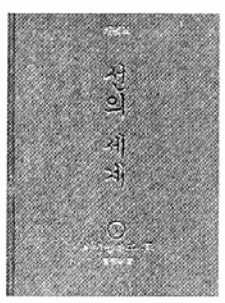


김동화 지음
백영사 펴냄
1954년 초판

뇌허 김동화박사의 〈불교학개론〉은 최초로 불교학의 전반을 다룬 개론서이다. 현대 불교학 연구의 모태인 셈이다. 당시 불교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책을 읽지 않고 불교를 논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불교학 연구에 미친 영향이 크다. 출간 이후 25년 여 동안 불교학계의 유일한 개론서였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불보·법보·승보편으로 나눠 부처님 생애부터 불교의 근본교리, 연기론, 실상론, 신앙론, 열반론, 수행론 등 불교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다. 짜임새 있는 구성, 정연한 논리 전개, 탁월한 해설이 돋보이는 이 책은 각종 불교 개론서 출간의 디딤돌이기도 했다. 한가지 더 강조하자면 뇌허 김동화 박사의 영향력은 이 책만으론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근대적 불교학 연구방법론의 체계를 세운 대표적 학자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되겠다.

선의 세계



고형곤 지음
태학사 펴냄
1971년 초판

고형곤 박사가 펴낸 〈선의 세계〉는 선종의 철학을 서양의 하이데거 철학과 비교하고 회통을 시도한 첫 연구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특히 존재와 사유의 본질을 밝히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등서 철학의 만남을 위한 연구는 지금 우리들이 가장 많은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21세기 인류의 정신적 대안이 선(禪)이란 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돋보인다.

저자는 〈선의 세계〉 출간 이후에도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하여 '추사와 백파' '화엄신론 연구' '신화' 등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것들을 덧붙여 〈서양철학과 선〉, 〈한국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95년 증보판 형식으로 운주사에서 펴냈다.

영혼의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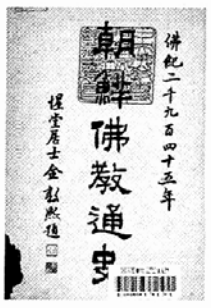


법정스님 지음
샘터 펴냄
1972년 초판

〈영혼의 모음〉은 법정스님의 대표적 수상집으로 간결하고 쉬운 문체에 날카로운 비평적 시각을 결들여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책이다. 10월 유신으로 언론과 집회 결사 등 인간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해야 했던 시절, 대사회적 비판으로 시대에 항거한 수행자의 울곧은 면모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스님은 생명사상을 일반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때문에 수행자의 본분사에 대한 내용보다 대사회적 내용을 다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 책이 스님의 다른 책보다 높이 평가되는 것은 불교의 대중화와 포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이다. 〈영혼의 모음〉뿐 아니라 〈산에는 꽃이 피네〉 〈무소유〉 등을 통해 보여준 스님의 사회적 영향력은 불교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조선불교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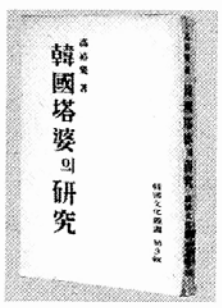


이능화 지음
신문관 펴냄
1918년 초판

일제강점기 조선사편수관으로 일했던 이능화씨(1868~1943)가 내놓은 〈조선불교통사〉는 최초의 한국불교통사이다. 3권 2책, 총 2천3백 여쪽에 이르는 이 방대한 전적은 한국불교 연구자들에게는 사료적 가치를 넘어 '한국불교사전'으로 통할 정도이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은 한반도로 국한되는 게 아니다. 일본의 〈이조불교〉 〈조선선교사〉도 이 책을 저본으로 할 만큼 일본불교에 미친 영향도 크다. 일본학자 나카구스 준지로(高楠順次郎)는 이 책을 보고 "조선에도 이런 박식한 학자가 있느냐"고 극찬했다고 한다.

상편 '불교시처(佛敎時處)'는 우리나라의 시대별 역사를, 중편 '삼보원류(三寶源流)'는 불타입멸 후 결집과 경론의 번역, 인도·중국·한국의 종파 생성과 전승, 고승들의 행장을 서술하고 있다. 하편 '이백품제(二百品題)'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 설화 등을 망라하여 자상한 해설을 붙여 놓았다.

조선탑파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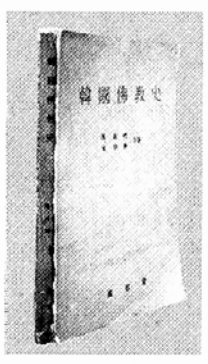


고유섭 지음
을유문화사 펴냄
1948년 초판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학자인 고유섭박사가 쓴 〈조선탑파의 연구〉는 최초의 탑파 연구서이다. 하지만 이 책의 권위는 '최초'라는 말에 기대지 않는다. 탑파의 계통, 양식 등의 연구에 있어 아직까지 관련 학자들이 필독서로 활용할 만큼 불교미술사 연구 성과물 중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삼국말기 탑파부터 통일신라기에 들어서 전국에 보급된 고대 석탑들이다. 그러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백제의 석탑, 한국석탑의 산실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등의 고찰에서 일본학자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석탑을 주제로 삼고 있으나 황룡사 구층탑 같은 목탑, 그리고 소수이지만 경북 안동 등에서 유행한 전탑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1936년 이후부터 죽기 직전까지 전국 현장을 일일이 답사하며 쓴 논문을 그의 제자 황수영 박사가 펴낸 것이다.

한국불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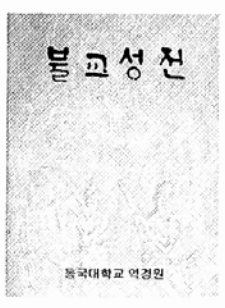


김영태 외 지음
진수당 펴냄
1968년 초판

우리나라 불교사를 정리한 책으로는 권상로박사가 1917년 펴낸 〈조선불교약사〉와 대은스님의 〈조선불교사 개설〉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책들은 개론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순한문이나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져 대중들에게 다가가지는 못했다. 이와 달리 한국불교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국불교사 연구의 새장을 연 첫 개론서는 김영태·우정상교수가 쓴 〈한국불교사〉이다.

한국불교사를 총정리한 이 책은,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독서였다. 불교 제 영역의 발달사와 변천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학문연구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하지만 이책을 제외하고는 내놓을만한 마땅한 저서가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일본학자가 내놓은 〈한국불교사〉가 명저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한국불교사 연구 부재는 20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회
동대 역경원 펴냄
1972년 초판

동국대 역경원에서 펴낸 〈불교성전〉은 성전 대중화의 효시로 꼽힌다. 팔만대장경을 한 권으로 읽기 쉽게 정리한 〈불교성전〉은 지금도 매년 1만부 이상 판매될 정도로 애독자들이 많다. 또 이 책의 가치중 하나는 대중화된 불교성전의 모본(母本)이다는 점이다. 시판되고 있는 20여 종의 성전들이 〈불교성전〉 이후 출간됐으며, 대부분 이 성전을 모본으로 하고 있다. 분류색인도 주목할 만 하다. 생활과 관련된 진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색인을 해 놓았다는 점이다.

〈불교성전〉은 대장경이란 울창한 숲에서 따놓은 몇 개의 잎사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잎사귀는 20여 년동안 불자들의 입문서로서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로서 구실을 하고 있다. 이는 출간에 앞서 교계 각 분야 석학들의 편찬회의를 거쳤을 뿐 아니라 읽히는 문장이 되도록 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만다라



김성동 지음
한국문학사 펴냄
1978년 초판

김성동씨의 소설 〈만다라〉는 현대불교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자칫하면 소재주의라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민감한 소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해 종단의 눈총을 사기도 했으나 불교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도 한 몫을 톡톡히 했다.

〈만다라〉가 70년대 말 인기를 끌었던 요인 중 하나는, '화두'라는 불가의 전통적 수행관문을 문학의 이름으로 돌파했다는 점이다. 화두를 풀기 위한 치열한 주인공의 집념과 속진에 뒤덮힌 현실이 빚어내는 절묘한 결합이 독자들을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이 책의 '열풍'은 연극과 영화로까지 이어졌다. 지금까지 불교소재의 문학작품을 영화화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만다라〉만큼 흥행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듯 〈만다라〉가 한국의 문화 예술계에 끼친 영향력은 전방위적이다.

★ 행사 기간
19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본 행사는 주문 판매에 한합니다)

2000년 맞이 축하 행사

도서출판 황금꽃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E-mail : oshok@chollian.net

1 '티벳 死者의 書(Bardo)' 오디오 북 특별 할인 판매

▶ CD(3장) : 정가 50,000원 → 30,000원
▶ TAPE(1시간 30분 테잎 2개) : 정가 28,000원 → 18,000원



총 3시간

바르도

바르도에 대한 오쇼의 강의 테잎(5,000원, 90분)과 함께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바르도는 죽음에서 탄생까지의 중간 상태를 말하며, '중음기(中陰期)', 혹은 '아스트랄(Astral)계'라고도 한다. 이 바르도 명상은 바르도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현상들을 미리 들려 줌으로써 바르도의 과정에서 깨어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명상법이다.
단순히 듣는 이 명상법은, '티벳 사자(死者)의 서(書)'를 기초로 하여, 오쇼의 명상에 대한 현시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오쇼 삶과 죽음을 위한 학교'의 비트만(Veetman)에 의해 만들어졌다.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다.

배경 음악 : 친마야(Chinmaya) / 번역 : 최항식 / 목소리 : 장두석



2 2,000명에게 〈오쇼 타임즈〉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선착순 2,000명에게 격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오쇼 타임즈 한국어판' 2호에서 7호 중에서 1권을 선택하시면,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 1호 - 제3의 눈(절판) / 2호 - 전생(前生) / 3호 - 최면 / 4호 - 요법과 명상 / 5호 - 관계, 유명한 207가지 요법 / 6호 - 아틀란티스의 비밀, 뉴에이지와 명상 / 7호 - 탄트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삶은 환희이다 유명한 사람들의 별자리



3 2,000원을 돌려 드립니다

2,000년을 맞아, 전화나 팩스, E-mail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2만 원 단위로 2,000원을 돌려 드립니다 (예 : 20,000원 구입시 2,000원, 40,000원 구입시 4,000원...).

▶ 대상 : 도서출판 황금꽃에서 제작된 전 품목(바르도와 다이어리는 할인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상품 목록이 들어 있는 '황금꽃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4 2000년, 인도 〈오쇼 명상 휴양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도서출판 황금꽃에서 판매되는 책이나 테잎들을 전화나 팩스, E-mail로, 1회 주문시 3만 원 이상 구입하는 분들 중 매년 4명을 추첨하여 인도 푸나에 있는 '오쇼 명상 휴양지'로 초대합니다.
추첨은 매년 4회(1월, 4월, 7월, 10월 16일)에 걸쳐 실시됩니다.

▶ 1차 추첨일 : 2000년 1월 17일(월), 오후 1시



5 추억을 위한 축제 밀레니엄 송년 파티

천 년의 마지막 토요일 밤을 함께 보낼 독자분들을 초대합니다.
음악과 노래 그리고 춤이 있습니다.

▶ 날짜 : 1999년 12월 25일(토) / 오후 6시~10시 ▶ 회비 : 2만 원
▶ 미리 예약하십시오.

6 '새로운 2000년'을 예약하십시오

2,000년도 오쇼 다이어리와 캘린더, 아름다운 오쇼의 사진들이 실려 있는 '인도판 오쇼 타임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판매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금 예약하십시오.

▶ 판매가 : 4만 원

황금꽃의 책과 테잎들

책

거위는 밖에 있다	오쇼	12,000
깨달음으로 가는 알곱 단계	〃	12,500
누구도 죽지 않는다	〃	12,000
무심(無心), 그 영원의 꽃들	〃	9,000
오쇼 젠(禪) 타로(Tarot)	〃	37,000
비의(秘儀)의 심리학	〃	8,000
제3의 눈을 찾아서	도엽	12,000

명상 음악(몸/마음을 이완시켜주는 편안한 음악)

CD	사랑하는 이의 정원	13,000
	바쇼의 연못	〃
	만명의 붓다들	〃
	자유를 즐기는 붓다	〃
	장미꽃 향기	〃
	신성무(神性舞)	〃
TAPE	사랑하는 이의 정원	5,000
	바쇼의 연못	〃
	만명의 붓다들	〃
	자유를 즐기는 붓다	〃
	장미꽃 향기	〃
	신성무(神性舞)	〃
	소나무 그림자	〃
	다섯 손가락	〃
	흐르는 강물에게 Yes	〃
	이것! 대나무가 전하는 말	〃
	순간에서 순간	〃
	웃고 있는 북들	〃
	직관(直觀)	〃
	새벽을 날다	〃
	열린 창문	〃
	내면의 붓다	〃
	구름 지켜보기	〃
	피안(彼岸)	〃
	사랑은 초대이다	〃
	빈잔의 차, 십우도 (90분)	6,000
	본래의 얼굴 (90분)	6,000
	침묵의 꽃들 (〃)	〃

명상법(명상을 직접 하는 데 사용되는 배경음악)

CD	다이나믹(力動的) 명상	13,000
	쿤달리니(몸의 떨림) 명상	〃
	나다브라마(허밍) 명상	〃
	나타라지(춤) 명상	〃
	바르도 오디오 북(180분)	50,000
TAPE	다이나믹/쿤달리니 명상	6,000
	구리상카/데바바니/기도 명상	〃
	나타라지/나다브라마 명상	〃
	만달라(중심)/힐링(회전) 명상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차크라 호흡 명상	〃
	알곱 차크라를 위한 소리	〃
	황금꽃의 비밀	〃
	미스틱 로즈(웃음) 명상	〃
	무심(無心) 명상	〃
	저녁 사트상(Satsang) 1~7번	각 6,000
	바르도 오디오 북(180분)	28,000
	바르도에 대한 오쇼의 강의	5,000
	비파씨나 명상법(강의)	6,000

특집 비디오 시리즈

1	인도 오쇼 코뮨 인터내셔널	20,000
2	다이나믹 명상	14,000
3	띠오르는 달	17,000
4	신성무(神性舞) 공연 실황	20,000
5	신인류에 대한 선언	20,000
6	내 꿈을 그대에게 맡기노라	16,000
7	아침 저녁 명상	20,000

강의 비디오 시리즈

오쇼의 선별된 강의 시리즈 1~16번(각 1시간 20분)	각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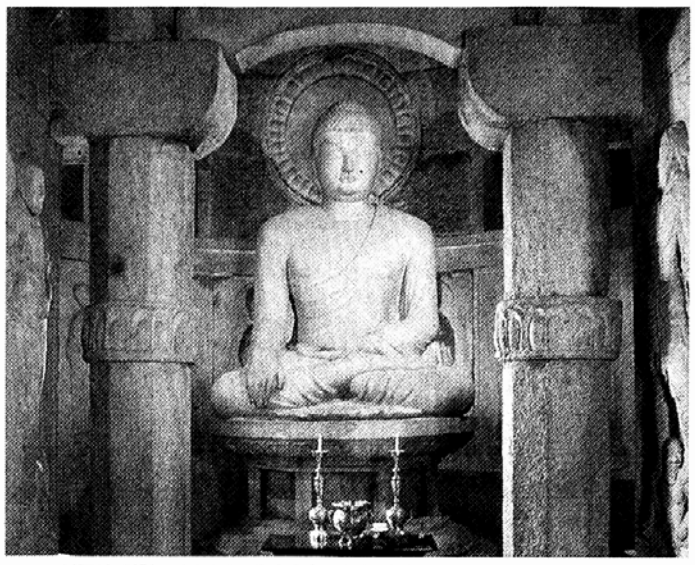
오쇼 타임즈 1년 구독료 10,000

"정답 못찾고 새천년 화두로"

20세기 불교학술 논쟁 10

논쟁은 언쟁과 다르다.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논쟁 당사자 또는 그러한 논쟁을 낳은 사회의 지적 수준을 끌어 올리는 작업이다. 대부분 건설적인 논쟁들은 논쟁 주체들의 논지를 더욱 정교하게 할 뿐 아니라 제3의 논리를 낳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 학문의 내공을 높이는 작업인 것이다.

새 천년이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00년 동안 논란이 되었거나 새 세기에도 화두로 남아 불교계의 사상적 깊이를 더해 줄 불교관련 학술논쟁들을 되짚어 본다.



◇석굴암 원형 보존인가, 개악인가? 일제 강점기때 훼손된 석굴암의 복원을 둘러싸고 석굴암 원형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조계종 종조 태고說-보조說 '팽팽'

석굴암 복원 과연 원형훼손인가

한-중 최고 목판인쇄물 원조주장

일승법계도 저자 의상스님 맞나

돈오돈수 & 돈오점수

1981년 당시 조계종 종정이던 성철스님이 〈선문정로(禪門正路)〉를 세상에 냄으로써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논쟁은 사실상 시작됐다. 성철스님은 보조의 돈오점수가 선문에서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기능을 했다고 지적했다.

성철 스님의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 보조 국사의 돈오점수는 한국 불교의 정맥으로 수용되고 있었고, 성철스님의 돈오돈수는 조계종의 종조 문제등과 맞물려 쉽게 고개를 들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래서인지 〈선문정로〉가 나온지 10년이 되는 1990년에 가서야 비로소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문제가 학술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이 주제에 대해 불교계 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어졌다. 논쟁은 대개 세 갈래로 나눠지고 있다. 첫째 성철스님의 돈오점수에 대한 비판을 재비판하면서 돈오점수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보조사상연구원측의 입장을 들 수 있다. 두번째는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해인총림측 스님들의 입장이다. 세번째로는 돈오점수와 돈오돈수 각각의 입장이 가진 근본 취지를 최대한 받아들여, 당면한 한국불교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로 삼고자 하는 박성배 교수의 '돈오돈수적 점수'설의 입장이 있다.

조계종 종조

조계종 종조논쟁은 이미 30, 4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로 불거졌지만 1954년 이승만대통령의 '불교정화(태고종에서는 법난으로 부른다)' 유시 이후 본격화됐다 30, 40년대의 종조논쟁이 도의 또는 범일 종조설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정화 이후에는 태고 또는 보조 종조설이 중심이 됐다. 비구 대처 분규이전 조계종의 종조는 태고 보우스님이었으나 양측이 대립되면서 조계종은 보조 지눌스님을, 태고종은 태고 보우스님을 새로 종조로 인정했다. 이후 종조논쟁은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팽팽한 긴장속에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다.

종조논쟁의 쟁점은 한국불교 법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청허 휴정 스님의 법맥 해석문제. 휴정 스님의 법맥은 벽계정심(碧溪淨心)→벽송 지엄(碧松智嚴)→부용 영관(芙蓉靈觀)을 이어받는다.

쿤제는 정심 스님의 법맥이 어디에서 이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정심 스님은 입적에 앞서 "내 법사가 환속했으므로 멀리 구곡 각운(龜谷覺雲)스님에게 법을 이으라"고 했다고 전한다.

학계에서는 크게 각운 스님의 법맥이 보우→환암 혼수→각운→정심스님에게 이어졌다는 설과 각진 북구(송광사 13대국사)→졸암 연온→각운 →정심스님으로 이어졌다는 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김영수 선생이나 성철스님 등이 태고종조설의 입장에 섰던데 반해 보조 종조설은 이능화 이재열 이종익 선생이 옹호했다.

석굴암 원형 논쟁

1994년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 지정돼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석굴암. 일제 강점기 때 잘못 복원된 원죄 탓에 원형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석굴암에 대한 논쟁은 지난 1969년 5월 물리학을 전공한 공학박사인 남천우 교수가 〈신동아〉에 '석굴암 원형 보존의 위기'를 기고하면서 시작됐다. 남 교수는 기고문에서 1967년 황수영 박사의 주도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된 석굴암에 대해 '광창설' 등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며 '당시 석굴암 보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신영훈씨가 '석굴암은 결코 개악이 아니다'라는 반박문을 발표하고 뒤이어 문명대 교수가 가세하면서 석굴암 원형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그러나 당시 남천우 교수가 비전공자라는 불리점을 극복하지 못해 논쟁은 잠시 수그러드는듯 했다.

그후 30년이 지난 1994년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저자 유홍준 교수가 남천우 교수의 주장을 다시 거론하면서 석굴암 복원은 문제가 있으며 지금의 석굴암은 '황굴암'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해 다시 석굴암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소설가 성낙주씨가 1998년 〈인물과 사상〉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실으면서 석굴암 원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떠 올랐다.

대왕암의 실체

경북 경주군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에 떠 있는 대왕암은 문무왕의 수중릉인가, 아니면 문무왕의 뼛가루를 뿌린 산골처인가?

대왕암 논란이 불거진 것은 1967년 신라 유적조사를 벌인 신라오악조사단이 '대왕암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중릉'이라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조사단은 대왕암 가운데 십자형으로 물길이 나 있고 물길에 인공의 흔적이 뚜렷하며, 십자의 중앙부분 물밑에 길이 3.7m, 폭 2.6m, 폭 1.45m의 개석이 놓여 있어 이 개석 밑에 납골장치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때부터 황수영 박사는 옛기록에 장골과 산골을 구별하고 있는 점을 봐서 산골처가 아니라 능을 만들어 묻은 것으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발표 당시부터 반론이 적지 않았다. 이 논란이 다시 일반에 알려진 것은 94년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물길이 인공의 흔적이 있는지 여부는 1천3백년이 지난 뒤여서 확인하기 힘들며, 개석을 들어 내보지도 않고 수중릉이라고 주장한 것은 추측과 가설로 새로운 발견인양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당시 동국대박물관 학예연구관 이기선씨가 다시 반론을 제기하면서 논쟁이 불붙는 듯 했으나 유홍준씨의 대응이 이어지지 않아 잠복 상태다.

세계 最古 무구정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을 가진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다라니경〉이 706년 신라에서 간행됐다는 우리 나라측의 주장과 중국에서 인쇄된 뒤 한국으로 건너왔다는 중국측 주장이 맞서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한국이 〈무구정광다라니경〉을 발견함에 따라 중국은 자국의 4대 발명품 중 하나인 인쇄술에 대한 종주국 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 인쇄물이 중국 낙양에서 인쇄된 두 한국에 전래된 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 왔다. 그 근거로 중국은 96년 12월 측천무후가 새로 만든 한자가 〈무구정광다라니경〉에 나타난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 학자들은 지난 10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이 한·중·일 학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세계 인쇄문화의 기원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논쟁이 가시화됐다. 우리나라 측의 박지선 교수는 〈무구정광다라니경〉의 종이가 신라 닥종이라는 점을, 김수천 교수(원광대)는 〈무구정광다라니〉의 서체가 한국 전통서체임을 증거로 들었다.

또 김성수 교수(청주대)는 경주 구황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외함(舍利外函)에 '무구정경을 함께 안치했다'고 새겨진 글씨와 석가탑 〈무구정경〉 권미제(책의 마지막 부분에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적은 글)의 글씨를 필적 감정의뢰한 결과 같은 사람이 쓴 것으로 밝혀졌다는 주장을 폈다.

'여래장은 불교인가'

비판불교가 학계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86년 6월1일. 일본에서 열린 인도학불교학회 학술대회에서다. 고마자와 대학의 마츠모토 교수가 '여래장은 불교가 아니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학계의 비상을 관심을 모은 것이다.

비판불교의 공통된 주장은 여래장·본각사상이 비불교적인 교설이고, 부처님이 비판했던 불교 이전의 자아설 즉 '일원론적 본질주의'에 가깝다는 것.

1994년 동국대 혜원스님이 마츠모토 교수의 〈연기와 공-여래장사상 비판〉을 번역한 〈연기와 공〉을 펴내면서 우리 나라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됐다. 국내에 소개된 초기부터 논란을 일으킨 비판불교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는 지극히 상반된다. 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 교수는 "비판불교는 '불교의 근본정신이 무엇인지'를 비판적 시각으로 천착한다"며 "이러한 시각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것을 우리 불교학계도 배울 필요가 있고, 학계에 반성의 계기도 제공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김성철(중앙승가대 강사)씨는 "비판불교는 학문적 사기"라며 "마츠모토는 자신이 만들어낸 dhtu-vda라는 환영과 싸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일승법계도 저자시비

'일승법계도'의 저자는 누구인가. '일승법계도'의 저자는 의상이라고 확신한 고려시대 균여의 주장을 뒤집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면서 새 천년 학계의 화두로 부각될 전망이다.

1996년 중국학자 조장수가 중국 〈방산석경〉에 각인된 '일승법계도합시일인(一乘法界圖合詩一印)'의 발견자료를 근거로 '법성게'를 포함한 '일승법계도합시일인', '서문' 모두 지엄이 지은 것이라고 주장해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1997년에 오스트리아의 존 조르겐센(John Jorgensen)도 '반시(槃詩)'와 '서문'이 의상작인지 아니면 지엄작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주스님(동국대)은 한국 화엄사상의 뿌리를 뒤흔드는 주장이라며 98년 로잔과 일본 학회에서 조장수의 주장에 대해 9개 항으로 나눠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해주스님은 '일승법계'에 담긴 사상이 중국 지엄이나 법장의 사상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상세히 밝히고, 그 사상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엄이 저자라는 주장을 일소할 계획이어서 그 연구 성과물이 주목된다.

무아설 & 비아설

원시불교에서 무아(無我)와 비아(非我)가 달리 서술되면서 무아설과 비아설을 각각 구분해 보는 학자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최근들어 불교의 '무아(無我)관'을 무아사상 혹은 비아(非我)사상, 혹은 인도의 자아(自我)사상의 일종으로 보려고 하는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원시불교에서의 아(我)와 무아(無我)에 대한 일견 모순되는 듯한 기술에 대해 일반적으로 '무아'라고 한역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대표적 비아론자는 영국의 리스 데이비스(Rhys Davids)여사와 일본의 나까무라 하지메 박사 등. 반면 '원시불교에서 비아와 무아의 문제'를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비아설을 무아설의 일환으로 본 정승석 교수는 "실천 수행 또는 교훈적 측면에서는 비아(非我)이고 철학적 측면에서는 무아(無我)라는 식의 차별은 반드시 타당하지 않다"며 "서술상 다르게 표현될지라도 그것이 지향하는 의미는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의천스님의 천태종 개창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천태종 개창에 대한 의문은 1986년 허흥식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면서 10여 년 논쟁을 거듭해 왔다.

"의천은 직접 천태종 개창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의천 입적 후에 그를 추종하던 일부 승려들에 의해서 개창주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게 허 교수의 입장. 여기에 1997년 장휘옥 선생이 의천은 천태종을 개창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의천은 어디까지나 천태교학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전하겠다는 서원을 한 것이지, 천태종을 개창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펴며 가세했다. 그후 의천의 천태종 개창 의지와 그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전개됐다.

화엄종과 전제왕권

신라 중대(中代)의 정치, 사회, 문화, 사상 등 여러 방면에 끼친 화엄사상의 영향은 적지 않다. 그런만큼 당시 화엄사상에 대한 학자들의 이견 또한 분분하다.

1991년 김상현 선생에 의해 '화엄종과 전제왕권과의 관련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제기되면서 화엄사상이 전제왕권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한 것이었는지, 의상을 비롯한 화엄종 스님들이 국가 권력과 결탁하고 있었는지 하는 등의 문제가 논쟁의 주요 쟁점이 됐다.

'통일신라시대의 화엄사상은 지배층인 귀족사회에서 환영받았다' '의상의 화엄사상은 신라 중대 전제 왕권을 옹호했다'는 김두진(1981), 이기백(1982) 선생의 주장에 대해 김상현 선생은 〈신라화엄사상사연구〉(1991)를 통해 "의상은 평등사상을 내세워 왕이 주는 전장과 노비를 거절했다. 법계(法界)로 집을 삼고 바릿대로 농사짓는 그의 수행생활은 곧 법신의 혜명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자부했다"며 "의상의 행적이나 사상에서 특수 신분층을 옹호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견을 제기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선(禪) 302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어떻게' 도업(道業)을 이룰 것인가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종일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허운 스님의
방편개시
方便開示

도업은 이루기 어려운데,
처음 출가했을 때는 도심(道心)이 좋았으나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출가 1년에는 부처님이 눈앞에 있고,
출가 2년에는 부처님이 서천(西天)에 있으며,
출가 3년에는 부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도심이 오래가지 않으면 도업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슬 같은 도심으로 어떻게 생사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 본문 중에서

허운 스님은 누구인가?

허운(虛雲)스님은 1840년에 중국의 복건(福建) 천주(泉州)에서 태어나
1959년 세수 120세 승랍 101세로 운거산에서 입적하였다.
청말(淸末) 이후 쇠미해진 중국 불교를 다시 일으킨 고승으로 추앙받는 허운 스님은,
19세에 출가하여 30대부터 여러 곳을 두루 돌며 참학하다가



43세 때 3보 1배(三步一拜)로 오대산을 참배한 뒤,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의 불교 성지를
순력하였고, 56세 때 찻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에
문득 깨쳤다 한다.
특히 스님은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의 억압하에서도
불법을 수호하고 사찰의 파괴를 막았으며,
수십 개의 가람을 복원하였다.

허운 스님 지음 / 대성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 값 6,000원



◇3~4세기 제작된 부처의 형상을 묘사한 벽화조각.

중앙박물관 수장고 실크로드 불교유물 1800여점 종합조사

국내에는 '실크로드 불교예술품'이 몇 점이나 있을까? 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 실크로드 유물에 대한 종합조사를 시작해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는다.

기원전 2~10세기 동서 교역로였던 실크로드는 동서문화의 퓨전을 통해 독특한 미술양식을 낳았다. 세계 고고미술학계는 이 유물을 '오타니 콜렉션'으로 분류, 주요 연구 주제로 삼아왔다.

현재 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오타니 콜렉션'은 1천8백여 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 신장성과 간쑤성 등 석굴 사원에서 출토된 불교관련 유물들과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유물들이다.

이중 부처의 형상을 묘사한 3~4세기께 벽화조각은 중앙아시아에 끼친 헬레니즘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초기 벽화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는 세계적 명품이다. 또 베체클릭 출토 벽화 조각인 '슬퍼하는 승려상'은 뉴델리국립박물관, 중국 여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벽화조각으로, 보존상태가 가장 좋다.



◇중국 간쑤성 석굴사원에서 발견된 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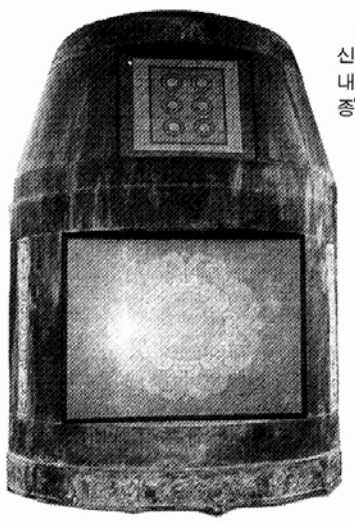
그러나 박물관은 지금까지 유물의 출토지와 미술사적 가치 판단을 유보한 채 목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종합조사는 그동안 베일에 쌓인채 국내에서 소장되 오던 중앙아시아 불교유물의 가치를 확인하고, 또 세계적 수준의 유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종합예술학교 권영필 교수는 "오타니 콜렉션의 미술사적 가치를 평가할 만한 전문가가 없어 방치하고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뒤늦게라도 박물관이 중앙아시아 유물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장 오타니 콜렉션은 일제 패망 때까지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소장된 것들이다. '오타니'는 일본인 오타니 고즈이(1876~1948)에서 따온 말. 그는 1902년부터 1914년까지 탐험대를 이끌고 3번에 걸쳐 중앙아시아·몽고·티베트 등을 누비며, 각지의 석굴사원과 무덤에서 벽화·조각 등 수많은 유물을 수집했던 인물이다. 국내 소장 중앙아시아 유물은 1916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기증됐던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종합조사가 끝나면 2003년 개관하는 용산 새 박물관에 2,000여평 규모의 중앙아시아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내는 '전자대종'

전자음으로 듣는 에밀레 종소리

배명진 교수 전자대종 개발…새해 타종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의 맑고 그윽한 소리를 빼닮은 전자대종이 개발됐다.

숭실대 배명진(정보통신) 교수는 에밀레종 소리와 아홉 가지 한국의 전통적인 종소리를 내는 전자대종을 개발해 15일 공개했다. 이 종은 경북 구미시의 의뢰를 받아 배교수가 7개월간의 작업 끝에 완성한 것.

배교수와 구미시는 이달말 시의 낙동강변 동락공원에 이 종을 설치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타종할 계획이다.

높이 3.75m의 전자대종은 전자장치를 통해 종소리를 내도록 만들어졌다. 작은 모형종을 때리면 레이저 빔이 나와 전자대종의 몸체에 발사된다. 그 순간 전자대종 내부에 있는 스피커에서는 장중한 소리가 울리는데 1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다.

전시·공연 '풍성'…영화·평론 '빈곤'

결산 '99 불교문화

올 한 해는 여느 해보다 불교계 문화활동이 활발했다. 불교의 세계관을 다양한 형태로 펼쳐보인 전시회가 100회 가까이 열렸는데, 이중 불교적 사유를 담아낸 일반 작자의 전시회도 다수 들어있다. 또 처음으로 불교 오페레타 '아미타불'이 공연되었고, 발레·댄스·패션 등의 무대에서도 불교의 예술적 에너지가 활력을 불어넣었다.

화단에서는 불화의 큰 산맥인 만봉석청스님과 불모 우일스님의 불화전시, 성파스님 염색전, 관조스님 사진전 등을 비롯해 범주 성륜 화엄 무관 통칙스님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또 이요환씨의 사경전, 중앙박물관의 '아름다운 금강산', 박정자씨 화집발간, 이왈종 박찬갑 정비파씨 등의 전시가 이어졌다.

무대에서는 교계 최초 오페레타 '아미타불'이 3천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의 마음에 연꽃을 심었고, 극단 현대의 뮤지컬 '팔만대장경', 극단 우림의 '천년보다 깊은', 극단 유시어터의 '철안붓다' 서울예술단의 가무극 '향가-그 사랑의 노래' 등이 공연했다. 또 전주 송광사에서는 일본 후지에다 무시마루의 구도의 과정을 그린 행위 예술 무대가 마련됐었고, 동국대 불교무용단은 스페인 국제 민속축제에서 나비무, 바라무, 승무 등을 선보여 세계인의 갈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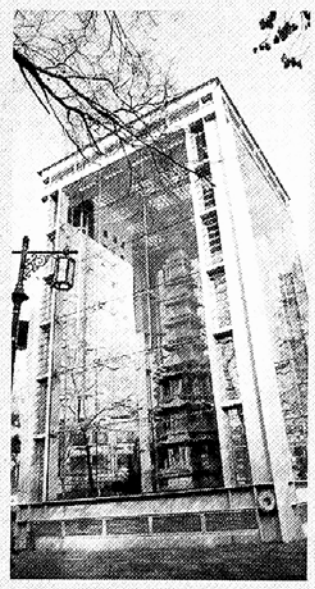
그 밖에도 불교문화는 록, 발레, 가요, 패션 등 동떨어진 듯한 장르와도 적극 손을 잡았다. 그 중 드드러진 활동은 보인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5월 올림픽공원내 펜싱경기장에서 창단 공연을 가진 불교 록그룹 '카르마', 현대무용가 한칠씨와 동국대 체육학과 교수인 손재현 무용단,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서 결성한 '부루나', 한성대 의상생활부 이기향 교수의 '영취산의 환희' 등. 이중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막을 올린 '아미타불'에는 전국 주요 사찰에서 결성된 1천여 명의 합창단이 찬불가 80년사를 정리했던 뜻깊은 무대였다.

그러나 전시와 공연 부문은 풍성한 열매를 맺은 반면 사진·평론·영화 부문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변화하는 문화흐름을 올바로 읽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평론의 부재는 조속히 선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또 기획중이거나 촬영중인 영화 '성철'이나 '동승'도 불교계의 정서와 제작사의 재정난으로 촬영이 지지부진하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오종욱 기자



◇지난 10월 19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한 불교계 최초 오페레타 '아미타불' 공연 장면. 이날 3천 5백여 명의 사부대중 동참해, 뜨거운 갈채를 보냈다.



◇ 서 울 종로구 탑골공원내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 제2호)의 유리 보호각 설치 공사가 한창이다. 12월 말경 준공된다.

원각사지탑 유리각에

조선시대 석탑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 탑골공원내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 제2호)이 유리 보호각을 두른다. 서울시는 10일 산성비와 비둘기 배설물 등으로 훼손이 가중돼 온 석탑의 보호각을 이달중 준공한다.

이 보호각은 가로 8.4m, 세로 8.4m, 높이 15.4m 규모로 네 모서리에 세워진 철골조에 두께 21.5㎜의 고강도 유리를 끼운 형태로 작년 11월부터 공사가 진행돼 왔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1467년 현 탑골공원 자리에 있던 원각사에 세워진 높이 12m의 탑이다.

이 석탑은 일반적인 석탑의 재질인 화강석이 아니라 마모되기 쉬운 성질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현재 훼손이 심한 상태다.

문화재로 보는 백제불교

부여박물관, 26일까지 7백점 전시

백제불교문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부여박물관 개관 70주년 특별전으로 백제를 대표하는 유물 7백여점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 등 13점의 국보급문화재와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입상등 4점의 보물이다. 전시작들은 부여박물관 공주박물관 등 7개 국립박물관과 15개 대학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백제시대 유물 가운데 대표작을 엄선한 것.

동국대박물관 새단장 재개관

동국대학교 박물관(관장 장충식)이 새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다. 새로 개관한 박물관 전시실에는 그동안 전시 공간이 부족해 수장고에 보관돼 있었던 국보 제176호 '청화백자송죽문호'를 비롯 '감지은니묘법연화경' 등이 새롭게 전시됐다. 또한 전시실 정면에 전시돼 있던 법주사 수정암 석불(통일신라시대)도 전면 보수됐다. 이밖에도 전시실은 기존의 목제 진열장을 철제로 교체해 유물의 안전과 전시효과를 높였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세사미놀」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역사 수수께끼 푸는 문화열쇠

20세기 발굴 성보문화재 10선

역사는 문헌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문화 유산 속에 깃든 지난 날의 궤적이야 말로 역사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일 수 있다. 문화 유산은 앞선 시대를 살다간 사람들의 삶을 읽을 수 있게 하는 '타임머신'이기 때문이다.

국가지정 국보·보물·사지 대부분은 1900년부터 지금까지의 발굴 성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우리 손으로 이룬 성보문화재 관련 발굴은 1959년 감은사지부터 1999년 실상사 목탑지까지 반세기를 넘지 못한다. 이 기간동안 발굴·발견·재조명된 성보문화재 가운데 10가지를 추렸다.

도움을 주신분들:이동헌(연세대 건축학과 객원교수), 정재훈(문화재보호재단 박물관장) 황수영(동국대 명예교수) 문명대(동국대 불교미술학과 교수) 씨 등(무순)



◇삼국시대 '금동미륵반가사유상'(국보 83호·국립부여박물관 소장).



◇1966년 불국사 석가탑 속에서 발견된 세계 최고 목각인쇄물인 '무구정광다라니경'(국보 126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구려시대 '연가7년명금동여래입상'(국보 119호 국립박물관 소장)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신라시대 '황룡사지'(사지 6호) 전경.



◇백제시대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84호·충남 서산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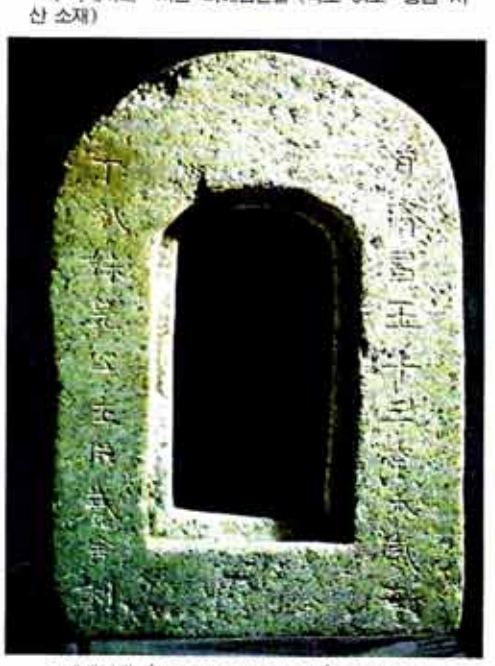
◇고려시대 '경천사지 10층 석탑'(국보 86호·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수중).



◇통일신라시대 감은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보물 366호).



◇◇북한의 평양시 외곽에 있는 고구려시대 '정릉사지' 전경.



◇백제시대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국보 288호·국립부여박물관 소장)



◇전북 익산에 있는 백제시대 '미륵사지 석탑'(국보 111호).

해방후 처음 발굴된 절터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유물 해방 후 최초로 발굴된 절터는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감은사지(사적 128호)다. 우리 나라 최초로 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정신이 고스란히 응축된 이 사지는, 1959년 국립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당시 붕괴위험을 안고있는 서탑의 해체·복원은 학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다. 12월 중순, 서탑의 옥개석을 들어내자 부드러운 흙 속에서 사리공이 나타났다. 신라의 통일 정신을 1천 3백여 년 동안 고이 간직해 왔던 청동제 사리장엄구(보물 366호)가 다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이 해방 후 처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찾아낸 성보문화재이다.

신라 사찰 규모·양식 엿봐

■황룡사지 경북 경주시 구황동 황룡사지(사적 6호) 발굴은 반세기 남짓한 성보문화재 발굴사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70년대 초까지도 이 절터는 민가와 논밭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무렵 정부는 '경주관광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문화재연구소는 경주지구 고적 발굴을 맡았다. 이때부터 1천 2백여 년 동안 잠자던 황룡사지는 본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1964년 12월 목탑터 심초석에 간직되어 왔던 사리장치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흐른 뒤였다. 8년 동안 10만명이 동원되었던 황룡사지는, 신라 최대 왕실사찰의 규모와 양식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했다.

백제 불교의 찬란함 '증거'

■미륵사지 익산의 미륵산 좌우로 흘러내린 나지막한 능선 안에 자리잡은 절터가 미륵사지(사적 150호)다. 용화세계를 염원하던 백제 최대의 사찰이다. 그러나 발굴이 시작됐을 때 이 절터는, 1천 3백여 년의 풍상을 견디지 못해 거의 쓰러져간 미륵사지석탑(국보 111호)과 건물지 만이 남아있었다.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문화재연구소 발굴단의 손길은 차라리 마술이였다. 미륵사의 담장 터를 찾아 사격을 추론하고, 신라의 황룡사와 쌍벽을 이루는 대가람임을 밝혀낸 것이다. 또한 석탑의 조성 연대와 규모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능사정릉' 쓰인 질그릇 조각

■정릉사지 남한에서 황룡사지과 미륵사지와 같은 신라와 백제의 절터가 발굴되는 동안 북한에서도 그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1974년부터 고구려 동명왕의 능사인 정릉사지 발굴이 시작된 것이다. 정릉사는 고구려의 정서와 그 역동적 미학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찰로 총 면적이 9천여평으로, 황룡사지와 어깨를 견줄만하다. 그런데 이 대역사(役事)의 단초는 인근 우물에서 출토된 '능사 정릉'이라고 씌어진 질그릇 조각이었다. 하찮것 없는 조각이 정릉사와 동명왕릉을 입증해준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 명문불상

■연가7년명금동여래입상 1963년 12월 경남 의령에서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의 삽 끝에 석함이 걸렸다. 1천 5백 여년 동안 잠자던 고구려의 부처님, 연가7년명금동여래입상(국보 119호)이 다시 눈을 뜨는 순간이었다. 당시 고고학계는 '우리 나라 최초의 명문 불상'이라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 미술사학계는 역동적인 고구려 초기 불상의 모습에 한껏 매료되었다. 이 불상은 제작 연대가 확실한 불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또 출토된 경남 의령 지역은 당시 신라의 영토로, 고구려 불교의 영향력이 광범위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세계최고 목판인쇄물 발굴

■불국사석가탑내발견유물 1960년대 전국의 도굴꾼 총 수는 약 1천여 명으로 추산됐다. 그들은 고분 외에도 경주 불국사 석가탑(국보 제21호)의 한 쪽을 지렛대로 들어올리고, 그 속에 든 사리함을 훔칠 시도를 할만큼 극성이었다. 그 때가 1966년 9월. 전 국민은 분노했다. 문화재관리국은 탑의 피해상을 바로잡고 사리장치 유물의 안전 여부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다라니경(국보 126호)과 창건 당시 제작된 사리장치 유물(모두 합쳐 국보 126호)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불교예술의 대표작

■금동미륵반가사유상 1912년 이왕가박물관이 일본인에게 거금 2,600원을 주고 사들인 것이 금동미륵반가사유상(국보 제83호)이다. 세계의 경탄을 자아내게 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불교예술이다. 이왕가박물관이 이 불상을 사들일 때는 오늘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호분을 바른 표면에 상호는 먹으로 입술은 빨갛게 칠해져 마치 더럽혀진 회벽과 같았다 한다. 일본인의 약탈에 의해 서울로 반출됐음을 시사해 준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 불상의 반출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사리 봉안시대 기록 명확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 부여 능산리사지는 연대가 확인된 백제의 절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1995년 10월 목탑지 심초석에서 출토된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국보 제288호) 때문이다. 이 사리감은 사리를 봉안한 시대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또 중국의 북조시대의 유행을 따르고 있는 이 사리감은 삼국시대 사리감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일제 약탈후 1919년 반환

■경천사지 10층석탑 현재 문화재연구소 전문가들이 보수·복원에 열중하고 있는 있는 경천사지 10층석탑(국보 제86호)은 1907년 일본 궁내대신 다나카가 경기도 풍덕군 경천사지에서 해체, 일본으로 불법반출되었다. 고려시대 걸작으로 꼽히는 이 탑은 국제적인 여론과 조선총독부의 반환 요구에 따라 1919년 서울로 되돌아왔지만, 파손이 심한 상태였다. 때문에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쌓아놓은 채 방치되다가 1960년에 억지로 복원이 이루어져 국보로 지정됐다. 다시 보수하여 새로 자리잡을 곳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예정돼 있다.

백제 석조미술 절정

■서산 마애삼존불 충남서산 가야산 계곡 동면에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이 있다. 한국 조각사의 대표적 작품으로 꼽히는 불상은 백제석조 기술을 짐작케 해 주는 성보다. 주존불의 미소와 좌협시인 사유상은 평면 암각을 능숙하게 다루었던 백제인 솜씨를 유감없이 나타내고 있어 백제 석조 미술의 절정을 보여준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선경어(禪警語) ③

做工夫 不可在古人公案上
주공부 불가재고인공안상
卜度 妄加解釋 縱——領略得過
복탁 망가해석 종일일령략득과
與自己沒交涉 殊不知古人一語一言
야자기몰교섭 수부지고인일어일언
如大火聚 近之不得 促之不得
여대화취 근지부득 촉지부득
何況坐臥其中耶 更于其中
하황좌와기중야 갱우기중
分大分小 論上論下
분대분소 노상논하
不喪身失命者幾希
불상신실명자기희

참선하는 사람은 조사의 공안(公案)을 생각으로 헤아려 짐작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설사 낱낱이 해석하여 알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본분(本分)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조사의 말 한마디 글 한 귀절은 마치 큰 불덩이와 같아 가까이 갈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인데 어찌 그 가운데 앉거나 누울 수 있겠는가. 더우기 그 가운데서 크고 작은 것을 따지고 좋고 나쁜 것을 논한다면 목숨을 잃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若將此偈 時時驚策 工夫自然得上
약장차게 시시경책 공부자연득상

참선하는 사람은 문구(文句)에 매달리거나 신기한 말에 팔리지 말아야 한다.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에 장애가 되어서 진실한 공부도 도리어 망상이 되니, 생각의 길이 끊어진 곳을 얻으려 한들 되겠는가.

참선하는 데에 비교하여 헤아려서 알고자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 마음에 머무름이 있으면 도와는 더욱 멀어진다. 그렇게 한다면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한다 해도 전혀 소득이 없다. 만약 의정(疑情)이 문득 일어난 자라면 마치 철벽은산 안에서 오직 살길만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과 같아야 할 것이다. 만약 살길을 찾지 못했다면 어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다만 이렇게 정진한다면 시절 인연이 다가와 스스로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황벽선사께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일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니, 마음고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힘쓸지어다. 찬바람이 한차례 뼈에 사무치지 않은들 어찌 매화가 코를 찌르는 향기를 얻겠는가." 하셨으니 이 말씀이 참으로 친절하다. 만약 이 게송을 가지고 때때로 경책한다면 공부는 자연히 상승할 것이다.

做工夫 不可尋文逐句 記言記語

문구에 매달리면 공부도 망상되고
마음에 머무름이 있으면 道와 멀다

做工夫 最要緊 是箇切字 切字最有力
주공부 요최긴 시개절자 절자최유력
不切則懈怠生 懈怠生則放逸縱意
부절즉해태생 해태생즉방일종의
塵所不至 若用心眞切
미소부지 약용심진절
放逸懈怠 何緣得生 當知切之一字
방일해태 하요득생 당지절지일자
不愁不到古人田地 不愁生死不破
불수부도고인전지 불수생사불파

참선에는 '간절함'이 한 마디가 가장 중요하다. 간절함은 무엇보다 힘이 있다. 간절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생기고 게으름이 생기면 제마음대로 방종해져서 못할짓이 없게 된다. 만약 마음 씀이 참되고 간절하면 방종하고 게으름이 생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간절하다는 이 한 마디만 알면, 옛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생사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근심할 것도 없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인간의 몸 받았을 때

국봉스님 〈해인사 용탑선원 한주〉



악
- 1919년 전북 군산生
- 26년 전남 백양사에서 前조계종 종정 고암스님을 은사로 득도
- 나주 다보선원, 부산 범어사, 오대산 적멸보궁 등 제방선원과 기도처에서 정진
- 現 대구 금강사 주석

력

저는 조실부모했습니다. 전주 위봉사 주지스님이셨던 선친이 서른여덟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자 어머니도 절에 머무를수가 없어서 멀리 떠나버리셨어요. 어린 저는 운명처럼 동자승이 되었는데 태어날때부터 계속 절에 있었으니 동진출가라기보다 태생출가라고 하는게 더 맞겠지요?

여덟살의 나이에 백양사에서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셨던 고암스님 한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한 일본인 스님이 저를 보고는 "동글동글하게 참 잘 생겼구먼, 내가 데려다 키워보겠다"며 일본에 데려갔는데 일본땅이 낯 설기도 하거니와 '조센징'이라고 괄시하는데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절에 처음 들어오면 나이에 상관없이 공양주 노릇을 하게 되는데 저도 예외는 아닌지라 물긷고 나무하고 탁발도 했습니다. 지금은 탁발이 거의 사라지고 없을 뿐더러 설사 탁발을 하더라도 교통이 편리하고 의복이 발달해서 큰 어려움을 못 느끼지만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내복도 없는 시대여서 영하10도가 넘는 한겨울에 탁발을 갔다오면 손발이 부르트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스님들이 다른 잡념이 없었고 참으로 수행자 다웠습니다.

그때 비하면 요즘 스님들은 육체적으로 편하게 지내는 반면 여러면에서 참으로 복잡한 것 같습니다. 수행자는 주변 생활이 단순해야 하는데 이것 저것 배울것이 많고 관리할것도 많으면 도를 닦기가 힘들어집니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보고자 하는 것이 선(禪)인데 인연관계가 복잡해서는 늘 생각을 들고 있어야되니 어느 세월에 도를 깨치겠습니까?

이왕지사 출가의 인연을 만났으면 모든 것을 접어두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게 상책입니다.

현재 제가 머무르고 있는 금강사는 저의 사제인 청수스님이 가꾼 도량입니다. 한 5년전부터 겨울이 되면 해인사가 너무 추워서 밤에는 화장실 다니기가 힘들고 해서 이곳에 와서 한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인연입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있을는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생겨 음식을 잘 못먹고 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꽃도 피었다 지는것처럼 제 육신도 이제 거동할 수 있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실감합니다. 이제 정말 갈때가 가까운것 같아요.

죽음에 이르러 생사가 여일(如一)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갈걸 뭐한다고 그렇게 발버둥쳤단말인가?"고 탄식하며 후회해봐야 때는 늦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인간은 몸이 없으면 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으니 조사스님들은 인간의 몸 받았을 때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감투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깨달음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추구한다고 해서 쉽게 이뤄지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고집과 미망을 버리지 못하고 발버둥치다가 허망하게 죽어가니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수행에 뜻을 둔 사람은 평소 수련을 게을리하면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깜짝 깜짝 놀라며 스스로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 자책하게 마련입니다.

어쨌든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 비로소 고암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았는데 그제서야 겨우 스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나주 다보선원에서 고암스님을 시봉하면서 30여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의 현현
이 도리 믿고 실천하면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어요"

고암스님은 자비보살의 화신으로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조계종 종정을 무려 3번이나 역임하고 전계대화상까지 맡으셨으면서도 태산준령같은 이미지가 아닌 호수같은 이미지를 남긴 분입니다. 명경지수와도 같은 맑고 깨끗한 행적을 보이셨으면서도 참으로 인간미가 넘치는 스승이었습니다.

한번은 다보사에서 보살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만해도 절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절인지라 어느 여신도가 밤중에 마지그릇을 요강으로 착각하고 용변을 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침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이일을 전해들은 스님은 여신도를 불러놓고는 "부처님이 보살님 복짓게 할려고 그런 모양이니 새 마지그릇을 사오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실수 때문에 눈앞이 캄캄했던 여신도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쉰 것은 물론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사스님은 늘 자비심으로 불자들을 감화시키는 자비보살의 화신이었습니다.

6.25전쟁때 스님을 모시고 군산으로 피난을 가는데 죽을 고비를 몇번 넘긴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라도는 인민군의 손아귀에 있었는데 몇번이나 검문에 걸려 조사를 받았지요.

'인민공화국 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묻는데 하는수 있습니까?

좋다고 할 수밖에요. 한마디만 까딱 잘못했다가는 붙잡혀가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관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도 은사스님은 침착함과 부드러운 자비의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무사히 고비를 넘기고 6.25가 끝난직후 부산 범어사로 갔습니다. 당시 범어사에는 동산스님이 조실로 계셨는데 고암스님과는 사형사제간이지요. 두분은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한 33인중의 한분이신 용

마하몰 ... 새천년 맞이 추천 상품 특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 02) 732-1522 (직)
02) 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수암 만다라 옥침



수암만다라옥침은 두개의 회전구 표면에 각기 약 300여개의 뾰족한 옥침과 내부에 강력한 영구자석과 천연옥을 합성시켜 원적외선과 자기력을 발산하도록 만들어 졌다. 수암만다라옥침으로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함으로 효과는 수지침과 동일하며 옥과 자력의 상승작용으로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가 격 : 30,000원
■재 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훼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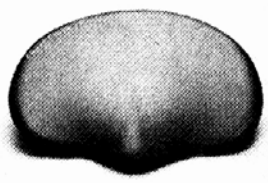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끔 착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0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바른자세 건강방석 참선명상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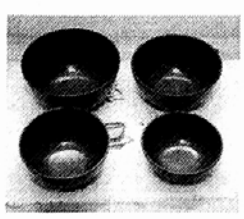


바른 자세가 건강한 정신과 편안한 마음을 만듭니다.
현대인들의 척추보호 및 교정을 위하여, 오랜시간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발명품.
이젠 바르게 허리펴고 건강하게 생활하십시오.

■가 격 : 27,000

사이즈 - 가로 43 cmX 세로39cm
실용신안 특허 공개 실 19998-025009
의장등록 출원 제 14387호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발우



여기 이 '황토 질그릇 발우'는 순수한 황토와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이 아닌 낙엽 태운 천연유약과 1300도 불의 조화로 형성된 투박하고 자연적인 옹기로써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盂)이다.

■가격 4합 : 6만원 - 무게 2.7kg
2합 : 3만원 - 무게 1kg

화엄변상도 (華嚴變相圖)



마하몰에서는 천여 년 동안 팔만대장경판과 함께 해인사 장경각에 소장되어온 고려불교 예술의 결정(結晶), 고려(高麗) 화엄변상도(華嚴變相圖) 전 80장 완본(完本)을 순한지인 영담선지(影曇禪紙)와 특수 인쇄기법으로 완벽하게 간행하여 불자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규격 : 57.5 (가로) X 23cm (세로))

1. 다시 만나기 어려운 고려 화엄변상도 전80장 완본
2. 팔만대장경판과 함께 해인사 장경각 소장본 영인
3. 150여 페이지에 달하는 화엄변상도 해설 책자 증정 (前 해인사 講主, 現 해인사 律院長 宗眞스님 해설)
4. 전통한지의 맥을 이은 影曇스님이 제작한 최고의 순한지(純韓紙) 영담선지(影曇禪紙) 사용
5. 본 화엄변상도는 액자난 즉지, 또는 화엄법풍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본 화엄경 변상도는 100세트 한정판입니다

■가 격 : 각 330,000원

불 자 반 야 반 지



불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
정견(定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목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慙力), 강력(强力), 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변력(辯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홍법력(弘法力), 항마력(降魔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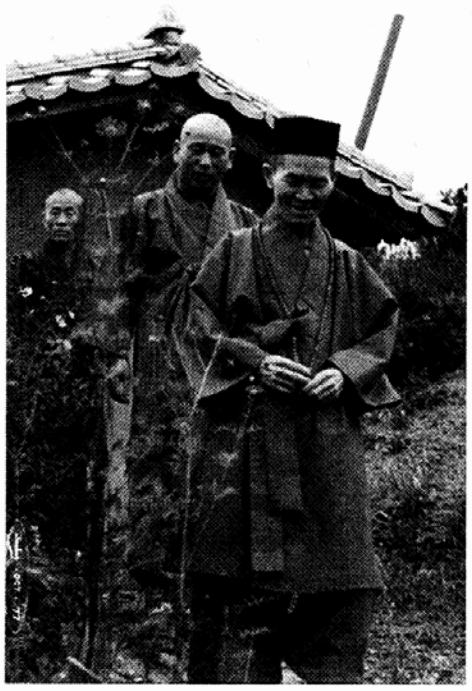
■가격: 18K 130,000원
14K 120,000원
■용량: 16개 큐빅/금 1.5 돈

※호수에 맞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큰스님 수행한담

공부하기 가장 좋아요"

"인연과보는 믿지않고 삿된 귀신 신봉하는 것은 거꾸로 왜곡된 마음때문이죠"



◇1977년 10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진덕사에서 고암스님(사진 맨앞)과 포행하는 국봉스님(사진 가운데).

명예와 재물은 삼독 키우는 헛된 욕심
무소유와 자비정신서 행복 나와요

주 서중학교에 다니던 송담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고암스님을 찾아와서 곧 졸업하게 되니까 입산을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고암스님이 전강스님에게로 보냈습니다. 송담스님은 입산하고 나서 7년 묵언정진을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전강스님이 수좌들을 지도한다는 소문이 나자 불자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깎은 모습이 보기 좋아서인지, 스님을 가까이서 모시던 저도 불자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회에서 데려가려고들 많이 그랬는데 아마 마음이 약했으면 지금까지 승복을 입지 못했을겁니다.

성스님의 제자입니다.

조실방에 들어가 3배를 올리는 저에게 동산스님은 "어디서 오는가?"고 물었습니다."나주 다보사에서 오는길입니다"고 대답하자 스님은 다시 "다보사에서 몇걸음에 오는가?"고 재차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일발(한걸음)로 옵니다"고 답하고는 이어 "다보사에서 몇걸음에 왔느냐고 묻는 자는 누구입니까?"하고 반격했습니다.

스님은 물끄러미 한번 쳐다보시고는 가만히 눈을 감고 계시더군요.

그때는 젊어서 혈기발랄하고 의욕이 넘치던 때라 힘들어도 힘든줄 모르고 정진했습니다.

다보사에 인천 용화사 조실로 계셨던 전강스님이 조실로 오신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강스님은 한소식 하신분으로 제방에 널리 소문이 나 있었어요. 아침예불이 끝나면 대중들이 모두 모여 3배를 올리고 법문을 듣곤 했는데 당시 광정도 단식하던지 하면 될것입니다.

쌀미(米)자는 팔십팔(八十八)을 의미합니다.한톨의 쌀알이 사람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여든 여덟 번의 손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긴과정을 거쳐 우리의 입으로 들어와 생기를 북돋워 주건만 예사로 음식을 버리고 밥투정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마십시오. 절에서 음식을 먹을 때 외는 게송이 있는데 그중의 일부를 보면 '忖己德行全缺應供 放心離過食等爲宗 正思良藥爲療形枯'(나의 덕행으로 마땅히 이 음식을 공양받을만한가를 돌이켜보며 탐심을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약으로 생각할것)라고 했습니다.

오대산 상원사 적멸보궁에서 정진할때는 3백일 기도를 했는데 하루8시간씩 목탁을 치며 석가모니불 정근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7일동안은 잠을 안자고 용맹정진을 했는데 마지막7일째 되던날 비몽사몽간에 헤아릴수 없이 많은 스님들이 가득 모여있는 법회장이 보였습니다.

앉을 자리를 찾다가 연화설법좌가 비어있길래 거기에 앉으려고 했더니 동산스님이 옆에서 " 아직 그 자리에는 올라갈때가 아니다"며 달려요. 그러고 나서 문득 의식을 차렸는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고 공부를 이룬다는게 쉬운게 아니구나"하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다보선원을 향해 떠났습니다.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전도(顚倒)된 몽상 때문입니다. 전도란 거꾸로 왜곡된 마음입니다. 이몸은 공한것인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불성은 확연한것인데 오히려 긷지를 않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연과보는 믿지않고 삿된 귀신이나 신봉하는 것도 전도몽상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에 속아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에 매달려 탐욕을 부리다가 육도를 윤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지혜의 눈으로 보니 일체중생이 모두 여래의 덕상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법신 부처님의 현현이므로 이 도리만 확실하게 믿는다면 불퇴전의 보살이 되어 언젠가는 성불하게 될것입니다.

제 주변에 재물을 여한없이 모은, 나이가 지긋한 거사님이 한분 있는데 그분은 늘 허전함을 감출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것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돈으로 생사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나 그 구하는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첫째는 오래 사는 것이요, 둘째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아무리 오래살고 건강해도 결국은 죽게 마련이니 생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언제나 공허함을 면치못하게 되어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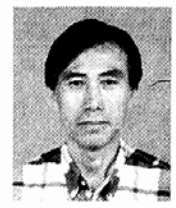
옛부터 사람은 죽을때보면 그 사람됨과 수행의 깊이를 알수가 있다고 합니다. 몸부림치며 가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비명횡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질병에 걸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죽는 이가 있는가 하면 불에 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갈 날을 예언하고 좌탈입망하는 스님네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임종은 태연자약했습니다. 자기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아 쉼없이 정진하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하시고는 80평생의 노구를 벗어버리셨지요. 부처님은 이 세상을 욕망의 불에 활활 타고 있는 화택에 비유하시고는 출가자가 돈과 명예, 사랑에 빠지는 것을 가장 경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철저한 무소유정신과 중생제도를 위한 자비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속히 생사관을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정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강 정 기

〈정호팩케이지 대표〉

〈完〉

삶의 회향이자 포교라는 생각으로
'죽은 자 위한 천도 기도' 10여차례

인간사는 만남이다. 우리의 삶은 만남을 통하여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유·무형 모든 만남을 포괄하고 있다. 나의 51년 삶도 만남의 연속이었다. 그중에서 대학교 재학중 만난 불법은 새롭고 특별했다. 사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을 만났었다. 하지만 불법의 진리를 모르고 성장했을 뿐이다. 내가 태어난 경남 남해에는 아담한 절이 있었다. 화방사가 바로 그곳이다. 유년시절 이 절은 나의 놀이터였다. 그곳에서 하루종일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때론 어른들을 따라 절을 하며 소원을 빌기도 했다. 이러한 불교와의 만남은 부처님의 진리를 접할 수 있는 불심의 씨앗을 갖게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만남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러한 인연은 대학시절 불교서적을 두루 정독하면서 가시화됐다. 그 당시 불법속에 무한한 삶의 지혜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그 후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찾아 나섰다. 법회에 참석해 법문을 듣고, 홀로 가부좌를 틀어보기도 했다. 또 사찰순례, 봉사활동도 해 봤다.



이처럼 교리공부를 통해 삶의 지혜를 터득해야 겠다는 나의 신행관은 어머님이 병환에 들면서부터 바뀌었다. 우리 부부는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할 정도로 점차 병환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답답했다. 내가 진정으로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있을까', 이 화두(?)를 붙잡고 고민해봐도 간호밖에는 특별한 대안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서울 불광사에 다니고 있었다. 법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장례를 가르치고 있는 연화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갔다. 아들이 아닌 불자로서 투병중인 어머니를 위해 해야할 일을 찾았던 것이다. 염불이었다. 목탁과 기도문이 담긴 책을 한권 구입하고, 그날부터 매일 조석으로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쾌유를 빌던 나의 기도는 점차 건강이 악화되면서 편안한 죽음과 극락왕생기도로 바뀌었다. 결국 어머니는 1년 여의 투병 끝에 운명을 달리했고, 어머니의 주검앞에서 눈물을 뒤로한 채 극락왕생 천도기도를 일심으로 했다.

그때 터득한 것이 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이것은 나의 인생철학이 되다시피 했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기위해 97년부터 새로운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죽은자를 위한 천도기도이다. 경기도 파주 금촌의료원에서 돌아가신 2명의 노인을 위해 천도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여명의 주검앞에서 천도기도를 했다. 내가 찾아가는 상가는 대부분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의 상가이다. 이들은 천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가난해 49재는 고사하고 천도염불조차 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사찰을 짓고, 법문을 하고, 인재를 키우는 것만이 포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쉽게 지나치기 쉬운 곳이 바로 포교의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곳중에 하나가 바로 상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 병원 영안실의 경우 타종교의 전도활동은 열성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광적이다. 하지만 불교의 경우는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는 불교식으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불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은 자들을 위한 천도'라고 생각한다. 나는 평생 염주와 목탁을 놓지 않는 생각이다. 이는 내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한 과정이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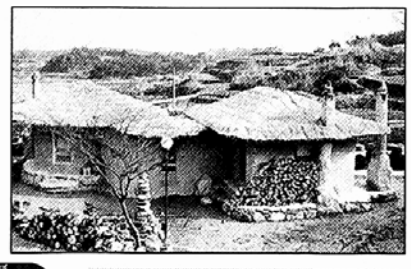
천 대 불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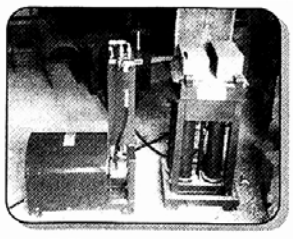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94-8859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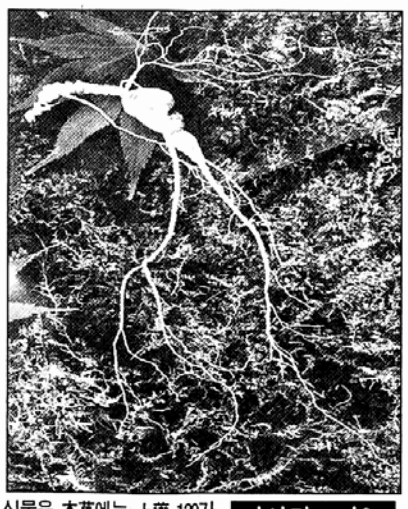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경건하고 믿음직한 생활공간

가람은 무엇인가 ? 물론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이며, 불자들의 예불장소이다.

그러나 불 법 승 삼보의 승단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수도원이기도 하다. 출가한 스님들이 먹고 자고, 수행하는 큰 집이다.

과거 산중불교 시절, 웬만한 절에는 수십명 내지 수백명의 스님들이 거주했다. 이들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가지고 조직적인 수행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가람을 유지해 왔다. 어떤 분은 수행에만 전념하는 이판승의 소임을, 어떤 분은 가람의 살림과 포교를 담당하는 사판승의 소임을 맡는다. 사판승 가운데도 재무나 총무와 같은 행정승이 있는가 하면, 먹거리 공양을 해결하는 후원을 담당하는 원주스님과 같이 살림승도 있다.



◇순천 선암사의 대규모 승방인 무량수각. 선암사 승방은 스님들의 치열한 수행과 체계적인 생활, 여유가 깃든 옛 승방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몇 안되는 소중한 곳이다.

가람의 장면들 18

선암사 승방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스님의 수행·살림·여유 깃든 ㅁ자형 건물 짜임새 빼어나

승단에는 높고 고고한 스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와 아궁이 불을 책임지는 불목하니와 같이 궂은 일을 맡은 스님이 거 많았다. 이처럼 대단히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절집 살림을 위해서 생활을 담을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통틀어 승방이라 한다.

순천 선암사나 고성 옥천사와 같이 큰 절에는 한때 300여명의 승려가 거주했었고, 이들을 위해 10여동의 승방이 필요했다. 현재 선암사에는 심검당, 적묵당, 해천당, 무량수각 등 대규모 승방이 4동, 주지실, 응향각 등 중소 규모 승방이 10여동 남아있다. 과거에는 더 많은 승방들이 있었고, 고성 옥천사는 12방사가 있었다고 기록으로 전한다. 각 승방은 독립된 조직으로, 취사와 생활을 승방별로 운영했었다.

따라서 각 승방에는 별도의 부엌과 후원이 조성되었고, 생활용수 조달을 위한 커다란 물통과 설거지 구유, 음식물을 항기 위한 대형 맷돌 등을 구비하였다. 지금도 선암사에는 이런 생활 도구들이 잘 남아 있다.

그러나 모든 승방들의 용도가 같은 것은 아니었다. 선암사의 대형승방들은 ㅁ자형으로 구성되어, 부엌과 창고, 개별 승방들은 물론, 대방이라 불리우는 큰 방이 마련된다. 이 방은 승방 식구 전원이 모여서 식사 공양, 참선수행, 경전강론, 신도접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또한 스님들의 휴식을 위한 누각마루와 안마당도 만들어졌다. 이들 시설들은 서로 크기와 높이가 다르다. 승려 1인을 위한 개별 승방은 작고 아늑한 방이지만, 대방은 30여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6~8칸 크기이며 높이도 높아야 한다. 창고와 누각마루는 보통 방들보다 한층 높은 2층에 설치되어야 하고, 부엌은 오히려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대규모 승방은 1층과 2층 공간이 뒤섞여 대단히 입체적인 건물을 만들 수밖에 없다.

선암사 심검당이나 무량수각의 안마당에 들어가면, 방들 위에 다락마루가 있어서 음식물 보관 창고로 이용하거나, 더운 여름철 스님네들의 시원한 쉼터로 사용된다.

다락에 걸린 통나무 사다리를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면, 확 터진 마루가 나타나고, 그 속에 다시 작은 사다리를 오르면, 대방위의 지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를테면 비밀스러운 3층 공간까지 마련된 셈이다.

대중들이 모이는 대방은 보통 방들보다 깊이가 깊고, 지붕도 커질 수 밖에 없다.

바깥에서 보면, 크고 높은 지붕면과 그 옆면 마구리에 붙은 박공널의 모습이 승방의 상징같이 부각된다. 매우 인상적이고 건축적인 형태다. 대개의 승방건축은 마치 복합적인 승단의 생활을 반영하듯이 입체적이며, 경건하면서도 밀음직한 주지 스님의 모습과도 같이 굳건한 외관을 가진다.

승방에는 항상 스님들의 생활이 펼쳐지고, 따라서 일반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아무리 성직자라도 세수나 빨래, 용변 등 자질구레한 일상사를 피할 수 없으며, 그러한 생활이 일반 불자나 방문객에게 노출되면 성직자로서의 품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방문객들의 간섭과 구경에 시달려 스님들의 사생활이 침해받기 때문이다.

승방 내부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절묘한 방법을 사용한다. 보통 승방은 담장과 건물벽으로 감싸지며, 유일한 출입구를 통해서만 안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출입문은 다름아닌 부엌문이다. 부엌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대문인 줄 알고 열어보면 부엌이니, 익숙치 않은 이들은 아예 들어서고 만다. 또한 부엌에는 항상 아궁이를 관리하거나 음식을 장만하는 이들이 있게 마련이다. 아무리 강심인 외부인이라도 이들의 저지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전국 사찰 가운데 선암사에 있는 4개의 ㅁ자형 승방들은 가장 규모가 크고 짜임새 있는 우수한 건물들이다. 그러나 선암사의 승방들만 우수한 것은 아니었다.

전국 어느 사찰이나 그윽하고 건축적인 승방들이 있었다. 단지 일제기를 거치면서 스님들이 줄어들었고, 해방후의 전란과 화재, 그리고 무분별한 철거와 신축 등으로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이다.

다시 말해서 선암사의 승방들은 가장 충실하게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건물만 보존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선암사의 승방들은 수십명의 스님들로 가득차 있고, 수행과 강론 등이 벌어지고 있다. 선암사의 승방들이 보존된 것은 스님들의 생활이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사찰들에는 승방을 지킬 스님들이 없고, 주인없는 한국건물들은 곧 수명이 끝나 버린다. 선암사 스님들의 노력과 수행생활이 없다면 선암사의 그 아름다운 승방들도 곧 사라지고 말것이다. 승방건축은 왜 아름다운가? 거기에는 스님들의 치열한 수행과, 체계적인 생활과, 그 속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99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방치된 문화유산 소중함 일깨워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석조여래입상을 찾아 연대와 양식등을 조사하고 있는 석불문화연구회팀.

결 산

2년간 21기 답사 고증
2기 문화재 지정 신청
최근 돌부처 분실 잦아
종단 · 정부관심 아쉬워

현대불교는 한국석불문화연구회와 함께 2년간 총 20회에 걸쳐 전국에 산재한 미지정 돌부처를 찾고 역사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본사의 돌부처 찾기운동은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가 답사하고 문화재전문위원 정영호교수(한국교원대 박물관장)가 고증했다. 주로 마을주민과 인근사찰 스님들의 제보가 잇따랐고 답사를 가보면 대부분 관리소홀로 나뒹굴고 있거나 만신들의 기도처로 변화된 곳도 있었다.

2년동안 답사한 돌부처 21기중 7기가 약사여래불, 6기가 석가여래불, 5기가 미륵불, 2기가 관세음보살, 1기 비로자나불 순으로 나타나 민간에 미륵신앙보다 오히려 약사불사상이 강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소개된 미지정 돌부처중 제천 명암리 미륵불,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이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고 고양시 약사여래불 1기에 보호각이 마련됐으며 답양 마애석불입상에 대한 인근 사찰스님 관리인등록의 성과를 거뒀다.

'돌부처를 찾습니다' 캠페인에는 일반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도 돋보였다. 혜명법사(군불교진흥회 부회장)등 10여명의 불자들은 본지가 찾아낸 돌부처들을 참배하며 기도하고 공양물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내년부터는 돌부처찾기는 물론 보호및 참배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문화재 보호단체를 창립하여 석불회와 연계, 미지정 문화재 보호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

운동을 펼치는 동안 한적한 곳에 위치한 돌부처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과 농번기를 이용하여 마을 앞마당등에 보관해온 돌부처를 분실등도 있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최근에 문화재도난이 늘어남에 따라 야외등에 방치돼 있는 돌부처들의 분실건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돌부처 찾기운동을 진행하며 종단과 사찰들의 무관심이 미지정문화재의 훼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다. 문화민족임을 내세우지만 정부에서도 지정돼 있는 문화재 보호에만 신경을 쓸뿐 새로운 유물을 발굴한다거나 지정하는 데에는 인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석불문화연구회 유영렬회원은 "불교언론의 관심으로 미지정문화재의 가치가 홍보되어 소중한 성보가 지켜지는 계기가 된점이 보람"이라고 말했다.

2년간 고증을 해온 정영호교수는 "현대불교가 펼친 돌부처 찾기운동은 곧 우리정신의 근간인 성보문화재를 보호하자는 것으로 민족문화를 살리는 한 방편"이라며 "문화재는 한번 사라져 버리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으므로 하루 빨리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석불연구회를 이끌며 돌부처를 답사해온 이근후교수(이화여대 의대)는 "우리 연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돌부처 찾기운동을 펼치지만 이 운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종단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용국사 영혼의 쉼터 (법당식 납골당) 국내 최초 건립

납골당에도 명당이 있다

"영혼의 쉼터가 왜 명당인가"

- 보물 373호, 472호로 지정된 1300년 고찰터
- 사방이 병풍을 둘러친듯 영산의 명당지
- 건평 200평 대법당에서 평생동안 부처님 궁전에서 영생불사한다
- 조석예불과 巳時(사시) 마지공양을 영전에 올리며
- 항시 대법당에서 기도, 독경, 염불을 모실 수 있다
- 제사, 불공, 49제를 의식할 수 있다
- 평생관리 허가증 발급 ◆ 24시간 순찰경비

유골탑: 옥석 2단(1단: 유골안치 2단: 계첩, 염주, 경전등 소장)



위패(향목) 옥석2단함 영전(향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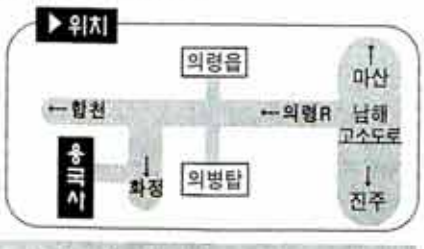
불자의 평생소원 법당식 납골당 드디어 공개 영혼의 쉼터로…



동양최대 3백3십3불 노천 관음보살 봉안지

용국사 버스 운행표 (일요일 휴무)
· 부산 한아름 예식장 앞(사직동 고속버스뒷길) 08:30 출발
· 창원(창원역전 앞) 09:50 출발
· 마산(마산역전 앞) 오전 10시 출발
용국사 도착 10시 30분(영혼의 쉼터)

▶위치



문의 및 연락처 (0555)572-3233, 3533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산 852

효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충이 따를 수 없다
효는 가정에 근본 충은 민족에 정의
"생전에 못다한 효도 사후에 마지막 기회"

기공식 특별기념 안치 · 예약 접수중

납골함+영전+위패+평생관리=350만원(1기당)

안치 및 예약
기공식 특별기념으로 200명 선착순 1기당 175만원
사망한 유골, 타지역유골을 즉시 법당에 안치할 수 있다



건평 200평 대법당에 안치할 납골당 내부전경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나' 부터 믿어야 올바로 가는 길 생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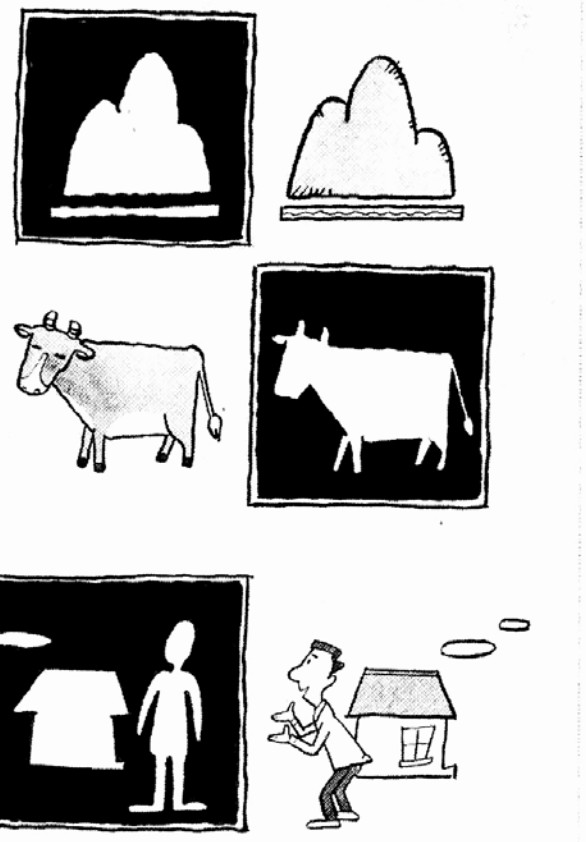
전국에서 모인 우리 청년 법우님들, 반가워요. 여러분 모두가 나의 모습을 그렇게 택하지 말고 나의 모습 없는 나에게, 자기 모습 없는 자기에게 항상 귀의해서 일체를 다 거기 놓고 간다면 나 또한 둘이 아니게 항상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한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가 내 모습대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 모습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나도 진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구요. 그래서 모습을 원하지 말라. 내 모습 없는 나를 발견하고 진짜로 믿는다면, 발견하기 이전에도 믿는다면 나와 더불어 급할 땐 항상 같이 하게 돼요. 그거를 명심해요.

에서 청년들이 모두 인사를 했는데 말이에요. 내 모습이 인사를 받은 게 아니라 모습 없는 부처님께서 모두 인사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참 진짜 이런 말하기는 뭣하지만 모습 없는 모습이 세 분이 역력하게 여러분의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할 수 있고 제대로 감응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도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진심으로 일생을 매듭을 짓고 나중에는 훨훨 털어 벗어던지고 나설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를 종교라고 해서 믿고 다닌다 하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는


그림 · 최주현

성내지 않고 웃으며 말하면 험한 길 평탄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지난주 울산지원 상량식 있을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한데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죠. 아, 부처님이 모두 이렇게 한자리 해주시고, 열반 자리라는 것은 서천국에 한데 합쳐서 아미타 도량이 됐구나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또 제각기 가피력을 받구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뜻으로나마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느껴질 겁니다. 더딘 사람은 더딜 거고 빠른 사람은 빠를 거고 그럴 것입니다.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그 가피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 도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다같은 도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데 모여주신데 대해서, 나보다도 내 마음이 그럴 때는 일체제불께서 모두 여러분한테 가피를 주셨으리라고 진짜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이 세상을 발판을 세워서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전 지원을 돌았습니다. 허허허. 한 지원 한 지원 종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들의 껍데기인 이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고 있고 이끌어가는 내가 있으니까 꼭 그것은 서로가 상봉하고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믿어야 되겠다. 믿지 않는다면 나를 누가 믿으며 내가 딴 사람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를 내가 믿어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진짜로 믿지 못한다면 모든 게 허사죠. 이 세상에 나 하나를 잘 믿을 수 있어야만 전부 믿을 수 있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가는 길도 올바르게 가게끔 자동적으로 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신비하고 자동적인지 정말이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공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절에 가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살아 보시지만, 인생은 살아보면 살아보는 대로 맘대로 말할 수도 없고 맘대로 들을 수도 없고, 맘대로 할 수도 없고 맨날 갇혀 있는 거나 같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가는 데마다 누구를 만나는 데마다 섭섭지 않게 하고 섭섭지 않게 행동하고 항상 웃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성내고 말 할 거를 성안내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성나는 일이라도 성안내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지혜로와서 성내고 말할 거를 성 안내고 말 할 수 있는 것은 험난해서 가기 어려운 길을 아주 평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파고 짜르고 모습으로 이렇게 길을 내는 것은 길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이 마음으로 길을 만든다는 것은 마음대로 길을 만들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렵지만 그것은 내가 진짜 살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 사람 공장에서 하는 일이죠. 이 지구가 사람 만드는 공장이라면 말입니다. 사람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겁을 지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사람 돼 가지고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모습을 바꿔가면서 나왔는데 또 다시 우리가 이 공부를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살아서 느껴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벗지 못하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모습을 벗기 위해서 또 얼마나 애를 써야 될까요.

쉽게 생각한다면 부처님을 믿는 것도, 자기부터 믿어야 부처님이 믿어지죠. 부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얘야, 아픈데 일어나지 말라, 내 모습을 보고 일어나지 말라. 네가 너를 진짜로 믿는다면 나의 모습없는 나도 네가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니라" 하고요. 그러듯이 여러분도 인생 사는 게 이런 거야 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가신다면 정말 인생은 거듭거듭 찾지 못해요.

진짜 돈을 쥐고 다니면서 나를 찾을래도 찾을 수 없고 내 자리를 찾을래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리는 이 우주 허공 중에 어떤 자리가 내 자리 아님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본다면, 그런데 그걸 몰라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수레바퀴에 얽혀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그 도리를 안다면 지구의 에너지가 다 없어져도 허공의 에너지를 끌어쓸 수 있을 거예요. 수억 년동안 에너지가 된 거를 우리는 그냥 쓰고만 사니 깐 없어질 수 밖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공부는 벽을 벽이라고 생각 안하거든요.

상대를 우습게 생각하는 건 자기를 우습게 보기 때문

이런 문도 문이라고 생각 안하거든요. 그래서 문없는 문을 알아야 된다. 이 보꾹도 문이고 이 천장도 문이고 이게 다 문이 아니 될 수가 없죠. 어디든지 내가 자유스럽게 발판을 디딜 수 있다. 허공을 딛고 날 수도 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자유스러운 그 모든 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말로는 다 못해요.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해 보지도 못했으니까 거짓으로 생각할 거거든. 그러니깐 그것을 말로 다 못해. 그러나 여러분이 할량으로 애들을 쓰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야.

정말 가는데 마다 곳곳마다 남을 만나는데 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웃고 살아라, 그렇게 빨리빨리 생각나는 대로 우그러진 거를 펴라. 즉 말하자면 집안이 무슨 우환이 생겼다 이러더라도 빨리 펴라. 빨리 펴야지 그걸 우물쭈물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는 펴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몸은 여기 있더라도 저 어디에 무슨 일이 있다 이러면 거기가서 해결해요. 그냥, 내 몸이 열개로 변경을 해서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몸뿐 아니라 지나가는 나무라도 인연이 있으면 모습이 돼서 다 서로가 맞먹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경을 보고 외로 꿰고 바로 꿰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가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치가 이거를 알아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질세계가 50%라면 무의 무심세계가 50%입니다. 무의 세계의 무심. 그런데 언제나 내가 있는 데에 있는 거지 내가 없는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각자 내가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 거고 자불이 있는 거고, 그 자불이 자기가 알아져서 상봉을 하게 되면 연등불이 되고 그렇게 화합니다.

예전에 깨우친 분들이 말하는대로 적었다는 박부인전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때 어려서 들은 얘기로는 저쪽에서 군사가 막 쳐들어오는데 이쪽에는 군사들이 별로 없었대요. 군사가 적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군사가 많이 생기더랍니다. 예전에는 집을 지으면 나무를 심어서 담을 치고 이랬는데 노간주나무가 다 군사가 돼서 나가니 상대쪽에서 볼 때 군사가 너무 많으니까 후퇴를 해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답니다.

박부인도 남편이 갇혀있는데 갇혀있는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귄行"

귄行 신제품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 코르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기존신발 모래사장 건강콜크 신발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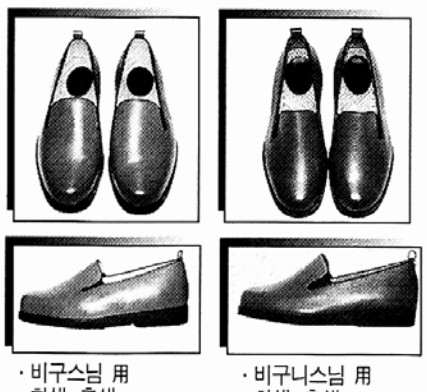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 · 정맥 · 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귄行 만 행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건강신발 귄行의 특 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귄行대표 박동진 합장

http: //www.mahamall.co.kr

마하몰 당첨자님들께
공 지 합 니 다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는 "연상공덕향 경품대잔치"
행사 당첨자를 12월 3일 추첨발표하고, 해당경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으신 해당 당첨자분들께 보내드릴 경품배송에
다소의 차질을 빚고 있사오니 빠른 연락을 바랍니다.

※ 택배발송시 정확한 도착을 위해서는 수령자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아 래

■대상 (1명) : 금강산여행권
손파항 부산 연제구 연산9동
■1등 (1명) : 불교반지(18K)
김대곤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2등 (2명) : 고산다기
김인자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이종태 부산 금정구 회동동
■3등 (2명) : 화발우
천순기 부산 서구 서대신동
박혜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4등 (5명) : 수암 만다라 육침
서정숙 경북 고령군 쌍림면
이경숙 경기 포천군 창수면
권회자 부산 남구 대연6동
김현옥 경기 양평군 개군면
이상숙 부산 북구 만덕2동
■5등 (명상방석 42명)
최중기 서울 구로구 고척동
민다래 서울 은평구 신사동
박문수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1동
정우성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강수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윤기운 경기 화성군 남양면
표은영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조현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전현자 부산 동래구 온천2동
최지원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김광식 경북 문경시 모전동
이성규 경남 마산시 어곡동
배홍록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박철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김용기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이정용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정경용 충남 천안시 성환읍
고경옥 강원 인제군 인제읍
김성은 경남 통영시 정량동
김성길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박정희 충남 보령시 청라면
한상희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박금희 경기 군포시 금정동
한희영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정동
남숙녀 서울 은평구 대조동
김영분 부산 남구 문현1동
박순남 경북 고령군 쌍림면
방덕순 서울 은평구 대조동
김경옥 경기 이천군 장호원읍
우명주 부산 중구 동광동
이희준 경북 고령군 쌍림면
김홍길 부산 영도구 영선4가
이유진 서울 은평구 대조동
신영애 경북 칠곡군 왜관읍
김명숙 부산 금정구 회동동
박향순 경기 양평군 개군면
이상훈 서울 광진구 자양1동
하동훈 서울 용산구 갈월동
오태숙 대구 달서구 진천동
최면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부연 경기 구리시 인창동
정기문 강원 춘천시 효자동

상품 수령안내 ※ 경품 대잔치 담당자: 02)732-1522(직) 유지경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http: //www.mahamall.co.kr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모든 인연 둘 아니게 봐야 편히 살수 있어

☞ 15면에서 계속

글에 찾아가 볼래도 모습이 있고는 가볼 수가 없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파리 몸이 돼 들어가고, 들어가서는 본래 모습으로 남편을 보고 나올 때는 다시 파리가 돼서 나왔죠. 이렇게 살리기도 하는 여러가지 문제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다르냐, 지금도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믿었다가 금방 다른 일이 생기면 금방 믿었던 그 마음이 변하죠. 변할 때 그 지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 모르실 거예요. 핏줄이 이렇게 돌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가 또 끊어지고 그러면 그 몸뚱이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와 같이 믿었다 안믿었다 하면 제대로 입력이 안되죠.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못 믿는 거죠. 그리고 큰 일이 생기면 자기 생각에 그런 거죠. '이런 거는 정말 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또 되거든요. 이거는 될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자기 생각에 그런 거지 딴 사람 생각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뜻에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그 간악한 마음이 나오는것은 '너만이 간악한 마음이 안되게끔 할 수 있어' 하고 자꾸 관해서 그렇지 않게 해야죠.

금은 금 있는 데 들어가서 녹지 딴 거 봉습니까. 무쇠는 무쇠 있는데 들어가서 녹고 물건이 되지 딴 거 들어갑니까. 구리에는 구리가 들어가고 벌의벌 천차만별의 문제들이 그렇게 차원에 따라서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죠. 사람들도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구요. 자식을 낳는 데도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구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우치고 보면 한나절을 올어도 시원치 않고 한나절을 쳐다보고 웃어도 시원치 않다'는 얘기가 있죠. 부처님께서도 얼마나 가르치기가 어려우면 뼈무더기에다 절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다. 이 말 한 마디로 일대사의 인연을 가르치신 거죠. 미생물에서부터 수없는 겁을 거쳐 나오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탱을 한 그 이치를 다 아시고 그걸로다가 가르치신 겁니다. 눈 뜨고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얼른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하고 빨리 깨닫지만 눈을 뜨고 귀를 뜨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도 그냥 그런 가보다 이렇게 했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느니라. 이거는 사람뿐이 아니라 이 흙속에 있는 생물도, 나무도 돌도 다 생명이 있느니라. 어느거 하나 빼놓을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 이 이치를 어찌 말로만 듣고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깨우치는 거를 그렇게 제 일로 쳤죠. 너는 껍데기니까 네 껍데기를 보고 너라고 생각지 말고 너 알맹이를 찾아서 진짜 너를 찾아보아라. 진짜 너를 찾아야 이 물질세계와 무의 세계가 같이 혼합이 돼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의 진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천차만별의 물질들이 차원에 따라서 전부 인연이 돼서 만납니다. 그런데 생각들 해보세요. 어른들은 자식들을, 자식들은 어른들을 원망하면서 살죠. 때로는 원망을 하고 때로는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고 살죠. 환경에 쫓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끼리끼리 무쇠는 무쇠대로 들어가서 만남이 있었다 이런다면 무쇠끼린데 무엇이 원망이 있고 무엇을 미워하고 이뻐하겠어요. 서로 서로 똑같은 인연들인데. 자기 부모가 금이라야 금이 돼서 들어가고 금 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만 금이 금으로 들어가고, 무쇠는 무쇠로 돼 있으니까 무쇠로 된 것이 나한테 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천차만별로 돼 있는 것이 사람뿐이 아니에요. 사람도 사람의 모습만 사람이 됐지 진짜 사람으로 된게 아니다 이거에요. 즉 쉽게 말하면 아직 사람은 못 되지만 짐승이라는 말은 안하고 사람이라는 말은 들어갔어도 아직 그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될 수 있고 다시 또 짐승으로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적지 않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숙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움죽거리고 사니까 이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나가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상대를 우습게 생각하는 건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생각한다면 조금도 에누리가 없어.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내가 쓰고 싶은데 다 쓰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는 전부 보물인 거야. 하다 못해 바람에 깔리는 모래도 전부 보배가 되는 거지. 보배 아닌 게 하나도 없어.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노래할때 노래하고

즐길땐 즐기며

괴롭히지 말고 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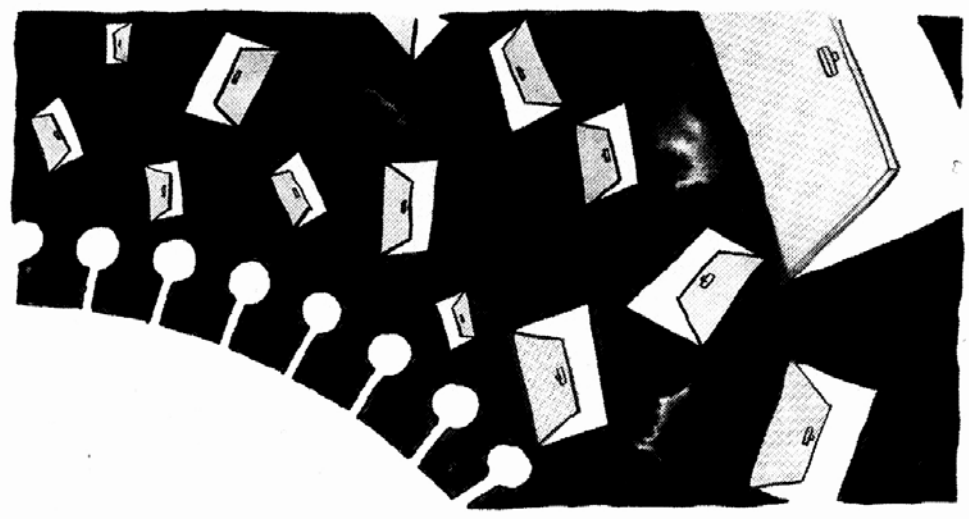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도 에너지를 만들어서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뽑아 쓰기만 하거든요. 뽑아 쓰는데도 그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야만 저장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내내 써도 모자라지 않게 쓸 수 있는가 그것들을 모르는거야. 무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야. 정신 세계를 모르고 물질 세계만 알기 때문에 물질로만 보고 듣고 사니깐 말이야.

이게 참, 자기가 자기를 수련한다 이런 것이 요만한 거 하나 하나가 전부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들 사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사람들이 다 모르고 미련해서 쉽게 살지를 못해요. 그냥 실이 헝클어져서 집안이 환란이 나도 그거 하나를 제대로 풀지 못해. 그런데 그걸 풀려고 기도 드리고 정성 드리고 그러는데 그걸 정성 드리고 기도 드린다고 풀어져 그것이 펴지죠? 그거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쉽게 살지 못하고 이 고리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아니 모습을 바꿀 수가 없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다면 길을 가다가 좀 쉬고 가야겠다 하면 그대로 생각으로 만들어서 집을 짓고 쉬고, 좀 놀고 가야겠다 하면 정원을 만들어서 놀고 가고 이렇게 자유스러운 거야. 그러니 무슨 먹고 산다 이런 것이 하나도 걱정 되는게 없어.

그리고 사람 사는데 뭐 물이 나빠서 병이 생긴다 이런 것도 생기지도 않고, 모든 게 그냥 깨끗하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쓰면 에너지가 그대로 채워지고, 허공이 전부 에너지니까, 바람으로도 쓸 수 있지. 그러니까 공기가 있어야 산다는 거는 없어. 내가 거짓 하는 걸로 알지 말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살면서 공부를 열심히. 아니 하나 마- 자기 뿌리가 자기한테 있는 건 사실이니깐 믿고 그렇게 생활을 해봐라 이거야. 편리하게 살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거야.

어떤 집에 들어가면 잘 살게 된다 못 살게 된다 이런 것도 있죠. 그것도 하나하나 고통스럽게 사는 게 모두 관습이에요. 어떤 집에 가니까 영계가 있어서 못 살게 되고 쫓겨나간다 이러는데 사람이 살아가지고 왜 죽은 사람한테 쫓겨나갑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은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도와주지. 그래서 흉가집이라도 어떤 사람은 망하고 죽어서 되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아주 잘 되더라는 얘기야. 그것도 생각하기에 달린 거거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달렸다고 하지만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대로 남을 해롭게 하지 말고 섭섭하게 하지 말고 그런 과정을 항상 거쳐야 된다. 그런 과정이 아니면 보살행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보살행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런 차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 즉 부처의 도량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게 자유스럽게 살아보면 세상에 모습도 별 모습으로 다 할래도 할 수 있고 이 모습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 모습으로 하고, 저 모습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저 모습으로 하고, 또 남자로 하려면 남자로 하고 또 여자로 하려면 여자로 하고, 애로 하려면 애로 하고 늙은이로 하려면 늙은이로 하고 무엇이든 내 맘대로 자유롭단 얘깁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있는데 하도 그냥 집에서는 부모들한테 들볶이고 그냥 가난하고 세상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루는 막걸리를 실컷 마시고는 집에를 간다고 산등성이를 넘었어. 산등성이를 비틀거리고 넘어가니깐 오두막집이 하나 있어. 그런데 어떤 노인이 나와서 술 취한 사람이 어딜 가나 그러구선 밥과 국을 갖다 주고 그래서 먹었는데 정신을 차려서 깨어보니깐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지. 아무 것도 없고 노인을 닮은 근사하게 생긴 비석만 있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깐 그 비석이 그런게 아니라 거기도 그런 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돈 한 꾸러미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생각을 잘해봐 하니까 돈 한 꾸러미를 가지고 집에 와서 그 길로부터 잘 살았대. 이 세상에는 그냥 거저도 없거니와 나무에고 돈이고 어디고 다 계시다는 거지. 돌에도 석신이 있고 나무에도 목신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써라 이거야. 마음을 나쁘게 쓰든 마음을 좋게 잘 쓰든 길을 지나가는 도중에도 그 마음을 보거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면 다른 사람도 보게 되거든. 다 그걸 알게 돼. 그러기 때문에 나쁘게 될 일이 있어도 도와서 나쁘지 않게 되게끔 하지.

또 인연의 소치로 인해서 나쁜 인연이 만나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인연을 다 이렇게 펴서 악한 인연도 한데로 모으고, 또 좋은 사람도 전자에 지어놓았던 인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거를 다 펴서 둘 아니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웅졸하고 생각이 그렇게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생각이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잘못 가는지 잘 가는지 그걸 모르니까 주인공에다가 '너만이 잘 가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그냥 거기다가 맡겨서 다니면 편안하잖아, 아주. 걸음을 못 걸을까봐 애를 쓰지도 않고 길을 잘 못 들까봐 애를 쓰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깐 여러분은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야 할테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늙어서 인제 다 죽게 됐는데 뭐 아무렇게나 하면 어떠냐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거든. 늙으면 벌써 젊어서 나오는 게 가깝게 됐다 이거거든. 우리 같은 사람은 모두 나가 여럿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습이라도 나로 만들어놓고 나가 된다면 진짜 내가 또 둘이 아니게끔 할 수 있으니까 일들은 저절로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인연을 받고 세세생생을 산다면 세세생생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걸 활활 털고 한번 가면 그대로 이건 사는 거 죽는 거 없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 시대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것은 진짜 인간을 만들기 위한 공장이야.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속에서 사람이 또 나와야 돼. 그래서 생사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여러분한테 가끔 이런 말 하죠. 짜장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맛도 모르고 그 짜장면을 찾을 줄도 모른다. 그런데 전자에 먹어본 사람은 그 맛도 잘 알고 지금 짜장면 맛도 알고 필요할 땐 찾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아예 그 짜장면은 뭐야 하고 묻겠죠.

이렇게 짜장면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도 많아요. 어떤 판단을 할 때 기준을 보면 자기가 살아오던 습관대로, 이사 가는데도 뭐를 보고 뭐를 하고 이렇게 사사건건 이유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머리 속에 다 쌓여가지고 도무지 이건 신선할 수도 없고 쉽게 사는 도리를 도무지 모른다고.

중국에 방거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날 임종이 다가오자 딸 영조에게 밖에 나가서 해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고 한낮이 되거든 일러달라고 말했죠. 그랬는데 그 딸이 아버지가 먼저 가려고 하는 걸 눈치채고 아버지를 밖에 나오게 만들고서는 자기가 먼저 아버지 자리에 앉아 슬그머니 가버렸어요. 그러니 기가 막힌 방거사도 따라서 가고 이 소식을 들은 아들도 일하던 쟁기질을 멈추고 선 채로 숨을 거두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갔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거짓이라는 건 없다 이거야. 그 방거사는 누가 노비를 얻으러 오면 노비 주지마라, 어디를 갈려고 노비를 찾느냐 이거야. 항상 가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노비를 어디다 쓸려고 노비를 달래느냐 이거지. 우리가 소꿉장난하다가 해가 지고 어두우면 전부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 그런 거지.

영화배우가 영화를 만들어도 진실처럼 하죠. 진실로 하지 않으면 남이 봐주질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영화배우들 같거든. 자기가 갈 데가 있고 자기가 살 데가 있고, 거기의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알면 편안하게 그냥 살텐데 그게 아니니깐 아등바등 허는 거 아냐. 아프면 죽을까봐 걱정. 또 죽으면 야단법석들을 하잖아. 잘 아는 사람은 죽었으면 아, 이 모습을 벗고 활활 털고 살아라 할텐데 말이야.

이런 얘기 있죠. 눈을 못 뜨는 어머니가 아들을 좇아가다가 개천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걸 어머니는 그냥 두고 어머니만 모시고 갔다구요. 어머니 모습은 그냥 두고 어머니만 모시고 갔다구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배우면 어머니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자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거든지 자기가 용도에 따라서 꼭 이 모습이 돼야 저 상대방이 편안하겠다 한다면 그냥 다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깐 댁에들 모습들은 혹시 아파서 죽든지 늙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진짜 당신 에너지의 뿌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의심나는 게 있으면 질문해요. 오래 간만에 또 이렇게 만났으니까.

청년들: 다 답변해 주셨습니다. 스님께서요.

스님: 그래. 지금 어떠한 지구가 돌아가든지 우주가 돌아가든지 그게 돌아가는데 에너지가 나오는 것도 한구멍에서 나오지 두 구멍도 아냐. 천차만별로 용도가 다르지만 나오기는 한군데서 나온단 얘기야. 쓰는 사람들이 용도가 이래야 되겠다 하면 그 용도가 바뀌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면 못 믿는 게 되니까 그냥 믿어라. 그냥 네 발과 같다. 네 발에도 눈이 있고 그 발도 천만 개가 될 수 있고 그 손도 천만 개가 될 수 있고 눈도 천만 개가 될 수 있고 이게 말로는 그거를 헤아릴 수가 없다. 손도 그렇게 많고 늘어가는대로 늘어가고 줄게 되면 줄고 그렇게 맘대로 하는 거니까 그 천이라고 하는 거는 천이 많다고 해서 천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늘천 하지. 그래서 이것이 전체에 너무 많으니까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천한 거야. 그래서 그런 숫자적인 천이 아니고 아예 숫자 없는 거를 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 숫자 없는 거를 천이라고 그랬다. 손도 천이요 눈도 천이요 발도 천이요.

그러니 어려웁게 이 공부를 할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노래할 땐 노래하고 즐길 땐 즐기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가정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또는 형제를 쉽게 살 수 있도록, 또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수련하는 거니까 진짜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고 또 자기 자신만 위해서가 아냐. 한가정에 자기가 하나가 된다 하면은 12대 종손이 아니라 13대 종손 까지도 건져 낼 수 있단 말이야.

꼭 여러분들 부탁해요. 꼭 요다음에도 우리가 다시 요다음에 만나게끔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했다 어느 정도 깨우치지 못했다 하더래도 만남이 꼭 있을 거예요. 지혜롭게 둥글게 집안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다들 건질 수 있는 거니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이거 잊지 말아요. 혼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몸속에도 다 자기 생명체들이 있어서 보살이 된다는 것을요. 알았죠? 감사해요.

※위 법문은 1999년 12월 5일 한마음선원 청년연합회 법회때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환 풀려면 기도대신 근본자리 놓아야
사는게 마음조화이니 마음을 잘 쓰세요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암, 간경화 완치 조건
http://www.no3medical.co.kr
전이된암, 만성신장병
성인병, 원인모를병
치료후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일천만원) 드립니다.
032)3478-119~8/011)559-811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400-3 동우B/D 405호
의 단 원

강좌

남 녀 비구 비구니 **철학원생 모집**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운명에 있다.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다.
오복은 이것을 잘 분석하는
진정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
사주 작명 관상 풍수부적
귀 달 마 사 포 교 원
02)999-4804/02)999-5551
02)921-4804/02)928-5551
051)418-4804
달마 스님

찬불가 피아노 렛슨
前 신라 · 워커힐 방송피아니스트
찬불가, 가요, 가곡, 팝송을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 3개월 완성
⊙찬불가 합창 반주자반
⊙프로연주반 - 전공자 중심 렛슨
02)824-3517 (서울)
011)742-1999
※관현악, 국악, 성악, 출장연주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기초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강사: 엄윤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회선 선생, 전종남 선생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258212) 전 종 남
▶문의: 02)752-9013~4, 지하철 서울역③번출구
20년전통 **청운역리학원**

수맥찾기
무/료/강/좌
매주 목요일 14시
수맥파의 영향은 동절기에
더욱더 많이 받습니다.
※ 수맥강좌 상담 ※
대봉기살림
02)734-2118/011)239-6817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출가상담 ※
(수강료:월 10만원)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구인구직

기도스님 모십니다
충북 영동
중 화 사
0414)742-2057
(비구)
※연령 제한없음

사찰 걸립할 터를 시주할 신심있는 불자를 찾습니다
011)
9027-8207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은평구 음암동
관음사
02)
359-7317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454)942-6742
0454)942-591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32)868-2989

기도스님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십시오.
(비구니)
011)337-5038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50대~60대)
정토사
양평군 양동면
0338)771-8209
0338)771-8010

공 채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고졸이상
35세~55세
10시~17시 근무
02)766-0057
02)3675-0397

불교용품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원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기타

건강에의 신비!
춘천 玉山家 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건강상태에 따라육제종과 사용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대일광업 서울 玉山家 (02)-777-0105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물상 (특수물 청동물 옥불)개금, 명화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해드립니다.
천불조성전문, 출장상담 환영합니다.
한국불교 미술 연구원 반야마을
작업장 (공장)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673-1
0523)375-7078/051)753-8199(야)
011)521-4085 / 011)554-0131

체탈 도첩공고
아래 승려는 99년 12월 17일자로 여래종 종도자격 및 사제의 연을 탈제하며 체탈도첩함을 공고함.
◇법명 : 宜璨(慧璨) ◇성명 : 신동용(申東龍)
◇승적번호 : 97-0029 ◇사찰명 : 부천 세웅사
은계사 여래종 종정 인 왕
한국불교여래종 호법원장 김법우

인적이 드문 토굴 무상으로 보시하실 분 찾습니다.
남은 여생을 조용한 산사에서 스님과 함께 지내실 보살님이나 처사님 연락 바랍니다.
0343)459-4168
017)337-4168

사찰안내

포교원 안내
◆위치 : 천안
◇부지 : 80평 ◇법당 : 12평
◇요사채: 20평
◇가액 : 6천 5백만원
◇강능고찰터 1천평(3천5백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723-4082/733-0108
광진불사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법당시설(장엄, 탁자, 원목)
◆삼존불 안치, 음향시설완비
◆실평수 : 40평
◆법당, 큰방 1개, 작은방 2개
◆포교최적지(도로인근지역)
◆가액 : 완전인수가 3천5백만원
011)9503-0577

포교당 안내
◆위치 : 충남 대전시
◆평수 : 40평
◆방 2개, 주방1,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칠성,산신탱화
◆가격 : 전세2300만원 시설비
◆즉시법회가능
019)211-8533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법당 : 59평
◇요사 : 18평
◇부지 : 22평
◇가액 : 2억 7천
●포교당 부산, 법당 25평, 요사 55평, 가액 8000/80, 옥상사용가 60평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998-1994
청송기획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성당시장 사거리
◆가액 : 보증금 2,000만원(월 30만) 시설비 1,000만원
◆시설: 관음보살(동불), 인등(400), 본존, 신중, 칠성, 지장, 나반 및 산신탱화예불종등 의식용품 일체
◆법당(30평) 요사(26평) 전화, 팩스, 대형냉장고등 사정상 급매(스님 직접 상담)
02)493-7603 / 011)271-7603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중동
◆ 평수 : 70평(5층)
◆ 시설은 특A급
◆ 가액 : 2천 7백만원
(보증금 시설비 포함)
011)9750-4075

포교원 안내
◆위치: 울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앞 2500세대
◆평수: 30평
◆가액: 전세2,500만원(월세가능)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52) 245-6689
011)9576-6338

포교원 안내
(사찰 운영관계로 사정상 급매)
◆위치 :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평수 : - 39평 3층 요사채 방 3개, 거실, 욕실, 주방, 최신설비
- 38평 4층 법당, 주지실, 상담실, 욕실
◆가격 : 1천만원 - 월 100만원
(월세만도 가능함)
시설완벽, 신도확보, 교통, 시장 편리함
0343)469-1562,443-9733
016)363-1562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건물 : 1층
◆요사채 : 21평, 주방 : 10평,
법당 : 21평(2층)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시설 완벽함
◆가액 : 전세 6천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사찰 안내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전철역서 200m 거리)
◆대지 55평, 건물 : 2층
법당 40평, 1층 요사 40평
◆도심포교 최적지
◆시설 최고A급
◆가액: 3억 2천만원
▶ 전국 사찰이나 암자를 양도 양수 하실분 찾습니다 ▶전화상담시 보안유지합
018)273-9390
02)561-7791

불사할 암자(터) 안내
◆위치 : 경남 삼천포 와룡산
◆면적 : 임야 4,445평(밭 2천평 경작중)
◆건물 : 2동 80평(임시법당, 17평, 방8, 욕실, 실내화장실 3, 큰거실, 공양칸)
◆가액: 2억 2천
(평당 약 5만원 - 절충가)
◆주위 조경 · 경치 정말 수려, 트럭도 진입가능
0591)746-2478/011)830-2880

사찰정보센타
◆ 절 암자 양도 · 양수하실 분
◆ 사찰용역, 모든 중재
도움 드리겠습니다.
◆ 경북 김천, 강충우
0547)430-5585
016)523-0878

지리산 계곡(토굴터)
◆ 위치 : 경남 함양군 추천면 남호리 1012번지
◆ 현재 휴경지(논, 준농림지) 509평
◆ 가액: 매가 3천만원
◆ 계곡 옆 남향
◆ 함양읍 또는 생초 I.C → 남호리 소재→ 한남 마을옆 장터목 산장에서 산길로 1.5km(장토목 산장에 문의)
011)9542-9060

사찰 (급)안내
◆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7)430-9051

사찰 안내
◆위치: 경남 양산시 중부동 74
개원사
◆대지: 84평, 법당: 10평,
아랫채 8평, 산신각 5평, 창고 7평
◆가액: 9,000만원
0523)385-0854
017)573-0854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포천군 소재
◆ 대지 600평, 법당 30평,
요사 60평
◆ 산속 기도도량임
◆ 산으로 둘러쌓여 있음
◆ 전세가액 : 6천 5백만원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분당 수지지구
(대단위 Apt인접지구)
◆대지 : 200평, 건물 : 3층법당 40평,
2층 요사 40평, 1층 요사 40평,
반지하층 대중식당 40평 → 합 160평
◆현대식 골조건물로 도심포교사찰로 건립되었음
◆외부 · 내부시설 A급→모든 시설 완벽
◆가액 : 5억 8천만원
(대지가액으로 양도함)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괴산군 소재
◆대지 500평, 田 1,400평
합 1,900평
◆법당 30평, 요사 30평(벽돌집)
◆주지실 15평(벽돌집)
◆산세 좋으며, 기도 및 정진 암자로서 최고임
◆가액: 1억 7천만원
018)273-9390
02)561-7791

사찰(급) 안내
◆위치: 충남 청양
◆대지 735평, 법당 20평,
요사2채(30평, 10평)
◆양어장 10평, 유실수 약간
◆유학관계로 저렴하게 양도할 예정임.
◆답사후 가격 결정
019)408-5264
0454)943-7761

사찰 안내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단위 Apt 단지 인접지역임)
◆ 대지 150평, 3층법당 40평,
2층 요사 50평, 1층 요사 50평
◆ 대로변 인접, 도심포교원으로서 최적임 ◆ 최신 시설완벽
◆가액 : 4억 7천만원
018)273-9390
02)561-7791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천시 송내동
◆평수 : 3층 - 24평
◆가격 : 보증금 5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반액 600만원
◆주방 1, 방1, 삼존불, 신중탱화, 보일러시설 완비
032)654-5859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익산 시내권
(시내서 5분~10분거리)
◆ 법당 20평, 요사 50평,
강당 40평, 땅이 국유지
◆ 가액 : 7천만원
0653)856-6413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35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80평 방8개 주방2개 지하20평, 명부전10평 단청필 주지실 12평
◆ 건물 완공은 3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만원
◆총 공사비가 12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사찰 안내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전철역서 200m 거리)
◆대지 55평, 건물 : 2층
법당 40평, 1층 요사 40평
◆도심포교 최적지
◆시설 최고A급
◆가액: 3억 2천만원
▶ 전국 사찰이나 암자를 양도 양수 하실분 찾습니다 ▶전화상담시 보안유지합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단위 Apt 단지 인접지역임)
◆ 대지 150평, 3층 법당 40평,
2층 요사 50평, 1층 요사 50평
◆ 대로변 인접, 도심포교원으로서 최적임 ◆ 최신 시설완벽
◆가액 : 4억 7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괴산군 소재
◆대지 500평, 田 1,400평
합 1,900평
◆법당 30평, 요사 30평(벽돌집)
◆주지실 15평(벽돌집)
◆산세 좋으며, 기도 및 정진 암자로서 최고임
◆가액: 1억 7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포천군 소재
◆ 대지 600평, 법당 30평,
요사 60평
◆ 산속 기도도량임
◆ 산으로 둘러쌓여 있음
◆ 전세가액 : 6천 5백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분당 수지지구
(대단위 Apt인접지구)
◆대지 : 200평, 건물 : 3층법당 40평,
2층 요사 40평, 1층 요사 40평,
반지하층 대중식당 40평 → 합 160평
◆현대식 골조건물로 도심포교사찰로 건립되었음
◆외부 · 내부시설 A급→모든 시설 완벽
◆가액 : 5억 8천만원
(대지가액으로 양도함)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법당 2층 60평
(삼존불, 후불탱화)
◆ 법당 30평, 방5개, 주방 1
◆ 가액 : 전세 3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약간
051)294-0828
011)551-1719

사찰(급) 안내
◆ 위치 : 구리시내 중심가
◆ 법당 : 50평
◆ 요사채 : 50평
◆ 가격 : 1억 5천만원
◆ 현재 포교당 운영중
0346)557-2266~7

불자 세상보기



◇20여 어린 생명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는 우리사회에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뿌리깊이 배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사진은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 유족들.



◇IMF이후 사회이슈로 떠오른 노숙자 문제. 사회 한편에서는 과소비와 무절제한 향락에 빠져들고 있는데 노숙자 수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사진은 급식을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노숙자 행렬.

잇단 화재참사…옷로비사건…얇아진 중산층…불법도청…

"한국의 세기말 불행했었다"

불교계 사회계몽 공식기구 만들어야

"한 번 잘못을 저지르고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악인과 다를 바 없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올 한해 우리사회를 돌아보면 국민 모두를 실망과 좌절에 빠뜨렸던 사건들이 하나같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고, 반복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왕따문제로 시작된 교육현장의 신음은 급기야 교실이 무너지는 중병으로 치달았고,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와 같은 '청소년 교육부재'라는 '사망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씨랜드 화재참사를 당하고서도 아무런 대책없이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를 부른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기성세대의 무책임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수해도 마찬가지다. 해마다 겪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애꿎은 국민들만 희생당했다.

옷로비 의혹사건이나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뇌물을 많이 주는 국가로 선정된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불법도청 등의 사생활 침해도 사회 이슈로 떠올랐었다.

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과 과소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을 한꺼번에 접하면서 말 그대로 '무너진 중산층'들은 불공평한 세상을 탓하는 처지가 됐고 늘어난 노숙자들은 우리사회의 아픈 모습을 그대로 비췄다. 그러나 민생을 돌보기는 커녕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싸움에만 열을 올리는 정치권의 추악한 모습은 국민들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이 모두는 따지고 보면 정부의 정책부재나 무책임,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6가족이 릴레이로 신장을 기증한 일이나 90살 노인이 36억이라는 거금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일, 어느 교사가 월급을 쪼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남몰래 도운 일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듯 올 한해를 보냈다.

이와 함께 복제양을 태동시킨 생명공학의 인간존엄성 파괴나 다이옥신 파동, 유전자 조작식품, 사형제도 폐지 등은 새 천년을 앞둔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거리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사회상황 속에서 불교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수해 때 자원봉사활동을 펼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어느때 보다도 커지고 있는 요즘 불교는 거꾸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의 발달로 비롯되는 문제들이나 사형제도 폐지 논란 등 종교의 가르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수승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불교는 그 가르침을 제시하지 못했다.

〈잡아함경〉에 "가장 훌륭하게 남을 위해 이익을 주는 일은 올바른 지혜로 이끌어들이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이제는 불교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법에 기초해 적극적으로 정도(正道)를 제시,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국토를 구현하는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교리연구 및 해석과 공식적인 논의구조 및 기구가 필요하다.

20여년간 복지활동을 펼쳐온 성운스님(삼천사 주지)은 "불교도 이제는 사회현상에 대해 전진적인 사고로 임해야 한다"며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문제를 연구하는 사회문제연구소와 같은 기구를 각 종단마다 설치하고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교계 재야단체의 한 불자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고작 성명서 하나 내는 정도가 불교단체들의 사회적 역할이었다"고 꼬집고 "재가연대를 비롯한 각급 재야단체 및 신행단체들도 사회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하며, 불자들과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시론

새천년 북새통

법연스님 〈장춘사 주지〉

아니나 다를까. 벽에 걸린 흡옷같은 달력을 보니 어둠이 심한 산중 절 방안만큼이나 춥고 어깨뼈가 시려오지 않을 수 없겠다. 세모, 한 해의 해 저물녘. 설령 하루를 막음해도 저녁무렵 어스름과 함께 수선스러울 터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는 세모 즈음에서야. 그래도 올해는 한 세기를 막음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는 벅찬 감회일터라.

밤 아홉시 텔레비전 뉴스 시간 때면 알뜰하게 새 천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꼬박꼬박 챙겨 확인시켜 주곤 하여 '새 천년의 의미가 그만큼 대단한가 보다'라는 생각에 어리둥절하면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런 새 천년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바보스러워 보이기도 하다. 평소에 사람들의 심사를 긁는 텔레비젼의 짓이겠거니 하고 접고 말았다. 그런데 어제는 우체국에 일이 있어 면소재지에 내려가서야 새 천년 맞이가 온나라 사람들의 이구동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 그냥 한해 갈뿐인데 세상이 너무 떠들썩 왠지 뒤틀리는 심사

가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면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수에 비해 좀 크다 싶은 건물의 슈퍼마켓에는 처마에서 벽면까지 새 천년을 맞이하는 세일이라고 쓴 종이들이 만국기처럼 펄럭거리고, 면사무소 길 건너 맞은 편에 세워진 사다리 꼴의 철재 광고대에는 겨울 바람에 한껏 배불러 나부끼고 있는 플랭카드 천 조각에 쓰여진 내용들도 새 천년과 무관하지 않은 상술과 알림들이 일색이다.

시골이라고 해서 도시 것들이 몇달 전부터 주야장천 외쳐대는 새 천년 맞이의 흥을 돋구지 말란 법도 없고 그런 헛춤같은 흥마저 없다면 한산한 면소재지 길들이 얼마나 황량할 것이며 사람들의 생활들은 또 얼마나 고단하겠나 싶어 고개가 숙여지기도 한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면 과연 어떻다는 것인지 온 나라가 새 천년 맞이에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판국에 새 천년을 맞을 준비도 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겨울 산자락에 마른 덤불같은 이들에게는 온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에 부푼 계획들은 그야말로 매서운 북풍에 다름 아니겠다.

끼니 걱정을 해야하는 이웃들에게,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들에게 새 천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외롭고 소외되고 불우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될때 그때 '새'라는 말을 붙여도 될 것이다.

나 역시 다른 송년즈음에 하듯이 덕담과 유정의 맘을 가지고 보내는 해에는 말 할 나위 없지만 오는 새 천년에 박수와 기대를 보내는 이들에게 손뼉 한 번 보내지 못할망정 뒤틀린 심사에 행패나 부리고 있으니 말이다. 그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신영복 선생의 글 한쪽 읊조리며 털어야지 싶다.

해마다 거리낌 없이 가지를 뻗은 나무는 긴 가지 넓은 잎사귀를 키워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뻗다가 잘리고 뻗다가 잘리는 나무는 가지도 안으로 뻗고 가시도 안으로 세우는 '서슬푸른 솔잎파리' 새하얀 꽃의 탱자나무 울타리가 됩니다.

"길가는 사람들은 마음씨 상냥했어요…"

소년을 위해서 걸음을 멈추고 탱자나무 가슴을 열어 주었습니다. 활엽수의 시원함과 탱자나무 울타리의 튼튼함을 아울러 가지려는 것은 아직도 욕심으로 인생을 보는 어린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얼음 시름 안풀려도 강물은 흐르고 동지 팥죽 안먹어도 나이 한 살 더 먹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또 새로이 맞이할 때에는 세월의 흔적이 자기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먼저 묻고, 그것에 걸맞는 열매를 키워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4개 광역권개발 74조원 투입
농어촌 부채경감 특별법 등

좋은소리 못듣는 총선 善心정책

부처님께서는 바른 정치란 곧 '정법'을 펴는 것임을 설하셨다. 그리고 모든 정치행위는 국민의 복리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하지만 요즘의 정치현실은 이런 부처님의 법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선심경쟁에 나선 것이 그렇다. 특히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이 내놓는 선심정책은 '한심한 작태'로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다. 그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원칙도 무시한 채 오직 '표'만을 의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4대 광역권 개발에 74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나, 농협 정책대출금리를 5%에서 3%로 낮춰주는 내용의 '농어촌 부채경감 특별법' 등은 현실성을 완전히 무시한 '표몰이'의 산물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나중에 되돌아올 경제적 여파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자리보전'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선거만 끝나면 물가가 턱없이 치솟고 실업률 또한 급증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선거철 경제의 거품만 부풀렸던 선심정책이 과연 우리 경제와 삶에 어떤 악영향을 끼쳐왔는지 냉정히 판단해야 할 때다.

올 교통사고 사상자 사상최대 66만명 예상

7년만에 다시 세계1위 '치욕'

인구 60만명의 청주나 전주 시민들이 일년동안 모두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는다면? 하지만 이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올들어 9월말까지 자동차보험 사고를 분석하고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교통사고로 49만8천9백6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교통사고 사상자인 66만여명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92년에 이어 7년만에 또다시 교통사고 세계 1위의 '치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교통전문가들은 '지정차로제' 폐지, 제한속도 상향조정 정책 등으로 난폭운전이 증가한데다, 교통사고가 증가함에도 경찰 단속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주된 원인은 역시 교통법규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민의식에 있다.

불교에서 계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자신을 가다듬기 위함이다. 사회질서도 마찬가지다. 사회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다. 미진한 교통정책은 다시 보완해야 하겠지만 아무리 좋은 법제도가 있다해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교통사고 세계 1위의 불명예를 떨칠 수 있다.

광운불교대학 제 4기
신입생 및 경전반 모집 안내

신입생 모집안내
■ 학과목 안내
기초교리(불교학 개론)
불교역사
(인도·중국·한국불교사)
천수경·반야심경·부처님 일대기
사찰과 불자의 예절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1월 31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등록금
1년(교재비포함)-오만원(₩50,000)
■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
· 체계적인 교리 공부,
바른 신행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 조교활동에 뜻이 있으신 분

경전반 모집안내
■ 학과목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강좌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1월 31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등록금
1년(교재비포함)-오만원(₩50,000)
■ 자격
· 광운불교대학(기초교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

문의 사무국 (02)389-8966
FAX (02)387-8529

광운정사 (광운포교원)
서울 은평구 불광3동 484-78

졸탁동시

용맹정진 업장소멸 오직 이 길뿐!

◈철야용맹정진. 불자기본수행법교육 : 매주토요일 저녁 7시에서 일요일 아침 7시까지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덕대지 않으며 힘들지 않고 저절로 숫자 헤아려지는 완벽한 방법
◈석가모니불 염불법 : 자동으로 염불이 이어져 빠른 시일에 염불삼매 이루어 화두 참선할 수 있는 상근기 되는법
◈한글 금강경 봉독법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율로 힘차고 박력있고 리드미컬하며 신명나는 독경으로 중단전 챠크라가 열려 감정통제가 자유로워지며 가슴에 맺힌 한이 홧병이 절로 녹는 신심이 절로 나는 법
◈와선 호흡법(1,2) 행선염불, 선체조 도인건강법(33) : 상키되어 피곤하고 머리 무겁고 열나며 첨은 마르고 입술타며 눈은 충혈되고 손, 발, 배, 허리, 무릎 차거워도 30분 정도 수행하면 쉽게 극복되는 심신건강법
◈업장소멸용맹정진. 특별소원성취기도 : 하루종일 쉬지 않고 호흡에 맞춰 절하며 참회와 감사수행으로 업장은 소멸되고 소원은 이뤄지는 환희로운 벅찬 감동의 처음 공개되는 기도비법.

※철야정진 동참불자의 도움으로 소리산 16만평의 청정도량에 수행교육과 용맹정진 할 수 있는 법당 88평, 요사 80평 건축불사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38)771-7745
(011)9088-7745

發願已歸命禮三寶「새천년 불국토」

2000年 新年特輯新聞 廣告案內

귀의 삼보하옵니다.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을 관심있게 지켜보아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본지는 정성을 다해 2000년 신년특집신문을 꾸미고저 합니다.
모두가 무루 동참하시어 하나되는 불교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천년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하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새천년 신년축하 광고
규격 및 단가 : 5단 × 37cm - 80만원
5단 × 18cm - 40만원
5단 × 9cm - 20만원
7cm × 6cm - 10만원
제 작 일 : 99년 12월 24일(금)
제 작 면 수 : 28면 합쇄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사 광고부
전화 02)737-8881 (대표)
02)732-1522 (직통)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현대불교 · 생명나눔회 공동캠페인

자비 나눠 더불어 사는 정토 열었다

'99 결산 - 전문가 좌담회

장기기증 활성화와 장례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생명나눔실천회와 현대불교 신문이 올 한해동안 25차례 각 사찰과 단체를 순회하며 펼친 캠페인에서는 2천5백여명이 장기기증을 신청하고 6천2백여명이 화장유언에 서약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캠페인의 효율성 제고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겼다. 이에 그동안의 활동을 점검해 보고 향후의 발전적인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 9일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는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법장스님(수덕사 주지)과 고려대 의대교수 서영석 교수, 그리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과 수년간 방송을 통해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였던 KBS 라디오 유혜선 아나운서가 참석하고 본지 편집국 위영란 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석자
- 법 장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수덕사 주지
- 서영석 고려대 의대교수
- 유혜선 KBS라디오 아나운서

사회=위영란 부장



◇좌담회 참석자들은 생활불교를 통해 장기기증과 화장문화를 실천할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 장스님 "장기기증은 나를 비우고 집착 벗는길"



서영석교수 "시신기증도 삶을 나누는 숭고한 일"



유혜선씨 "종교계·언론서 화장문화 정착 앞장서야"

▲사회:이런 캠페인이 교계에서는 처음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장기기증과 화장문화에 대한 불자들과 일반의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기기증과 화장문화가 갖는 불교적 의미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장:불교적 관점에서 장기기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동체대비사상'의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모두가 하나의 개체이지만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불교사상과 다름이 없고, 이것이야말로 내 스스로의 육신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체 삶에서 준다는 것은 곧 내게로 오는 것을 의미하고, 기증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영석:장기기증은 삶을 직접적으로 나눌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시신기증도 간접적으로는 삶을 나누는 일이라고 봅니다. 장차 생명을 다룰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시신기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신기증도 종교단체를 제외하면 거의 드문 편인데, 그런 차원에서 불교계에서 벌인 이런 캠페인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유혜선:불교계에서 장기기증과 화장유언 캠페인을 벌였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는 느낌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비교해서 안됐지만 지금처럼 뒤따라가는 형태로서는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도 힘듭니다. 일반인들도 아직 생명나눔실천회가 하는 일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큰스님들이 같이 동참하면 불교신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따를텐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지만 이런 일은 집착없이는 안됩니다.

▲사회:유혜선씨 말대로 아직 불교계는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홍보에 주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불교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이 확산됐고 이제는 실천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장:현대불교신문과 벌인 올 한해동안의 캠페인은 불자들에게 불교계에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도 공헌했다고 봅니다.

사실 장기기증이나 화장유언은 깨달음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버릴 때 전체를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며, 이런 사상을 접목시킨다면 머지 않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불과 5년전과 비교해도 피부로 느껴질 만큼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서영석:그렇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이념적 틀을 하나로 통합해야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유혜선:신장이 나빠 투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장기기증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효과적으로 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법장:두 분 말대로 장기기증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곳이 종교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스컴은 장려해주고요.

▲사회:장기기증을 하면 몸에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학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 싶은데요.

▲서영석: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사상이 얼마나 과학적이었습니까. 모든 종교단체에서 몸에 해로운 장기기증을 속이면서 권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올해 장기기증 2천5백명 화장 6천2백명 서약
보살정신 확산 한몫…프로그램 다양화 과제

▲유혜선:동감입니다. 5년전과 비교하면 일반인들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장기기증의 필요성이 생각보다 많이 확산돼 있습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장기기증운동을 편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계도 방송계도 캠페인을 벌일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불교와 기독교, 가톨릭 등 종교단체들이 힘을 모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불교도 화장문화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화장을 가장 많이 하는 쪽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아직 불교계에 이런 문화가 널리 퍼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혜선:종교단체에서 불꽃을 일으켜 준다면 방송도 얼마든지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과 연계해 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법장:법적·사회적 장치도 잘 마련돼 있어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이미 입법예고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장기기증이나 화장에 대해 '아, 해야 하는 것이구나'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제도와 사회분위기도 성숙돼 있는만큼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혜선:말씀대로 인식전환은 어느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체적 실천방법이 문제인데요. 이 몫을 종교계가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장기기증을 하고 싶어도 두려움이 앞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종교의 힘으로 감싸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장: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만이 "장기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화장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유교문화의 영향을 들수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육신을 부모님의 분신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본래 육신을 지수화풍(地水火風) 4대가 모여서 된 것으로,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유교사상때문에 이런 불교사상이 아직까지 통하지 않고 있는거죠.

▲서영석:그래도 장기기증이나 화장문화를 선도하는데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종교간에 서로 뜻을 모아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법장스님:장기기증은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일이고 이런 발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흔히 선사상을 21세기의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현되려면 먼저 자기를 비울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선사상이 널리 퍼지면 모두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장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매장을 선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리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에도 화장이 편리하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해요.

▲유혜선:불교는 전통적으로 수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고 교리에 맞는다면 끌어들여야 합니다. 새시대의 변화흐름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교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강조만 했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반대로 기독교는 원하는 바에 맞춰 힘을 모을 줄 압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바로 '힘'이 되는 게 아닐까요.

▲법장: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모든 일에는 사회적 프로그램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것에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유혜선:생명나눔실천회의 활동에는 기획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매우 수동적이었고요.

▲사회:캠페인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계속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춰 마지막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장:기획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자리이타'중 '자리'에만 비중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불교가 융성했을 때의 불교는 바로 생활불교였습니다. 현재의 불교는 생활불교나 사회불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활불교가 안되다보니 '이타'가 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더불어 사는 사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 속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토대 하에 앞으로도 장기기증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서영석:올해 우리나라도 뇌사입법이 이루어졌고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장기기증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적으로는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은 심장과 간장 등의 이식시술이 행해지고 있고 인체해부학용 시신기증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혜선:매스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봅니다. 특히 불교교리측면에서 장기기증이 사랑과 자비를 나누고 그래서 모든 중생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이 사회봉사 개념으로 인정받는 풍토를 불교계가 앞장서서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삼·부·농·산·은·유·기·재·배·약·초·만·을·생·산·하·고·있·습·니·다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황토삼백초 건초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게하거늘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 나도록 하였습니다.

삼백초의 놀라운 성분들

황 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大悟居士(김봉서 원장)

이런분들한테 좋습니다.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 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간이나 당뇨 혹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 도 좋습니다.

97.11.6 / 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삼부농산 SAM BU Far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불교계에 世界正法具現 설법카셋트 出現!!

■ **극락과 천국**
불교의 극락, 이슬람의 낙원, 기독교의 천국 중에서 필경 인류가 선택해야 할 영원한 생명의 파라다이스 우주 전 법계 최고의 유토피아는 어떤 것인가?

■ **기독교의 신은 있는가?**
성경과 그 논설을 근거로 이 나라 초유의 타교 뿌리 흔들기라고 할 세계 증교계를 진동시킬 슈퍼 강연 그 결론은?

이웃종교의 신! = 무신론주의 불교가 21세기 정법 세계화에 앞서 자체에 붙어 있는 비 불교적 요소들의 반성과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큰 과제!

이제 만종교의 추종을 불허하는 절대 정법교의 파사현정을 위한 세계 선언 카셋트 테이프가 마침내 나온것이다!!



이 두개의 카셋트테이프가 기독교계의 연말 연시를 꽁꽁 얼어붙게 할것인가? 아니면 온통 뒤집혀지게 할것인가?!

니이체는 신이 죽었다고 했으나 본인은 본래부터 없었다고 말한다. 그 까닭은 …?

피끓는 전국의 불자들이여! 과감히 일어서서 정법선양의 「부루나」가 되자!!

제 작 : 경남 밀양시 상랑진읍 임천리 18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밀양 미타회 지도법사 釋 法 吼
총판처 : 서울 송강기획 윤성수 ☎(02)745-6015 <두개 한세트 5,000원> 전국 불구서점에 있음
<단, 신도교육용으로 단체 주문시는 30세트이상이면 4,500, 50세트 이상이면 4,000원으로 해드리오니 농협 817-12-086193(임영진)으로 입금하시고 ☎(0527)351-2192로 주소, 성명을 전화하시면 보내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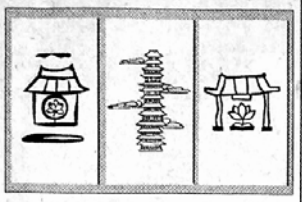
·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

마 하 몰
(http://www.mahamall .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몰.부다피아>는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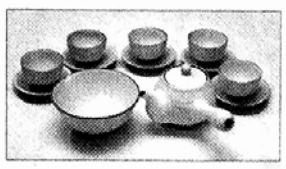
기도표

기장 84cm×폭 38cm/ 재질- 면 가격:₩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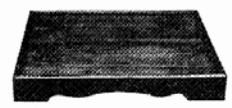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관음분청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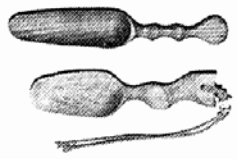
가격:₩495,000

고산다기

가격:₩120,000

찻 상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다기함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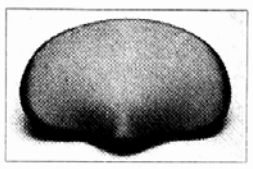
차 시

재질 - 참나무 고목 등
가격:₩15,000

불성차


가격:우전₩90,000 / 세작 ₩50,000
중작₩30,000 / 대작₩2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우스 X 4개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가격:₩27,000
· 실용신안:1998-05039
· 의장등록: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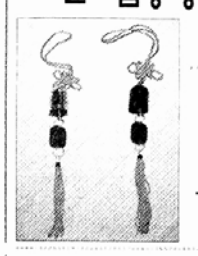
재질 금 · 류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반야심경 향로

(개장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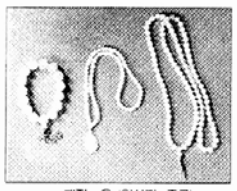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검정 · 금색
가격:₩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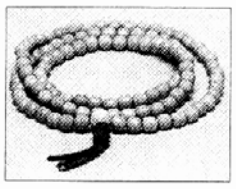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색상 검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건강 옥 염주

청옥 · 백옥(小) ₩30,000
청옥 · 백옥(大) ₩40,000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600,000

반야심경 지통

재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6cm×지름 20cm ₩140,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코팅 · 골동품 ₩350,000
■개금 ₩580,000

관음보살감로병

가격:₩500,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올바른 쇼핑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각 66분
■ 가격: 각 ₩25,000

불교의식에 쓰이는 범음범패집

불교의식의 유형중 천도재의식의 상주 권공재를 중심으로 진행절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행절차 순서는 시련, 대령, 관욕 및 신중작법, 상단권공, 관음시식에 이어 마지막으로 봉송의식으로 진행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봉송의식 (奉送儀式)

천도재에서 시련의식으로 소중히 모셔왔던 부처와 보살,영가를 다시 잘 가시도록 하는 의식으로 천도재의 다른 의식이 주로 의식승에 의해 행해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참여한 모든 대중이 다함께 이 의식에 참여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 절차로는 봉송 의식문을 법주가 독송하고 나면 의식에 참여하였던 대중은 법주의 뒤를 따라 법성게를 독송하면서 10바라밀의 방향으로 행렬을 지어돈다. 보례게,행기게 등을 독송하면서 꽃을 흩날리는 산화락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경 상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경상(經床) : 절에서 스님들이 불경을 얹어 놓고 읽는 데 사용하는 상

그 형태는 중국 당 · 송 시대의 제탁(祭卓) 양식에서 영향을 받아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상판(床板)의 양쪽은 두루마리형으로 말려 있고 호족형(虎足形) 네 다리에는 아름다운 운당초(雲唐草)나 죽절형(竹節形)의 조각 장식이 있다. 몸체에는 한두 개의 서랍이 달려 있고, 흔히 앞뒤에 안상문(眼象文)이나 여의두문(如意頭紋)이 음각되어 있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래된 것일수록 검벙 무쇠의 둥근 고리가 달려 있고 근래에 가까울수 달개지형 주석장식을 쓰고 있다.
불교가 융성하였던 고려시대에는 사찰의 필수품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형태가 아름다워 불교의 강력한 시주자였던 왕실과 귀족계층에서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부유한 양반계층의 사랑방에서 사용되었다.
고고한 사대부 선비들은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기어 과다한 장식이 곁들인 경상을 기피하였다. 의자생활을 하는 중국 경상의 높이는 둔탁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하여 조선조 경상의 형태는 좌식생활에서 오는 조형 감각에 맞게 높이가 낮고 소형이다. 말린 두루마리형의 좌우 변죽도 중국식에 비해 매우 경쾌하고 날렵해 세련미를 보여 준다.
경상의 변형으로 두루마리 상판(床板)에 곧은 다리를 가진 서안(書案) 형태도 있다.
대개 서랍이 하나씩 달려 있고 족판 너비가 상판 너비보다 좁은 것이 기본형이다.
서안형태의 경상은 상판 양쪽이 날렵하게 들린 형태를 들 수 있으며 두가지 방법으로 제작되며, 하나는 따로 재단된 두루마리 부분을 상판에서 낸 혀에 붙이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상판에 홈을 파서 이에 맞추는 방법이다.
재료는 소나무, 죽장(竹粧),오동나무, 피나무가 주로 쓰이지만 무늬가 아름답고 결이 고운 괴목이 제일 좋다. 이 박에 가문비나무. 산유자 나무가 단단하고 색이 좋아 많이 사용되었다.

달마순금판 액자

규격 27×33cm (대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556호
상반신 가격: ₩120,000

달마순금판 액자

규격 27×33cm (대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556호
전신 가격: ₩12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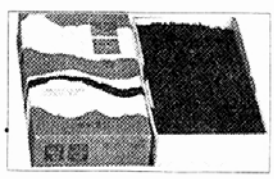
가격:₩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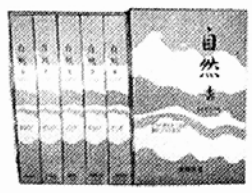
박범훈 작곡집 1(CD)

가격: ₩9,500

날개 CD

가격: ₩9,500

명품향

가격:₩12,000

자연향101

규격 26.5×16.5×6cm
가격: ₩10,000(개당 ₩2,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한국불교총람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연좌대불상 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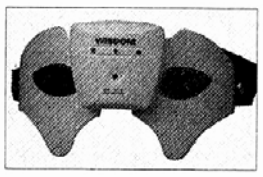
규격: 25×30cm 가격:₩100,000

석가모니 탄생관련 성품

성품내용 성엽(오색잎), 성토, 성수, 성주 (인증서 첨부) 가격:₩148,0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신년 연하장

잘됨 새천년 해를 지고가는 아이들

귀의 삼보하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후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謹賀新年

■가격: 5,000원 ■매수: 10매
■지상 혜안스님 작품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무궁한 부처님의 가피를 존경하는 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마음 가득한 불심", "온누리 가득한 자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불심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바로 그곳 인도의 불교성지(佛敎聖地)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직접 모셔온 이 성불 인사장으로 마음 아리도록 소중한 불들의 새 천년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그려진 보리수 잎은 그림과 같이 고급 색한지 위에 모셨고 본 보리수잎 성불인사장은 잎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우송용 봉투를 포함, 1매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장 한장 정성들여 만든 수공예 인사장 입니다.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밖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짓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참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풋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법회안내

대원사 점안법회



월운스님(동국역경원장)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문정동 대원사 큰스님 초청 봉불점안개원법회.(02)404-1374

'천수경의 세계' 설법



지묵스님(길상사 선원 유나) 26일 오전 10시 길상사 일요가족법회 '〈천수경〉의 세계' 주제법문.(02)3672-5945

12월 다보법회



원광스님(삼장불교문서포교원장) 22일 오후 2시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빌딩 3층 12월 다보법회.(02)703-0108

연홍사 초청설법



초펠스님(티벳승) 22일 오후 7시 대구 연홍사 동지맞이 초청법회.(053)311-9937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종교계 손잡고 이웃돕기

청주BBS, 불교·가톨릭·개신교 공동모금 생방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3개 종교간 대화합의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방송이 청주 성안길에서 펼쳐진다.

청주불교방송이 특집으로 마련하고 충북종교협의회 소속 각 종교 회원단체들과 회원들이 참가하는 '자비의 손길 사랑의 손길 '99불우이웃돕기 모금생방송'은 2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종교대화합의 합창공연 성금모금활동 등 현장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청주불방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모금행사 현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결하는 3원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특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동안 모금실황이 생중계 된다.

특히 불교 개신교 천주교 연합합창단이 화합의 노래를 부르는 합창제도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종교계 뿐만 아니라 새마을부녀회와 대한어머니회 등 여성단체와 청소년단체들도 함께 참여하는 등 각계각층이 모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기독교계 최대명절인 크리스마스 전날에 불교계가 마련한 특집프로그램에 가톨릭 개신교가 함께 어우러진 이번 종교화합 방송은 연말을 더욱 훈훈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는해 뜨는해' 7시간 철야 생방송

BBS 31일~1일, 송년특집

20세기 점검 21세기 진단

불교방송(사장 성낙승, 101.9Mhz)은 99년 마감 송년특집을 근세100년 결산과 함께 내보낸다. 7시간 생방송으로 31일 밤10시부터 1월1일 새벽5시까지 밀레니엄 특별생방송 '새천년 불교방송과 함께'를 방송한다. 서울 불교방송과 5개 지방사의 기동성있는 현장 목소리와 함께 전국 곳곳의 사찰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전달된다.

27일부터 송년무드를 잡아 31일까지 집중 방송하는 송년특집은 '아듀 1999' 1, 2부(07:00~10:00)' 와 '되돌아보는 한국불교'(17:10~18:00)로 나누어 진행된다. 20세기 한국사회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한국불교를 진단해 한세기 전반을 짚어볼수 있다. 불교방송 인기프로그램 퀴즈대장경(14:10~14:50)은 송년특집으로 '퀴즈로 풀어보는 불교100년'을 벌인다. 흥미로운 퀴즈 방식으로 100년간의 한국불교사를 훑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황청원의 '행복스튜디오'(11:10~12:00)의 특집 '저무는 한해 행복한 사람들'과 '최영준의 백팔가요'(12:20~14:00)의 특집 99 트롯결산은 부담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푸짐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영란 기자

신행 캘린더

12월23일 (목)

■대구 파라미타 겨울수련회=대구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겨울수련회가 24일까지 동화사에서 열린다.(053)254-5088

■동지맞이 삼사성지순례=대구 법흥사와 연흥사는 오전 8시 동지기도 회향을 위한 삼사성지순례를 떠난다. 고성 문수암, 옥천사, 보현사 등을 순례한다.(053)766-9088

■청교련인천지부 연합의 밤=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는 오후 5시 오림포스호텔 1층 에메랄드홀에서 연합의 밤 행사를 연다.(032)577-0266

12월25일 (토)

■동화사 청년회 철야정진법회=동화사 청년회 철야정진법회가 오후 3시 동화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26일 새벽까지 진행된다.(053)982-0101

■석굴암 감은사지 성지순례=불교문화연구회는 26일까지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감은사지 등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02)2275-4333

12월26일 (일)

■강남포교원 송년법회=강남포교원은 오전 11시 온가족이 참여하는 송년법회를 연다.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활기차게 열어가기 위한 즐거운 시간도 마련된다.(02)539-2631

12월28일 (화)

■자선기금 마련 사찰음식뷔페=대구불교대학은 오전 11시~오후 8시까지 한국뷔페가든에서 자선기금마련을 위한 사찰음식 일일뷔페를 연다.(053)256-3725

12월31일 (금)

■대구구도회 3천배 철야정진법회=대구구도회는 송년 3천배 철야정진법회를 오후 7시에 갖는다.(053)256-8589

■새천년 해맞이 건봉사순례=전국염불만일회는 오후 5시 낙산사, 건봉사로 새천년 해맞이 순례를 떠난다.(02)732-1215

■마곡사 새천년맞이 타종법회=마곡사는 2000년 1월 1일까지 새천년맞이 타종식을 겸한 해돋이 법회를 갖는다. 또한 어린이백일장, 청소년장기자랑, 연등만들기 경로잔치 등도 진행한다.(0461)841-6221

■낙산사 건봉사 송년답사=터사랑은 밤 9시 새천년 일출을 맞이하기 위해 낙산사, 건봉사로 답사기행을 떠난다.(02)725-1284

법보시 감사드립니다

현대불교 1구좌 1천원…합본집도 법공양

합본 법공양 현황

〈총 43건 50권〉

◇ 교도소 29건 36권

경주교도소 군산교도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제주교도소 청송교도소 강릉교도소 청송제2교도소 장흥교도소 안양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전주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영등포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 수원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마산교도소 청주교도소 진주교도소 광주교도소 부산교도소 원주교도소 홍성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춘천교도소 공주교도소 순천교도소 목포교도소

◇ 구치/감호소 9건 9권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영등포구치소 성동구치소 인천구치소 청송제2감호소 천안구치소 공주치료감호소 청송제1감호소

◇ 소년원 5건 5권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춘천교도소 소년원 광주소년원 부산소년원 진주소년원

신문 법보시 현황(12월 현재)

구분	건 수	부 수
군법당	160	211
경찰서	231	231
교정청	1	1
교도소	57	138
구치/감호소	19	77
소년원	12	12
감별소	6	6
아동복지	37	37
노인복지	24	24
장애인복지	12	12
부랑인복지	3	3
청소년복지	16	16
지역복지	21	21
사회복지단체	24	24
복지조합	8	8
복지협의회	13	13
복지종별협회	8	8
사회복지기관	40	40
기업복지단체	18	18
복지관련대학	42	42
물교병원	13	65
국군병원	13	44
경찰병원	2	6
기타	94	100
총계	874	1,157

후원자 명단

간종흠 강갑순 강경중 강말숙 강미영 강민정 강병한 강복부지관 강성욱 강숙희 강순영 강신택 강영신 강옥구 강은영 강인성 강안숙 강점옥 강정기 강정숙 강정화 강정희 강종남 강지숙 강춘계 강태근 강태복 강현숙 강환진 경순지 고계환 고강진 고덕현 고순진 고영배 고영이 고용순 고은주 고재선 고광선 공광근 구진모 구원회 권감님 권계순 권동희 권미경 권복연 권복자 권복연 권복현 권성행 권순권 권순학 권연지 권영숙 권영현 권오석 권오응 권오진 권옥숙 권옥순 권은경 권정숙 권진순 권차순 권춘수 기현정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영 김경옥 김경애 김경해 김경호 김경희 김광숙 김규환 김근영 김기춘 김남경 김남녀 김남숙 김대현 김덕임 김덕자 김두영 김문남 김문인 김명덕 김명숙 김명옥 김명주 김명희 김문현 김미란 김미명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미정 김민옥 김범수 김병서 김병주 김병청 김병호 김복남 김봉은 김봉해 김상덕 김상림 김상분 김서분 김석순 김석용 김선남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혜 김성희 김승자 김수영 김수희 김순경 김순남 김순녀 김순덕 김순련 김순식 김순옥 김순희 김순태 김승순 김승숙 김승옥 김애리 김애자 김양순 김여경 김연옥 김영미 김영애 김영자 김영주 김정희 김정진 김정숙 김정옥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정주 김정희 김제형 김종미 김종애 김종옥 김종일 김주곤 김준민 김준모 김준영 김준희 김지헌 김철수 김한호 김한희 김혁준 김태형 김태훈 김택존 김한나 김 현 김현수 김현숙 김정심 김 미 장 육 장영란 장 점 장 정 김혜기 김혜숙 김혜옥 김 효 김효영 김효종 김화남 김화수 김황수 김희남 김희수 김희순 나숙희 남상수 남상진 남수경 남수미 남일우 남철수 남하자 노민효 노순남 노유택 노은택 노진희 노창순 노혜숙 덕운화 덩링준 도육희 도재린 동사섭 류경훈 류봉수 류영린 류정남 류정오 류조형 마정해 마진호 명세정 모영희 목포지원 무 명 문명순 문명기 문상림 문숙자 문순조 문형주 문화지 민경주 민병용 민복순 민소영 민승자 민은실 민하식 박강숙 박경남 박경애 박경선 박경수 박경숙 박경애 박경옥 박경희 박광숙 박광호 박구숙 박금숙 박기규 박남순 박남옥 박내순 박명희 박무순 박미경 박미정 박복자 박복주 박상규 박상기 박선경 박선미 박성남 박성미 박성희 박성혜 박성수 박성진 박숙진 박순덕 박순득 박승희 박신영 박양님 박영애 박영우 박영준 박숙남 박용무 박용숙 박용자 박원규 박은기 박은식 박은주 박익형 박재현 박정신 박정순 박정희 박종희 박제원 박종두 박주연 박준형 박준호 박진환 박천대 박현애 박현주 박혜자 박혜정 박혜주 박현자 박현준 박현주 박혜명 박혜숙 박혜정 박혜진 박금순 방명섭 방순하 배경숙 배동금 배병진 배성호, 배순자 배현수 배현주 백상훈 백승남 백양심 백우선 백현기 백혜원 박경선 법인스님 법현스님 변미자 본사직원 본원신도 봉철종 부산지원 사단5통법회 한마음사랑방 상미숙 서경자 서귀현 서민자 서민희 서병선 서병학 서봉순 서상조 서옥경 서윤은영 서은이 서정숙 석 준 서 진 석희선 석준건 서승우 서형관 석혜월 선유진 신강재 설정호 성현자 성다운 세무회계 성심숙 성지선 성동환 성보경 성인자 성제영 성원재 성효숙 소진임 손종자 손금화 손미숙 손봉희 손상률 손인희 손정숙 손지현 손진임 손혜숙 손화자 송광옥 송규환 송미숙 송미애 송복희 송성희 송양숙 송연숙 송인영 송정구 송원재 신경희 신기호 신미향 신미환 신복순 신상섭 신수호 신순애 신순희 신사균 신원민 신유진 신재락 신재철 신조현 신진임 신택건 신호용 신홍재 심종희 심광열 심단희 심묘희 심명희 심성학 심우희 심영희 심일희 심조희 심춘자 심향희 심희주 안성모 안순옥 안영선 안진후 양병덕 양영애 양은숙 양의군 양점순 양정순 엄남주 엄정임 영등포법회 오동규 오두환 오막순 오명자 오미환 오병현 오선희 오세철 오승준 오순자 오승송 오영희 오우송 오주희 오정희 오창일 오창희 오현승 오현자 오형민 오형희 오희숙 용환중 우경애 우금식 우상용 울산지원 울산한마음 원정옥 유강수 유금자 유미양 유선재 유한상 유은경 유인옥 유재훈 유정연 유정용 유춘자 육성희 윤경애 윤경희 윤기숙 윤미희 윤병창 윤병희 윤상문 윤석빈 윤성윤 윤 희 윤인자 윤재경 윤제학 윤준상 윤지용 윤지은 윤창섭 윤태임 윤향숙 은경애 이강희 이경민 이경숙 이경이 이경임 이경인 이경자 이경희 이계선 이광형 이교재 이구자 이귀숙 이규빈 이금순 이금주 이기호 이기철 이남심 이대섭 이덕희 이동기 이명규 이명수 이명자 이묘연 이미경 이미나 이미애 이미자 이번녀 이벌규 이병만 이병진 이보경 이복순 이봉우 이분순 이분이 이상옥 이상용 이상은 이상자 이상준 이상헌 이상희 이서희 이석순 이선규 이선희 이성숙 이순규 이순덕 이순분 이순옥 이순임 이순자 이순천 이순호 이순희 이승수 이승순 이승옥 이승은 이승준 이시진 이시형 이신경 이신숙 이신임 이신자 이신정 이신철 이신형 이신호 이심문 이심숙 이안순 이애경 이애리 이애자 이애정 이애주 이야기 이야호 이양순 이양자 이양희 이어령 이연규 이연경 이연희 이영경 이영숙 이영순 이영자 이영조 이영희 이오석 이옥녀 이옥영 이옥희 이옥희 이우승 이유순 이윤옥 이은주 이은진 이의남 이익수 이인심 이인숙 이임순 이정혁 이재국 이재은 이재화 이정자 이정녀 이정례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지 이정애 이정희 이종돈 이종락 이종석 이종철 이준민 이준석 이준재 이준희 이중근 이지영 이지형 이진경 이진수 이진영 이진철 이창문 이창희 이철주 이태우 이태인 이태호 이태훈 이태희 이필순 이한순 이향미 이현숙 이현실 이현안 이현양 이현주 이형호 이혜란 이혜숙 이혜옥 이호진 이화숙 이화영 이효순 익명 임경희 임기남 임명숙 임명자 임상진 임선원 임소영 임연태 임옥재 임완숙 임우식 임재순 임점숙 임종미 임채임 임춘심 임현순 임형대 임홍원 임희자 장금강심 장 미 장 육 장영란 장 점 장 정 장정숙 장정자 장정희 장혁자 장혜기 전긴열 전계연 전규백 전병입 전복순 전상우 전순남 전순자 전승현 전연석 전연택 전영자 전위자 전유정 전인호 전정순 전정애 전정희 전진희 전현수 전현진 정경재 정계영 정구순 정금관 정금란 정동한 정보이 정우영 정은정 정이경 정이랑 정이현 정인이 정복순 정분순 정애자 정연희 정은실 정인호 정정숙 정정수 정정자 정진숙 정필수 정화선 정해정 정현동 정호재 조경자 조귀자 조남숙 조명자 조미란 조미숙 조미순 조민우 조보국 조상호 조승우 조약식 조양식 조영숙 조옥희 조완희 조유숙 조은호 조은미 조인자 조종현 조철제 조혜숙 조호연 주우순 주영란 주인공 지로봉사모임 지순임 지유미 지창근 진경수 진관현 진영숙 진영희 진옥례 진옥상 진원주 진재현 차용용 차문호 차신환 차우칠 차용욱 차정순 차현주 차희자 채희순 천재경 천현숙 현화조 정주교도소 최경다 최경자 최경진 최광례 최만례 최명희 최병순 최병연 최병조 최복례 최복순 최상철 최서은 최석원 최성근 최성례 최성휴 최수정 최실철 최영도 최영명 최영봉 최영숙 최은희 최재무 최재학 최정근 최정기 최정문 최정희 최주현 최행선 최희선 최희원 추철희 충남태교수봉자회 치탑인명 크레명 하금자 하명자 하선임 하순임 하종흠 한국여성불교 한기선 한마음부산 한마음선원 한마음유산 한마음인천 한명숙 한미수 한병조 한상형 한숙희 한순자 한아름 한양자 한영희 한정희 한춘련 한태희 한효심 함광점 함기석 함명익 함영숙 함지은 허명희 허상임 허선숙 허성국 허수자 허승자 허희숙 허재숙 허정남 허정숙 허종량 허찬우 현경자 현명희 현수진 현원스님 현주월 현원당 홍기정 홍명숙 홍민자 홍소순 홍여순 홍영호 홍인자 환금철 황기용 황영분 황옥란 황옥석 황옥순 황점숙 황정옥 황찬영

게 시 판

알림

▲결식아동을 위한 겨울학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27일~2000년 2월 3일까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지역내 결식 초등학생을 위한 겨울학교를 연다. 중식제공과 학습지도, 집단활동, 현장학습 등을 진행한다.(02)2282-1100

▲노인정 문화공간 활용=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목, 금요일 오후 1시~2시 30분 지역 노인정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노인정활성화사업을 전개한다. 방문의료 및 노래교실등을 진행한다.(02)571-2988

▲장사익 자선콘서트=여해문화공간은 24일 오후 7시 장사익 자선콘서트를 연다. 복지 시설의 청소년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02)2265-2890

▲방학중 심리검사=목동청소년회관은 매주 월~토요일 초·중·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지능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학습검사 등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02)2646-8341

강좌

▲불교어산과정 개설=해동원효불교대학 부설 어산의식교육원은 27일부터 원효종 총본산 금수사에서 불교어산(범음, 범패)과정을 개설했다. 불교예절, 상주권공 및 의식교육, 각종 제의식, 작법교육 등을 실시한다.(02)467-3316

▲발관리·요리·미용자격증대비반=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성인들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자격증대비반 교실을 연다. 한식조리사자격증, 발관리전문가 양성반, 머리미용자격증반 등으로 4개월 과정이다.(02)852-0525

▲겨울방학특강=양정청소년회관은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한 특강을 마련했다. 일본어, 생활한문, 서예,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뮤지컬영어, 독서지도와 가족신문만들기, 논술교실 등으로 2000년 1월부터 개강한다.(051)868-0750

▲종이접기=신도림복지관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종이접기 강좌를 연다.(02)2631-9792

▲만화캐릭터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한 만화캐릭터교실을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02)852-0525

▲학습방법향상 프로그램=목동청소년회관은 2000년 1월11일~27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학습방법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중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지도한다.

▲겨울방학 무료특강=걱유사회복지관은 20일부터 지역 청소년을 위한 겨울방학 무료특강을 연다. (032)325-2161

모집

▲출판전문편집인=민족사는 경력2년이상으로 pc와 mac편집이 가능한 전문 편집인을 구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2000년 1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02)732-2403

▲물리치료자원봉사자=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주부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실 운영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시간은 주 1회 오전10시~오후 4시 사이다.(053)476-7700

▲결식아동·불우청소년 결연자=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은 결식아동, 불우청소년과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도움을 줄 자원활동결연자를 모집한다.(053)753-8883

▲공양주=가평극락정사는 공양주 보살을 구한다. 0356)581-1616

▲사랑의 도시락 후원=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겨울방학기간동안 지역내 저소득층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도시락지원사업 후원을 기다린다.(02)806-1376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 규격간판(도로지주용 간판) 허가 대행, 제작, 설치, A/S
◐ 각종 사찰 불사 및 event 대행

■사찰 이정표
- 스텐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인 수명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 가격 저렴
- 녹슬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음
- 자체 제작공장 보유 - 신속정확 시공
- 허가 대행 및 A/S 철저

■사찰연혁판
- 스텐레스 재질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방문객에 대한 사찰연혁을 정확히 전달

■전주용 간판 ■게시판 ■현수막
■목간판 ■난간대 공사
■휀스공사(울타리공사)
■각종 event 대행
-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 등

태영산업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35번지
TEL:02-433-9544 FAX:02-433-9543 H.P:019-278-1119
이 태 영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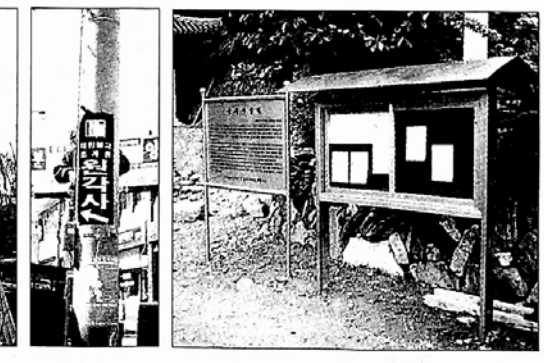
♣ 사찰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전주용 간판



♣ 사찰 연혁 게시판



♣ 화재안전 포맥스

사찰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찰은 무료로 드립니다.
- 규격 40cm × 10cm

참배후 촛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불자 전문수행도량 탄생

서울 거암관음사 4년만에 개원

교리강좌·법회 열어…회보도 발행

구파발 거암관음사(주지법사 혜덕)는 12일 한탑·법혜스님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갖고 마하반야바라밀행을 실천하는 재가불자 신행운동을 전개하는 거점도량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95년 부처님오신날 자체법당을 만들자며 천일기도에 들어간 재가불자모임 반야회(회장 류동백) 회원 2백여명이 중심이 돼 마침내 대지 50평에 30평의 혜각전을 마련했다. 앞으로 주변토지를 매입하고 설법전도 건립할 계획이다.

거암관음사는 개원취지에 맞게 관할 은평구청에 회원들의 공동명의르 신도단체(임의단체) 등록을 했다. 또 서대문세무서에 등기도 내고 납세번호를 교부받는등 공찰로서 면모를 갖췄다. 특히 주멤버인 서울은행 불자들이 IMF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차질없이 사찰을 개원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거암관음사는 사찰재정공개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회원들로 구성한 감사제도를 도입했다.

조직도 공부, 봉사, 보살, 거사, 직장인으로 분류하여 5개법 등으로 나눠 각기 특성에 맞는 법회와 신행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혜를 밝히는 공부하는 사찰'을 모토로 하고 있는 거암관음사는 법등을 중심으로 근기에 맞게 불교교리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또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되는 '혜(慧)로 보는 불교'강좌도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열린다.

매주 불자포교와 직장인불자를 위한 〈거암법보〉도 발간하여 곳곳에서 불자들이 부처님의 정법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법보시하고 있다.

주지 혜덕법사는 "바라밀행의 첫 번째인 전법에 역점을 두겠다"며 "부처님 정법에 따른 모범적인 사찰운영으로 불교중흥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12일 개원법회를 개최한 거암관음사는 재가불자 신행운동을 전개한다.



◇옴천사 주지스님이 경내 자연석탑을 직접 쌓고 있다.

옴천사 3천불 3천탑 조성

'불교중흥 3년결사' 입제

적멸보궁·수련원 건립

강진 옴천사(주지 정암)는 1월 1일부터 새천년을 맞아 호남지역 불교중흥과 불자들에게 신앙심을 일깨워주는 도량을 서원하며 3년결사로 3천불 3천탑 조성불사 입제에 들어간다.

옴천사는 이미 1차로 올해 4천여평 부지에 1천탑과 청자 지장보살상 3백불을 봉안했으며,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지장보살 미륵불을 야외에 노천불로 조성해 불자들이 근기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을 건립하고 사찰에서 7정수가 나오면서 인근 불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옴천사는 내년부터 노인정과 청소년수련원도 건립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종교벽 넘은 이웃사랑

불·개신·원불·천도교

'생명의 트라이앵글' 운동

거리모금 복지시설 후원

불교, 개신교, 천도교, 원불교가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 사랑실천에 나섰다.

생명사랑나눔회(공동대표 심산스님·통도사부산포교원주지)는 '생명 사랑 트라이앵글' 운동을 통해 매월 1-2차례 백화점 앞에서 모금운동을 가지고 그 수익금을 후원단체에 전달하고 있다.

3일 롯데백화점 앞에서 가진 첫 모금 행사는 통도사부산포교원의 고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금강초롱회를 중심으로 타종교인들이 동참했다. 이렇게 모금된 수익금은 종교관련 신문기자들로 구성된 기자단에서 관리, 매월말 장애인 선교요양원, 해운대 나눔의 집, 한울 사랑회를 비롯 기타 지원이 없는 단체에 전달된다.

지난 10월 결성된 생명사랑나눔회는 현재 불교, 개신교, 천도교, 원불교가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 천주교를 비롯한 타종교인들의 참여를 통한 종교화합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겨울수련·불교학교 열어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계) 학생회는 23일부터 26일까지 양산 다람쥐캠프장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를 주제로 겨울수련법회를 개최한다.

또한 어린이회도 27일부터 29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겨울불교학교를 개최한다.

동참금은 각각 3만5천원과 2만5천원. (053)427-8008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노숙자 시설 보현의 집 사찰순례·수련회 가져

실직 노숙자 쉼터인 부산보현의 집(소장 이기표)은 11-12일 지리산 화엄사, 칠불사, 쌍계사에서 사찰순례와 수련회를 개최했다. 입소자 35명이 동참한·이번 수련회에서 쌍계사 포교국장 대광스님은 "실직에서 오는 고통을 오히려 공부로 삼아 희망적인 삶을 설계하는 용기를 발휘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입소자들은 좌선·명상수련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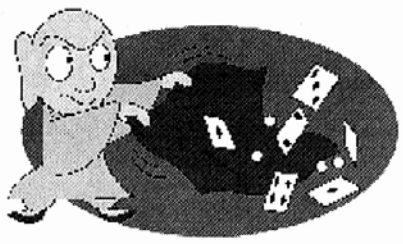
천미희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아봐타코스
◐ 아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불교계 고질병폐에 메스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결산

본지가 불교개혁을 위해 99년 연중기획으로 펼친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치자'는 44회 연재를 통해 불교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공론화시켜 개선의 단계까지 이끄는 파급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들 불교개혁 과제들은 종권분쟁으로 비화된 올해 종단사태에도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결과적으로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와 우리는 선우에서는 이들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찰재정공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우리는 선우 제천지부는 매주 기획주제를 교재로 토론회도 가졌다.

지역의 신행단체와 독자들의 신문추가요청과 승속을 막론한 격려성 전화와 함께 스님도박·음주·흡연문제〈231호〉등은 일각만 건드린 것이 아니냐는 항의성 문의도 잇따랐다.

독자들은 지면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문제만 나열된채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임효정 대외협력위원장은 "불교개혁을 부르짖었던 불교개혁과제가 개편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쉽다"며 "지속적인 불교개혁이 필요한 만큼 이번 기획내용들이 기사에서도 충분히 반영돼 한국불교의 청정성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44대 과제중 '사찰재정공개' '농어촌포교' '무너진 계율' '무분별한 호텔행사' '기복불교' '문중의 과벌조장' '총무원역할' '승가위주 종단운영' 등에 대한 사부대중의 강한 개혁요구의 단초가 제공되는등 불자들의 반향은 두드러졌다.

44개 실천과제 다뤄

신행단체 교재로 활용

특히 사찰재정공개〈206호〉에 대한 과제는 올해 사찰과 불자들의 의식을 크게 좌우했다. 조계종단의 대표사찰인 조계사 봉은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30여 사찰들이 사찰재정공개원칙을 천명하여 사찰재정공개를 통한 사찰의 투명한 재정운영이 실현되는 첫발을 내딛었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도 7월 23일 직영사찰부터 사찰재정공개 의무화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는등 가시적 성과도 거뒀다.

농어촌포교〈220호〉는 어촌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올해말 허공장회가 어촌및 낙도포교를 위해 과천에 낙도포교본부인 안면암포교원을 개원하고 안면도에 안면암포교당을 건립했다. 또 낙도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장학재단설립과 포교선운영 계획을 확정하는 등 어촌포교에 적극나서는 해가 됐다.

불교중흥을 위해 무너진 계율〈232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 됐다. 과계사 영산율원은 2차에 걸쳐 비구가 지켜야할 250계를 설한 비구계본 특강을 실시하여 60여명의 일반스님들이 계율강좌를 수료했다. 특히 2차 특강에는 타종단 스님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등 스님 계율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재가자를 위해서도 내년부터 5계와 법망경의 48계 강의를 실시키로 해 계율에 대한 관심은 일반불자들까지 높게 일었다.

등산반야회 김재일회장은 "현대불교의 연중캠페인 보도는 불교발전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반영하여 불교개혁의 밑거름이 됐다"며 "〈249호〉 기복불교와 관련해 동산반야회도 내년에 너와내가 함께 잘살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퇴행성 관절염 8명 수술

본사-동인천 길병원 의료지원 2개월

스님·재가불자등 90명 신청

현대불교신문이 지난 10월15일 창간5주년을 맞아 동인천길병원(원장 이수찬)과 공동으로 노스님과 노인불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한 무료의료지원 사업을 벌여 총 8명의 불자가 혜택을 받았다. 수혜자 8명은 모두 양쪽다리 무릎수술을 받았다.

12월15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 이번 퇴행성관절염 무료수술 지원에는 스님을 포함해서 남녀 불자 총 90명이 접수 신청했다. 이 가운데 척추 디스크 등은 제외하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수술 대상자를 선별한것. 시어머니 병을 고쳐드리고 싶다는 며느리, 시골에 계신 아버님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신청했다는 딸, 우연히 절에 갔다가 종무소에 온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뒤늦게 아내의 병을 고쳐주고 싶다는 할아버지, 공양주보살의 아픔을 낳게 하고 싶어 일부러 신문사를 방문해 신청하는 주지스님 등 감동 어린 사연들이 줄을 이었다.

"가능한 수술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척추디스크로 유발된 환자도 고통을 덜도록 무료수술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동인천길병원 이수찬원장은 마치 약사여래보살처럼 환하게 웃었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흉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돈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번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99년 희향하는 불자가정

들때마다 기도로 마음 안정"
나 되돌아보는 시간 많이가져"

흘 남짓 남겨둔 12 8시 서울 송파구 문 아파트 209동 901호 씨(51)의 거실. 팔순 니 김무교보살(84)과 (42), 그리고 초등학 재신이와 3학년인 재 사를 마친 김씨 일가 았다.

요즘 바쁜 일은 다 끝났 가 아내에게 묻는다. 불광 25주년 행사 준비 신없이 뛰어다녔는데, 광사 50일 겨울기도에 서 나자신도 돌아보고 도 정리하는 중이예요." 송파19 헤미리법등 총무 직을 맡고 있는 아내는 신행활동도 집안살림하듯 꼼꼼하게 해내는 모범 주부다. 김씨는 남들이 IMF로 사업하기 어렵다던 지난해 시설물관리 및 청소용역, 경비 경호 파견업체인 효림건업주식회사를 설립해 1년이 지난 지금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 김무교 보살은 집안의 가장인 아들이 늘 걱정이다. "그래, 지난 1년동안 힘들어도 내색 않고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아범도 힘들었을 게다."

"IMF로 올해도 사업이 그리 쉽지는 않았지만 힘들때마다 사무실 옆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 전원에 가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거기서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참선도 하니까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겠더라구요.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알것 같습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지요"

"그나 저나 새해에는 우리 스님네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지난번 종단사태때 많은 불자들이 가슴 아파했잖니! 나도 그때 조계사에 가보았는데 건장한 청년들이 길을 막아 몹시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의 말에 손녀딸들도 동감을 표했다. "그래요, 언니랑 저도 그때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너네 불교는 왜그러냐며 질문을 퍼붓는 통에 너무 창피했어요."

"그때 많은 불자들이 불교에 대해 실망했다는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정법을 받들고 실천하며 더 모범을 보여 불교를 지켜야 할거야" 할머니가 손녀들의 손을 살짝 잡으며 달랜다.

김씨도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가 아직 힘이 약해서인지 타종교에 비해 불교계 문제를 언론사들이 선정적으로 확대보도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불교가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화합하고, 우리 불자 한사람 한사람이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 할 겁니다"라고 말한다.



◇송파구 문정동 불자 김중묵씨 가족은 20일 온가족이 모여 99년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생활할것을 약속했다.

김씨의 집 거실에는 지난 봄 수덕사 법장스님이 점안식을 해 준 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김씨의 아내는 이 삼존불 앞에서 아침저녁으로 향을 피우며 경전을 읽고, 108배를 한다. 김씨도 출퇴근때면 불전 앞에 두손을 모은다.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다들 밀레니엄이다 새천년이다 하면서 난리가 아니예요. 하지만 2000년이 된다고 뭐 크게 달라질게 있겠습니까, 거창한 계획보다는 평상시대로 열심히 생활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요." 김씨의 말에 아내와 두딸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분수에 넘치는 겉멋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부터 새해에는 어려운 이웃도 살피고 실천하도록 마음을 모아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할머니 엄마 아빠, 새해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절에도 더 열심히 나갈께요."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뉴스 & 뉴스

교계 세밑 대북지원 '봇물'

세밑을 맞아 교계단체들의 대북지원이 늘고 있다.

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와 은해사(주지 법의) 서울평화센터(이사장 이윤구)는 20일 선적에 들어가 인천항에서 의류 1만6백벌을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지정기탁한다. 또 금강국수공장에 사용할 밀가루 60톤도 중국 단동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진각종(통리원장 성초)과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총지화)도 북녘 동포를 위한 겨울나기 옷을 30일 북한에 보낸다. 김원우 기자

진관스님 석방 촉구 탄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6일 진관스님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담당재판부, 법무부, 국민회의등에 전달했다. 이와함께 조계종 중앙종회도 15일 142회 종회에서 채택된 진관스님 석방요구 결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광주 노인복지회관 개관

지난 11월 연꽃마을이 광주시로부터 수탁한 남구 노인복지관이 9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남구 노인복지관(관장 김재술)은 노인 사회교육사업 및 상담, 취업알선, 주간보호사업, 한·양방 무료진료, 목욕서비스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한명우 기자

불교사회교육원 내년설립

재가연대 중앙위원회(위원장 이준건국대교수)는 11일 조계사문화교육관에서 1차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사업으로 불교활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불교사회교육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불교활동 연구지원사업 △불교운동 네트워크사업 △재가연대 포럼 △일반교육사업 △사찰재정투명화운동 사업 △소식지발간 등을 전개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해외 한국사찰 '재정난'

스님 부족 현지인 포교 어려워
보시금 줄고 빚만 쌓여 '발 동동'

해외에 진출한 한국의 사찰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 한국불교의 해외 포교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한국불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수행과 한국불교의 우수한 문화를 현지에 알리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던 이들 사찰은 대부분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등을 빌려서 법당을 꾸미고 포교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현지인 포교에 실패하고, 보시금이 줄면서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부처님이 열반한 인도 쿠시나가라에 있는 대한사(주지 성관)는 한국 관광객들의 보시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 1명당 시주금은 1~2 달러에 불과해 운영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IMF 이후 인도 성지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급격히 감소해 그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서부 지역에 단독주택을 매입, 개원한 불은사(주지 자은)는 현재 80만불의 빚을 안고 있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전기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인 프랑스 파리 길상사(주지 회일)의 재정난도 심하다. 호주 시드니에서 성공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법사(주지 기후)도 최근에는 신도 수가 줄어들어 걱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회일스님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불교계의 지원이 없다면 해외사찰의 운영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와는 달리 외국의 경우 '보시'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또 경제적 어려움의 고비를 넘긴다 해도 현지인을 지도할 법사나 스님이 턱없이 부족해 신도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조계종의 경우 해외 포교에 매년 6백여 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으나, 영문 소식지 발간 및 배포에 사용될 뿐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해외 포교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와 교구 본사급 사찰의 재정 지원이 있다면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종단에서 해외 사찰과 스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조속히 설치되고 또 교구 본사 차원에서 해외 포교에 앞장서지 않는 한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사찰 대부분 고사할 위기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남양주 유선방송사
개신교 찬양 '말썽'

봉선사 수차례 중지 요청

종교편향적 방송을 일삼아 온 지역 유선방송사가 한 사찰의 문제제기와 끈질긴 항의로 선무 찬양방송을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 개월 전부터 개신교 목사의 설교와 개신교를 찬양하는 녹화물을 무분별하게 방영해 온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유선방송사는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주지 밀운)가 수차례 부당성을 지적하고 항의했으나 "보기 싫으면 안보면 될 것"이란 배타적 입장을 견지하다가, 최근 봉선사의 공식 질의에 따른 서울체신청의 경고로 찬양방송을 중단했다.

서울체신청은 봉선사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회신에서 "유선방송사에서 특정종교의 케이블방송을 녹화·송출하는 것은 유선방송관리법 제17조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남양주시 소재 유선방송사들에게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방송토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제2 금강국수공장 건립추진

평불협 방북서 제안…조불련 "긍정검토"

북한에 제2 금강국수공장 건립이 추진된다. 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는 7일부터 14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평양인근에 제2 금강국수공장설립을 조선불교도연맹에 제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평불협 대표단은 이와 함께 △북한내 자매결연사찰지정 △2천년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 개최 △불교산악회원의 구월산 또는 묘향산 등반 △불교교육시설지원 △평불협 대표단 정기방문등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조불련측은 평불협대표단의 방북은 언제나 가능하다며 기타 제안사안도 내부협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 김도현, 정인학, 신광식이사로 구성된 대표단은 10일 묘향산 보현사에서 이주자씨(윤이상씨 미망인), 북측 스님,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기원법회를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목탁소리

버리지 못한 헬멧

고 영 배 〈취재2부 기자〉

본 기자에게는 머리를 보호하는 노란 헬멧이 하나 있다. 공사장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쓰는 플라스틱으로 된 헬멧이다. 이 헬멧이 사진기자들의 필수품이 된 것은 지난해 조계종 폭력사태부터다.

그런데 채 1년도 안된 지난 10월 또다시 노란 헬멧을 챙기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몇 차례 전운(?)이 감돌더니 마침내 조계사 앞 대로에서 한낮에 유혈난투극이 벌어졌다. 소화기 분말가스가 시야를 가려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를 몽둥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노란 헬멧을 꼭 눌러쓴 채 한쪽 눈을 부릅뜨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댈 수밖에 없었다.

사진기자는 사건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종종 부상을 입기도 한다. 이날도 그런 위험이 뒤따랐다. 하지만 노란 헬멧 덕분에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노란 헬멧을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울했다. 자비문중의 취재에 노란 헬멧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지난해 폭력사태를 겪으면서 기자는 '이제 이 노란 헬멧을 다시 쓰는 일은 없겠지'라고 내심 희망을 가졌었다. 그런 희망은 비단 본 기자뿐만 아니라 불자라면 모두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무참히 깨져 또다시 사진기자들의 머리에는 노란 헬멧이 씌워졌다. 폭력이 난무할 때 불자들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국민들은 혀를 찼다.

새 천년을 불과 며칠 앞둔 지금 조계사는 그런대로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각목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던 곳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다시는 세계를 경악케 한 스님들의 폭력·분규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당장 노란 헬멧을 치워버리고 싶지만 아직까지 '만일'을 대비해서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새 천년에는 노란 헬멧을 쓰는 일이 없어야겠다.

일타큰스님의 열반…. 큰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오리다.

불자의 기본 예절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

바른 수행의 밑거름이 되는 불교집안의 예절.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목욕·입측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4×6 판 / 3,500원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일타큰스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계신 일타 큰스님.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신국판 / 5,000원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

祈禱 기도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국판 / 5,000원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도』 출간 이후,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다시 집필을 시작하신 스님의 기도 방법 지침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생활속의 기도법

4×6 판 / 3,500원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야운비구의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푼 해설집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 범망경보살계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담은 책

·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 감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총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여시아문

불기 2543년 (서기 1999년) 12월 22일 수요일 제 251호

이 달 의 책



통윤의 유마경 풀이

구마라습이 한역한 『유마힐소설경』을 중국 명대의 학승 통윤이 소(疏)를 붙여 『유마힐소설경통윤직소』를 펴냈고 이에 대한 주석서가 바로 『통윤의 유마경 풀이』이다.

유마경은 초기불교, 소승·대승불교의 사상과 실천적 교의를 간명하게 집대성하여 반야경의 정신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경전이다. 그 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구마라습의 한역본 유마경을 세세하게 살펴 볼 수 있다는 점과 중국 선불교의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통윤 지음
일지 옮김
A6신 양장 430쪽
값 18,000원
서광사



그 누가 큰 꿈을 깨었나

해방 이후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정은 모두 13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8명이 입기 중에 타의로 종정직에서 물러났다. 종단 내부의 분규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역대 종정에 대한 대수(代數)와 예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 책은 역대 종정의 전기라 할 수 있는데, 본격적인 불교전기학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방 이후 근대 한국 불교의 흐름을 종정 스님들의 발자취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임혜봉 지음
A5신 440쪽
값 11,000원
가람기획



산사의 미를 찾아서

"산사를 찾는 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보이는 것만 탐하지 말고, 없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다.

산사는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다.

하지만 더 깊숙한 것은 혼탁함에 가려진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문화와 역사, 종속 등을 모두 품고 있는 사찰의 고유함을 사진에 담았다. 20년 가까이 사찰을 찾아다니며 찍은 사진은 물론이고 그리 길지 않은 글귀들이 한 편의 시처럼 다가온다.

박보의 지음
A5 반양 246쪽
값 13,000원
디른세상



합장

종교의 구원과 삶의 가치를 예술로 승화시킨 선승들의 생활과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통해 독자들을 선의 세계로 이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온 경허에서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구도자들이 어떤 가치에 집착하고, 그들이 생활 속에서 얻은 지혜는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삶을 살아 온 경봉·경허·만공·만암·성철·전강·청담·효봉 스님의 전설 같은 일화들이 담겨 있다.

박기영 엮음
A5 반양 256쪽
값 7,000원
도서출판 합장



도올 김용옥이 말하는 노자와 21세기(上)

요즘 EBS 교육방송에서는 '발레니엄 특강 고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제는 '노자'다.

이 책은 이번 특강의 교재로 '노자'를 빼놓고는 21세기를 말할 수 없다는 저자의 『노자 도덕경』의 해석을 담고 있다.

거칠고 막힘없는 독특한 강의로 유명한 저자는 강단에서 몇십 명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벗어나 매스컴을 통해 국민 누구라도 널리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한다.

김용옥 지음
A5신 268쪽
값 6500원
통나무



이제, 승려의 입성을 許함이 어떨는지요

개항기인 1876년부터 1912년 사찰령 시행기까지의 불교 근대사를 정리한 책이다.

이 시기의 연구 부족으로 일제 식민주의 역사학자의 주장이 그대로 왜곡되어 개화기 조선불교계 전체를 친일 편향으로 해석해 왔던 기존의 생각들을 반박하고 그 근거들을 세세히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일본불교와 식민주의자들의 낡은 시각으로 한국불교를 해석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한국불교인의 주체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박희승 지음
A5신 310쪽
값 8000원
돌베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우리 옛지도의 발달과정, 지도를 제작하게 된 역사적 배경, 지도 편찬에 관한 문헌자료, 우리 나라에만 특이하게 발달한 천하도(天下圖)의 실체, 옛지도는 땅을 비스듬하게 내려다보고 그렸기 때문에 산과 강, 건물 등의 입체성이 뚜렷한데 전문적인 화원의 손에 의해 그려진 옛지도의 특성을 미술사가의 시각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세 사람의 저자에 의해 집필되었다. 고지도의 영인 보급과 고지도에 대한 해설서가 없는 시점에 출간되어 의미가 깊다.

관영우, 안휘준, 배우성 지음
A6신 반정 368쪽
값 20000원
효형출판



불자로 태어나라

포교 현장에서 20여 년 간 활동하면서 몸으로 익힌 포교 실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불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교육했던 실천 사례들을 담고 있는데 불자가 되는 과정부터 불자의 바른 삶, 사찰공동체 생활, 불교의 근본진리, 불보살의 의미와 불교상징물, 절에 가는 날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신도 교육 교재로 사용할 때에는 예불, 강의, 휴식, 불성개발프로그램, 다회의 발원 순서로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불자로 거듭 태어날 것을 강조한다.

이동성 지음
A5신 282쪽
값 5,000원
정우서적



불자가 꼭 읽어야 할 기본 경전

재가불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생활관·가치관·인생관을 담고 있는 우바새·우바이 경전들을 한데 묶었다.

남성 불자에게는 『불설부모은난보경』 『불설과경』 『대품선생경』 『우바새계경 수계품』 등의 경전을, 여성 불자에게는 『불설녹모경』 『불설은색녀경』 『불설월상녀경』 『우바이정행법문경』 등의 경전을 소개하고 있다. 불자들이 흔히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이나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등을 공부하기 앞서 재가불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기본 경전들인 셈이다.

석법성 엮주
A6신 양장 328쪽
값 13000원
혼주사

스테디셀러 찾아가기

방 거사 어록



이리야 요시타카(入矢義高)
양기봉 옮김 / 값 8,500원 / 김

누구나 한 번쯤 시인을 꿈꾸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 번쯤 출가(出家)를 꿈꾼다. 때론 그것이 가출(家出)이라는 일탈의 형태로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든 성공하기도 한다. 그럴 때, 이 세상에는 한 사람의 수행자 즉 스님이 탄생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삼보를 우러러받드는 일을 수행 방편으로 삼기도 하고, 나름의 수행으로 '부처'를 꿈꾸기도 한다.

인도의 유마(維摩, ?~?), 중국의 방온(龐蘊, ?~808), 한국의 부설(浮雪, 신라 말기)의 꿈은 이루지 못했으되 부처의 꿈은 차마 접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그리운 스님이다. 흔히 동양 3대 거사로 불리는 이들은, 부처의 경지란 결코 승과 속이라는 이분법과는 무관한 것임을 온 삶으로 증언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삶을 『유마경』과 『방 거사 어록』 그리고 『부설전』으로 만날 수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중 『방 거사 어록』을 찾아간다.

먼저 방온이란 인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당나라 때의 사람으로, 자는 도현(道玄). 흔히 방 거사라 불린다. 석두 스님을 뵙고 선지(禪旨)를 얻은 다음, 마조 스님의 문하에서 2년 동안 참학하였다. 대나무 세공품을 만들어 팔이 저자에 내다 판 것으로 그날그날의 생계를 꾸려갔지만, 당대의 이름난 선사들을 통쾌하게 꺾어버리는 선(禪)의 고수였다.

본디 『방 거사 어록』은 상·중·하 세 권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그 중 상권에 해당하며 거사의 약전(略傳)과 언행이 주된 내용이다. 나머지 두 권은 계송을 모은 것이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마침 서문에 방 거사의 가풍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임종이 다가오자 딸 영조에게 말했다.

"모든 것은 환상일 뿐. 보이는 대상은 너의 인식 작용이 지은 바. 밖에 나가서 해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다가 한낮이 되거든 알려 주렴."

영조는 문밖을 나섰지말자 바로 알렸다.

"벌써 한낮입니다. 게다가 일식이고요. 잠깐 나와보세요."

"설마?"

"그렇다니까요."

이에 거사가 자리를 떠나 창가로 가자, 냉큼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숨그머니 한 생을 마감했다. 되돌아보며 거사는 웃으면서 말했다.

"잽싸게도 재주부렸군."

거사는 장작을 주어모아 뒷 처리를 마쳤다. (지면 특성상 책의 내용을 조금 줄이고 고쳤다.)

이보다 더 극적인 임종의 순간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스승 뛰어넘기가 또 있을까? 그야말로 그 아버지에 그 딸이다.

역본 것만으로도 도사가 된 이 기분, 독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 느껴보시기를. 더 이상의 소개는 삼간다. 아무리 잘해도 본전 못 건질 것 같아서.

윤제학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장 yunjh @buddhapia.com

불교 출판계 소식

불교 출판계가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는 길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지금, 출판 관계자들은 '전자출판'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에 있다며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자출판은 아직까지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모호하지만 머지않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란 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미 '바로북'과 '아마존'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도서를 압축 파일로 판매하고 있는 등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는 출판 상황에서 불교 전문 출판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과연 불교계는 어떤지 짚어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교 전문 출판계는 인터넷 사이트나, 홍보 물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교 전문 출판사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가장 큰 요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불교 출판계가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 출판 사이트와 같은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한다면 운영난 해소와 독서 인구 저변 확대와 아울러 불교 정보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 출판계가 시대의 흐름을 앞서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새천년에는 고급 문화를 잠재력으로 지닌 불교 전문 출판계의 독자들을 위한 작은 실천을 기대해 본다.

잠깐 독서



케이크와 부처

히로 사치코 지음
김재창 옮김
B6 288쪽
값 5000원
불일출판사

어린 아이에게 물었다.

"케이크는 왜 여럿이 나누어 먹어야 하지?"

아이가 대답했다.

"케이크를 못 가진 아이들이 가엾으니까요."

아이가 아직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처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케이크를 나누는 것이란다."

'케이크는 혼자서 먹으면 맛이 없다. 여럿이 나눠 먹는 편이 훨씬 맛있다. 바로 부처의 마음을 갖기 위해 케이크를 나누는 것이다.' 짧은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보시는 상대방에게 큰 은혜라도

케이크는 혼자서 먹으면 맛이 없다.
여럿이 나눠 먹는 편이 훨씬 맛있다.
바로 부처의 마음을 갖기 위해 케이크를 나누는 것이다.

베푼 듯 생색을 낼 일이 아니라, 인색한 내 마음과 물질에 집착하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행위라고 저자는 말한다. 꼭 움켜쥐고 있던 욕심을 훌훌 털어버렸을 때의 홀가분함은 누구든지 한 번쯤 느껴보았을 것이다. 보시는 단순한 기부행위가 아니라 마음 닦는 일의 기초인 셈이다.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육바라밀, 즉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바라밀을 통해 불교의 지혜를 차분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불교'라는 거대한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짧고 명확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이올넬어 지음, 김진무·류화승 옮김 / A5신 304쪽 / 혼주사 피냄 값 12000원

이 책을 말한다

『불교와 유학』
불교 사상과 유가학설의 상호 관계를 논한 책.

김중근 기자

인도 문화권을 넘어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에 전해진 불교는 다시 동쪽으로 전해져 중국에 전래되었다. 중국은 옛부터 유교나 노장 등의 고유사상이 사람들의 정신생활을 깊이 지배하고 있었다. 외래 종교인 불교는 이들 사상과 융합하면서 중국의 독자적인 불교를 형성해 갔다.

불교의 역사상 교리가 가장 발달한 것은 중국불교로서, 천태종이나 화엄종 등 교리적으로 우수한 종파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성립된 모든 종파들은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어 동아시아 불교권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한국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불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불교가 중국불교의 모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불교가 독자적인 전개를 해 나가기 위한 원류가 된 것은 중국불교의 영향이다. 따라서 한국불교를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불교의 연구와 이해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불교를 연구하는 사람이 중국 고대철학, 특히 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가 알고 있는 중국불교는 어느 한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불교와 유학』은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불교 사상과 유가학설의 상호 관계를 논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사유양식과 사상, 학술의 특징, 이론 취지 등의 측면에 있어서 불교와 유가의 동이(同異), 서로간의 영향과 침투 등을 깊이 분석하여 논하고 있다.

또한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어떻게 불교가 유가의 영향을 받아 유학화 되는가를 밝히고 있다. 동시에 불교가 중국에 자리잡은 이후 유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유교와 도교가 어떻게 서로 융합하였고, 어떻게 유(儒)·불(佛)·도(道) 삼교로 정립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불교는 양한 시대 중국에 전래된 이후, 중국 고대 사회의 역사적 조건과 사상·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중국화의 길을 걷게 된다. 학술적으로 말한다면, 불교의 중국화는 바로 불교학의 유학화를 표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중국 고대의 전통적인 학술과 사상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가운데 유가사상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불교의 본체론적인 사유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발전의 시각에서 말한다면, 불교사상의 윤리화 및 심성화와 유가사상의 본체화로 말미암아 결국 심성 본체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송명시대의 이학(理學)과 심학(心學)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불교와 유학의 상호 침투와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중국 학술 문화의 발전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중국불교, 특히 중국화된 중국선은 중국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 완전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또한 반대로 중국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다면 중국철학은 물론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의 중국철학에 대한 이해 역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중국불교와 중국철학의 주류를 이룬 유학과 불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여시아문 추천 법공양 도서

1. 작은 것이 아름답다 — E.F. 슈마허 지음, 김진욱 옮김/ A5신 338쪽/ 범우사 값 6,000원
2. 부끄러운 문화 답사기 — 기독문학회 지음/ A5신 338쪽/ 실천문학사/ 값 7,500원
3. 일요일에 배달된 편지 — 나상호·김준만 지음/ A5신 176쪽/ 솜리/ 값 5,000원
4. 내 아들 딸들아 세상은 너의 것이다 — 율곡 이이 편, 안장환 엮음 B6 양장 146쪽/ 큰산/ 값 5,500원
5. 인연 — 서정주 지음/ B6 200쪽/ 민족사/ 값 3,500원
6. 간디의 생애와 사상 — 차기벽 지음/ A5신 242쪽/ 한길사 / 값 6,500원
7. 역사로 읽는 원효 — 김상현 지음/ A5신 352쪽/ 고려원/ 값 6,800원
8. 미래 문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간 — 법륜 지음/ B6 168쪽/ 정토출판/ 값 5,000원
9.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 보자 — 윤완철, 김용운 외 지음/ A5신 238쪽/ 시공사 값 7,000원
10. 십대도 행복할 수 있다 — 선일 지음/ A5신 176쪽/ 대교출판/ 값 6,000원

여시아문 통신

현대불교신문의 불서 정보란 '여시아문'에 신간 소개를 원하는 출판사에서는 보도 자료와 함께 신간을 보내주십시오. 좋은 책이 독자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시아문 편집부 —

통신판매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나 우송해 드립니다.
* 5,000원 이상은 우송료 무료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095, 732-1521
팩스: (02)737-0696

